國語學叢書 8

前期近代國語音韻論研究

宋 敏 著

ㅂ ㄴ ㅌ ㄷ ㆁ ㅋ ㄱ

國語學會

한영교 학형

송 면 

國語學叢書 8

前期近代國語音韻論研究

—특히 口蓋音化와 ㆍ音을 中心으로—

宋　　敏 著

國語學會

머 리 말

國語音韻史上 中世國語에서 近代國語로 넘어오는 時期에 걸쳐 일어난 가장 두드러진 音韻變化에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齒莖音 ㄷ의 口蓋音化이고, 다른 하나는 ㆍ의 非音韻化이다. 이 두 가지 變化의 初期的 發端이 文獻에 나타나는 時期는 16세기 말엽이지만, 그 語彙的 擴散이 表記上으로 뚜렷하게 露出되기 시작하는 時期는 18세기 초엽에 이르러서이다. 이 小册子는 주로 이들 두 가지 音韻變化의 發生에 대한 內面的 要因과 그 擴散過程 및 그 周邊問題들을 音韻論的으로 解釋해 본 것이다.

音韻變化는 여러 가지 一般的 要因으로 解明되어 왔지만, 特定한 音韻變化의 發端要因과 그 擴散過程이 一般的 要因만으로 보기 좋게 解明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特定한 音韻變化가 왜 어떤 特定한 形態素에서 가장 먼저 實現되며, 構造的으로 同一한 條件을 가진 形態素間에 變化의 時差를 보이는 理由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解釋이 막막할 때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小册子에서는 形態素別로 時差를 보이는 音韻變化의 過程에 어떠한 內面的 要因이 介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한 關心을 기울여 보았다.

사실 國語文獻만으로 ㄷ의 口蓋音化나 'ㆍ'의 非音韻化 擴散過程이 명쾌하게 究明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難點을 어느 정도 解消시켜 줄 수 있는 資料가 倭文字로 轉寫된 몇 가지 國語資料라고 생각된다. 이 小册子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對馬島 藩士였던 雨森芳洲(1668-1755)의 「全一道人」(1729)을 통하여 18세기 초엽까지의 두 가지 音韻變化에 대한 擴散過程을 追跡해 볼 수 있었다고 믿는다.

이 小册子에서 다루어진 두 가지 音韻史的 課題에 대해서는 이미 先學들의 많은 論議가 쌓여 왔다. 이러한 先行業績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小册子나마 世上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ㆍ音에 대하여 남다른 關

心을 가질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해 주셨던 學窓時節의 李崇寧 선생님과 이 小册子가 이루어지는 過程에서 論文指導를 맡아 주셨던 李基文 선생님께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고마운 마음의 人事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小册子의 草稿에 대한 審査過程에서 여러 가지 未盡한 점을 친절하게 指摘해 주신 姜信沆 선생님, 金完鎭 선생님, 鄭然粲 선생님, 安秉禧 선생님, 그리고 李鍾徹 선생께도 深甚한 謝意를 表해 두고자 한다. 이분들의 따뜻한 忠告는 이 小册子의 內容을 다듬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아직도 잘못이 남아 있다면 그 責任은 모두가 著者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이 小册子의 草稿는 이미 1年前에 完成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著者의 健康問題와 게으름 때문에 一年 이상이나 미루적거리다가 國語學會의 配慮에 따라 이제야 그 內容을 世上에 公表하게 된 것이다. 이 小册子는 몇몇 誤字修正을 제외하고는 거의 草稿 그대로 刊行되는 것이기 때문에, 草稿完成 이후에 새로 發表된 몇몇 분의 關係論著에 대해서는 參考하지 못했음을 罪스럽게 생각한다.

이 小册子를 꾸미는 동안 塔出版社의 金炳喜 사장님과 朴泰俊 주간님께는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을 많이 끼쳐 드렸다. 그 사실을 여기에 밝혀 고마움을 대신했으면 한다. 또한 卷末의 英文要旨를 매만져 주신 朴英培 교수, 그리고 本文校正과 索引作成을 助力해 준 金木漢 군, 金炳震 군, 韓敬勳 군에게도 고마운 人事를 여기에 대신해 둔다.

1986年 8月 1日

北岳山麓 書舍에서

著 者 적음

<目 次>

I. 序 論

1. 研究의 目的과 對象 …… 7
1.1. 近代國語 音韻論의 主要課題 …… 7
1.2. 主要課題에 대한 問題點 …… 7
1.3. 目的과 對象 …… 8
2. 研究의 態度와 方法 …… 9
2.1. 研究小史 …… 9
2.2. 態度와 方法 …… 10
3. 轉寫資料의 윤곽 …… 12
3.1. 倭文字 轉寫資料 …… 12
3.2. 「和漢三才圖會」와 「朝鮮物語」 …… 13
3.3. 「客館璀粲集」 …… 15
3.4. 「全一道人」 …… 17
3.5. 「全一道人」의 形式 …… 19
3.6. 「全一道人」의 特徵 …… 20

II. 文獻音韻論의 方向

1. 表記法과 音韻變化 …… 25
1.1. 音聲記號의 性格 …… 25

1.2. 發話現實과 表記의 乖離 ……25
1.3. 音韻變化의 過程……27

2. 近代國語 資料의 性格 ……29

2.1. 飜譯文體의 音韻論的 性格 ……29
2.2. 表記混亂의 要因……30
2.3. 同一文獻內의 部分別 表記差異 ……32

3. 「全一道人」의 資料的 現實性 ……35

3.1. 轉寫資料의 要件……35
3.2. 「和漢三才圖會」와 「朝鮮物語」의 現實性 ……36
3.3. 「全一道人」의 現實性……41
3.4. 「全一道人」의 轉寫와 發話現實 ……43
3.5. 「全一道人」의 地域性……51
3.6. 「全一道人」의 語彙……56
3.7. 「全一道人」의 國語添記 誤謬 ……58

Ⅲ. ㄷ 口蓋音化

1. ㄷ 口蓋音化의 發端 ……63

1.1. ㄷ 口蓋音化의 發端時期와 條件……63
1.2. ㄷ 口蓋音化의 擴散 ……65

2. ㅈ 口蓋音化의 發端 ……68

2.1. ㅈ 口蓋音化에 대한 諸說……68
2.2. ㅈ 口蓋音化의 條件 ……70
2.3. ㅈ 口蓋音化의 發端時期 ……72

2.4. ㅈ 口蓋音化의 擴散 ……………………………………………………73

3. 18세기 초엽의 ㄷ 口蓋音化 ……………………………………………74

3.1. 國語文獻의 ㄷ 口蓋音化 ………………………………………………74
3.2. 「全一道人」의 ㄷ 口蓋音化(1) …………………………………………77
3.3. 「全一道人」의 ㄷ 口蓋音化(2) …………………………………………85
3.4. 18세기 초엽의 ㄷ 口蓋音化……………………………………………86

4. ㄷ 口蓋音化의 過程 ……………………………………………………88

4.1. 17세기 말엽의 ㄷ 口蓋音化……………………………………………88
4.2. ㄷ 口蓋音化의 過程 ……………………………………………………89

Ⅳ. ㆍ 非音韻化

1. ㆍ 非音韻化의 發端 ……………………………………………………93

1.1. ㆍ 非音韻化의 概念 ……………………………………………………93
1.2. ㆍ 非音韻化의 發端的 實例 檢討 ………………………………………94
1.3. ㆍ 非音韻化의 發端時期와 條件…………………………………………95
1.4. ㆍ 非音韻化의 擴散……………………………………………………100

2. 18세기의 ㆍ 非音韻化 ………………………………………………101

2.1. 18세기 말엽의 ㆍ 非音韻化 …………………………………………101
2.2. 18세기 중엽의 ㆍ 非音韻化 …………………………………………104
2.3. 18세기 초엽의 實狀……………………………………………………107

3. 倭文字 資料의 ㆍ音 轉寫………………………………………………108

3.1. 「全一道人」의 國語添記 ………………………………………………108

3.2. 「全一道人」의 ㆍ音 轉寫……………………………………………112
3.3. 기타 資料의 ㆍ音 轉寫……………………………………………120
3.4. ㆍ音 轉寫의 實狀……………………………………………122

4. ㆍ 非音韻化의 過程……………………………………………125

4.1. ㆍ 非音韻化의 擴散過程……………………………………………125
4.2. ㅡ 唇音化와 ㆍ 非音韻化……………………………………………129
4.3. ㆍ 非音韻化의 過程……………………………………………132

V. 結 論

1. 文獻音韻論의 方向……………………………………………137

2. ㄷ 口蓋音化……………………………………………137

3. ㆍ 非音韻化……………………………………………138

4. 맺는 말……………………………………………141

<主要 參考文獻>……………………………………………143
<英文要約>……………………………………………151
<索 引>……………………………………………157

Ⅰ. 序　論

1. 研究의 目的과 對象

1.1. 近代國語 音韻論의 主要課題

近代國語에 대한 音韻論的 研究에서 지금까지 集中的으로 다루어진 主要課題는 中央方言의 語彙形態素(lexical morpheme) 構造 內部에서 일어난 몇가지 音韻變化였다. 여기에는 우선 15세기부터 그 實例가 確認되는 語頭 無聲子音의 喉頭音化(laryngealized) 내지 有氣音化(aspirated), 17세기부터 散發的으로 그 모습을 들어내기 시작하는 舌端破擦音 ㅈ의 口蓋音化(palatalization), 그리고 이 變化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舌端破裂音 ㄷ의 口蓋音化가 包含되어 있다. 語彙形態素 第一音節에 남아있던 後部母音 ㆍ의 非音韻化(dephonologization), 兩唇子音下에 配分되는 非圓唇母音 ㅡ의 唇音化(labialization)도 近代國語 音韻論에서 빼놓을 수 없는 課題였다. 여기에 다시 18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二重母音 ㅔ(əy>e)나 ㅐ(ay>ε)의 融合(coalescence)에 의한 單母音化(monophthongization), 그로 인한 前部母音의 體系形成과 後部母音 部類 ㅡ, ㅓ, ㅏ의 前部母音化, 즉 움라우트(umlaut)와 같은 音韻變化들이 近代國語 音韻論 研究의 大宗을 이루어 온 것이다. 이들 音韻變化는 모두가 語彙形態素의 第一音節 位置에까지 그 影響力을 行事했다는 점에서[1] 共通性을 보인다.

1.2. 主要課題에 대한 問題點

近代國語 音韻論의 主要課題들은 그동안 文獻과 方言을 통하여 多角的으

1) 'ᄡᅳ+우+ㅁ→ᄡᅮᆷ, ᄐᆞ+아→타'와 같은 形態音韻論的 交替에서는 본래의 單音節 形態素 語幹構造가 表面上 달라지는 수도 있으나, 이는 共時的 音韻現象이므로 通時的 音韻變化와는 그 性格이 다른 存在이다.

로 檢討되어 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직도 精密化되어야 할 部分이 많이 남아있다. 가령, 語頭 無聲子音의 喉頭音化나 有氣音化에 대한 原因 究明은 그동안의 努力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고ㅎ'(鼻), '갈ㅎ'(刀), '볼ㅎ'(臂) 등이 末音 ㅎ의 逆行同化에 의하여 각기 '코, 칼, 풀'이 되었다면, '길ㅎ'(道), '돌ㅎ'(石) 등은 왜 이 變化에서 除外되었으며, '고ㅎ, 갈ㅎ, 불ㅎ'은 有氣音化의 길을 택하고 있는데, '비ㅎ-(撒), 디ㅎ-(搗)'는 왜 '셰ㅎ-, ᄣᅵㅎ-'[2]와 같은 喉頭音化의 길을 걸었는지 解答이 막연하다. 이 變化가 15세기(어쩌면 그 이전)부터 長久한 歲月에 걸쳐 進行되어 왔고, 지금도 進行中에 있는 理由에 대해서도 시원한 解明을 들을 수 없다. 口蓋音化나 唇音化의 原因은 일단 表面的 音聲環境으로 解釋이 가능하지만, 喉頭音化나 有氣音化의 原因은 音聲環境만으로는 잘 解明되지 않는다. 그때문에 이들 變化는 非言語的 要因, 즉 社會的, 心理的 要因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說明되기도 하였다. "社會生活의 激化에 따른 音聲 强化"(金亨奎 1955 : 233, 1962 : 76)나, "激烈性을 띤 動作을 印象的으로 나타내기 위하여"(李基文 1959 : 38, 1972ᵇ : 124)와 같은 原因 摸索이 這間의 사정을 말해 준다.

音韻變化에 대한 社會的, 心理的 原因을 무조건 排除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한 原因을 모두 動員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喉頭音化나 有氣音化를 거친 形態素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說明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같은 條件下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變化를 外面한 경우, 그 理由를 빠짐없이 說明할 수 없다는 데에 問題가 남아 있는 것이다.

1.3. 目的과 對象

近代國語 音韻論의 課題 하나하나에는 이처럼 크고 작은 問題點이 아직도 남아 있다. ㅈ와 ㄷ 口蓋音化, ㆍ 非音韻化와 ㅡ 唇音化에 대한 지금까지의 論議도 이 점에 있어서는 例外가 아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나타난 이들 變化의 時期와 原因 및 그 擴散過程, ㅈ와 ㄷ에 대한 두가지 口蓋音化

2) 편의상 本硏究에서는 原文引用이 아닌 한, 때에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表記한다.

相互間의 관계, 、非音韻化와 ㅡ 唇音化 사이에 潛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內面的 有機性 등에 대해서도 解明되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本硏究는 前期近代國語 文法에 새로 追加된 이들 音韻變化와 그들을 둘러싼 일련의 크고 작은 問題點들을 다시 한번 實證的으로 整理, 檢討하면서, 그 內面的 性格을 좀더 精密하게 解釋해 보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輕視되었거나 거의 利用되지 않았던 한 轉寫資料와 그밖의 文獻들이 動員될 것이다.

여기서 前期近代國語라 함은 대략 17세기 초엽에서 18세기 중엽까지에 대한 筆者의 暫定的 區分이다. 따라서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말엽까지는 後期近代國語가 된다. 이 區分은 기본적으로 、非音韻化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國語文獻에 、非音韻化를 알리는 實例가 본격적으로 露出되는 時期는 18세기 중엽 이후이기 때문이다.

2. 硏究의 態度와 方法

2.1. 硏究小史

近代國語 音韻論의 主要課題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硏究에는 무게 있는 成果들이 많다. 이들중 本硏究와 직접 관계되는 主要한 業績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ㅈ 口蓋音化에 대해서는 許雄(1964), 李基文(1972[a]), 郭忠求(1984) 등이 있으며, ㄷ 口蓋音化에 대해서는 金亨奎(1955, 1962), 劉昌惇(1961, 1964), 田光鉉(1971), 李明奎(1974), 郭忠求(1980) 등이 있다. 、非音韻化에 관련 있는 것으로는 李崇寧(1954, 1959, 1971, 1977), 崔鉉培(1959), 李基文(1959, 1972[a], 1972[b]), 金完鎭(1963, 1967, 1971, 1978), 田光鉉(1967, 1971), 宋敏(1974, 1985), 郭忠求(1980) 등이 있으며, ㅡ 唇音化에 대한 것으로는 金亨奎(1955), 南廣祐(1974), 金完鎭(1963), 宋敏(1985) 등이 있다. 그밖에도 이들 課題에 대한 精密化 努力은 여러 방면에서 꾸준히 持續되고 있다.[3)]

3) 그 대부분은 方言의 內的 再構를 위한 硏究에 나타난다. 崔明玉(1974, 1982), 李丞宰(1977, 1980), 朴昌遠(1983) 등.

2.2. 態度와 方法

지금까지의 硏究 動向을 잠시 훑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指摘할 수 있다.

첫째, 어느 課題이건간에 그에 대한 관심은 주로 通時的 變化에 偏重된 경우가 많다. 語彙形態素의 內部構造, 곧 形態素의 靜的 構造(static structure)에만 관심이 기울어지다 보니, 形態素構造 하나하나에 대한 通時的 變貌와 그 變貌를 誘發한 個別的 音韻變化를 論議의 主對象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合成法이나 派生法, 특히 屈折法과 같은 形態素 結合에 나타나는 形態音韻論的 交替(morphophonemical alternation), 즉 形態素들이 보여주는 力動的 現象(dynamic phenomena)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적도 있으나, 그 또한 前代나 後代의 文法과 差異를 보이는 項目에 局限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事實은 通時的 變化에 대한 관심의 所産일 수밖에 없다. 결국 近代國語 音韻論 硏究에 관한 한, 그 어느 時點의 어떤 音韻現象에 대해서도 엄밀한 의미의 共時的 記述이 試圖된 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4)]

여기에는 물론 資料上의 制約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엄밀한 共時的 記述에는 풍부한 現實口語資料, 그것도 理想的으로는 같은 해에 이루어진 資料가 요구되지만, 近代國語資料는 絕對量에서 우선 零星한 것이다. 이런 難點을 克服하기 위한 한 方案으로서 本硏究는 한 文獻의 最大活用[5)]이란 態度를 重視할 것이다. 한 文獻의 最大活用이란 한 課題에 관련되는 形態素나 音韻現象을 우선 한 文獻에 나타나는 資料만으로 보다 면밀히 記述해 본다는 뜻이다. 그러나 本硏究도 기본적으로는 形態素의 靜的 構造를 통하여 音韻變化에 접근하는 傳統的 方法을 따를 것이다.

---

4) 個別文獻의 解題나 한 文獻에 대한 集中硏究에는 共時的 記述이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이때에도 通時的 變化와 關係되는 文法項目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許雄(1963), 南廣祐(1970, 1977[b]), 田光鉉(1978) 등이 모두 그러한 性格을 보여준다.

5) 한 文獻이 時代를 달리하여 數次 改刊되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言語資料 전체를 면밀하게 比較함으로써 國語史를 精密化할 수 있는 方法도 있다. 이 方法은 특히 金完鎭(1975, 1976)에서 試圖되어 많은 成果를 거둔 바 있지만, 本硏究에서는 그러한 資料上의 惠澤을 누릴 기회가 없었다.

둘째, 表記法의 保守性 때문에 어떤 音韻論的 事實에 대한 結論이 흐려진 경우도 있다. ㄷ 口蓋音化나 ㆍ 非音韻化 問題도 이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다. 沈默 속에 묻혀 있는 過去의 發話現實에 대한 音韻論的 解明은 宿命的으로 視覺的 文字表記라는 간접적 資料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 이러한 意味에서 文字表記에 의존하는 音韻論을 文獻音韻論(textual phonology)이라고 부를만 하다.

文獻音韻論은 表記資料에 매달리는 도리밖에 없기 때문에 視覺的 表記體系를 통하여 聽覺的 音聲現實을 밝혀내는 節次를 밟게 된다. 이 때에 表記의 保守性은 音韻史的 視野를 흐리게 한다. 音韻史에서 外國文字로 轉寫(transcription)[6]된 資料에 큰 比重을 두게 되는 所以가 거기에 있다. 이에 本研究는 倭文字[7]로 轉寫된 몇가지 國語關係資料를 近代國語資料에 追加하고자 한다. 이들 資料中에는 당시의 國語文章을 倭文字로 轉寫한 것이 들어 있어 注目된다. 여기에는 18세기 초엽의 國語에 대한 音聲層位의 情報, 특히 ㄷ 口蓋音化나 ㆍ 非音韻化에 대한 現實的 情報가 크게 反映되어 있다. 이들 資料에 대한 分析은 國語文獻이 보여주는 表記의 保守性에 대해서도 깨우쳐 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셋째, 音韻變化 相互間의 有機的 關係, 또는 個別的 音韻變化의 原因이나 過程에 대한 解釋이 未盡한 경우도 있다. ㅈ와 ㄷ 口蓋音化는 通時的으로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ㆍ 非音韻化와 ㅡ 唇音化 또한 서로 無關한 變化가 아니다. 이들 相互間의 關係가 어떠한 性格을 가진 것이며, 그 通時的 節次가 어떤 것인지에 좀더 注目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本研究는 이들 音韻變化 相互間의 有機性, 變化에 대한 內面的 原因, 특정한 變化가 특정시

---

6) 外國語를 模寫하는 方法은 크게 두가지로 區分될 수 있다. 그 하나는 發音式 模寫, 즉 轉寫(transcription)요, 다른 하나는 綴字式 模寫, 즉 轉字(transliteration)이다. 本研究에서는 이 兩者의 概念을 區別하여 쓰기로 한다.

7) 本研究에서는 19세기말엽 이전의 日本語를 편의상 특정한 時代區分 없이 '倭語'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것은 朝鮮時代에 傳統的으로 그렇게 불려왔기 때문이며, 本研究에서는 現代日本語와 區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倭文字'라는 概念도 '倭語'時代에 쓰인 文字임을 뜻한다. 한편 現代語와 관계될 때에는 '現代日本語' 또는 '日本語'란 名稱을 사용하기로 한다.

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理由, 그리고 變化의 擴散過程 등에 대하여 약간의 새로운 解釋을 試圖할 것이다. 모든 分析에서는 音聲的 容認可能性(phonetic plausibility)이 우선적으로 重視될 것이지만, 필요할 때에는 非音聲的 要素(non-phonetic effect)가 動員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3. 轉寫資料의 윤곽

3.1. 倭文字 轉寫資料

本硏究에서는 지금까지 널리 利用되어 온 近代國語 文獻資料 이외에도 倭文字로 轉寫된 몇가지 國語資料가 특별히 活用될 것이다. 國語文獻에 대해서는 새로 덧붙일만한 事項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倭文字에 의한 轉寫資料에 대해서만 약간의 檢討를 행하기로 한다. 이들 資料의 대부분은 일찌기 小倉進平(1920, 1940)의 概略的인 紹介로 學界에 알려진 바 있으나, 여기에 다시 한번 그 內容을 整理해 두기로 한다.

朝鮮國語 : 寺島良安의 「和漢三才圖會」(1712) 卷十三 異國人物 朝鮮의 마지막 分門(16^a-18^b)에 나타나는 資料이다. 漢字로 된 標題語 112項目에 해당하는 國語語彙를 平假名과 漢字音譯으로 表記해 놓았다. 平假名은 標題語 오른쪽에 나란히, 그에 대한 漢字音譯은 그 아랫쪽에 적혀 있다. 이 文獻의 書名은 板本에 따라 「倭漢三才圖會」로도 나타나지만, 그 경우에도 各卷의 內題나 板心은 「和漢三才圖會」로 되어 있을 때가 많다. 本硏究에서는 이를 日本語學에서의 慣用에 따라 「和漢三才圖會」로 불러둔다. <略號「和漢」>

以呂波譯字 : 名古屋의 儒學者 木下實聞(1681~1752)이 펴낸 「客館璀粲集」(1720) 속에 (8^a) 들어있는 資料이다.[8] 倭語 音節文字表인 '이로하' 한 文字 한 文字에 國語文字 表記를 달아 놓은 것이다. <略號「客館集」>

「全一道人」(1729) : 對馬島 藩士 雨森芳洲(1668~1755)가 倭人을 위하여 編纂한 일종의 國語學習 敎本이다. 著者 자신의 붓으로 이루어진 筆寫本 狀態로 傳한다. 序와 凡例를 갖춘 총 63葉의 單卷本이다. 國語文章을 片假名으로 완전히 轉寫한 후, 군데군데에 國語文字에 의한 添記를 베풀었

8) 京都大學, 「弘治五年朝鮮板 伊路波」 <影印本>(1965)에 附錄되어 있으며, 福島邦道의 解說이 덧붙혀져 있다.

다. 內容은 明代의 劇作家 汪廷訥의 「勸懲故事」 卷一과 卷二의 처음 一部를 國語와 倭語로 飜譯한 것이다.[9]

朝鮮の國語：木村理右衛門의 이름으로 刊行된 바 있는 「朝鮮物語」(1750) 卷五의 마지막 부분(8ᵇ-16ᵃ)이다. 漢字와 平假名으로 並記된 298項의 標題語 아랫쪽에 國語單語가 平假名으로 記入되어 있다.[10] <略號 「朝物」>

3.2. 「和漢三才圖會」와 「朝鮮物語」

「和漢」과 「朝物」의 標題語 項目數에는 큰 差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共通項目에는 類似點이 많다. 「和漢」의 標題語 112項目中 '鶴, 鳬, 海鰮, 大口魚, 紗綾'의 5項目을 除外한 107項目의 標題語가 「朝物」에 그대로 나타난다. 標題語用 漢字도 兩者가 거의 똑같아서 「和漢」의 '船, 燈'이 「朝物」에는 각기 '舟, 燈火'로 나타나는 差異를 보일 뿐이다. 國語語形에도 共通性이 많다. 그때문에 「朝物」은 「和漢」에 依據했거나, 兩者가 어떤 共通資料에 基盤을 둔 것이라는 見解도[11]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에는 難點이 있다. 兩者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두 文獻에 共通되는 國語의 轉寫表記를 자세히 檢討해 보면, 하나하나의 差異는 微細하지만 量的으로는 3분의 1 이상이 差異를 보이고 있다. 倭文字 淸濁表記의 差異를 除外하더라도 40餘項目에 差異가 나타나는 것이다. 倭文字를 音聲記號로 轉字(transliteration)하여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12]

---

9) 이 資料에 대한 書誌的 調査는 安田章(1964) 참조. 「全一道人」에 대한 最初의 본격적 硏究이기도 한 安田章(1964)에는 書誌, 原典究明, 轉寫法 檢討 등이 包含되어 있으며, 原文을 國語로 復元한 釋文과 함께 原文의 影印本이 붙어있다. 本硏究에서도 이 影印本을 利用하게 될 것이다.

10) 京都大學, 「朝鮮物語」<影印本>(1970)이 있어 쉽게 利用할 수 있다. 卷頭에 濱田敦의 '開題'가 붙어있다.

11) 「朝鮮物語」<影印本>(1970)에 붙어있는 濱田敦의 '開題' 참조.

12) 本硏究에서는 倭文字를 音聲記號로 轉字하여 提示하기로 한다. 이러한 方法에는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國際的 一般性이나 分析을 위해서는 利點도 크기 때문이다. 轉字는 다음과 같은 基準으로 행해질 것이다. 이 方式은 文字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는 것이므로, 表面的 發音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 편의상 倭語式 配列順序를 약간 바꾸어 둔다.

ア イ ウ エ オ ──→ 'a 'i 'u 'e 'o
ワ ヰ 　 エ ヲ ──→ wa wi 　 we wo

	標題語	「和 漢」		「朝 物」
(1) a.	地	sutagu	須太具(16^b)	tagu(8^b)
	波	koru	古留(17^a)	murukeru(9^a)
	梅	ba'iha'i	波伊波以(17^b)	maba'i(9^b)
	弓	hari	波利(17^b)	ku'i(12^a)
	矢	haruta'i	波留太伊(17^b)	sat^{s}u(12^a)
	士	hop^{q}aɴ	保波°牟(17^b)[13]	rita'i(11^b)
	男	naɴza'u	奈牟左宇(17^b)	soɴnahe(11^a)
	綿	meguso	女久曾(18^b)	kuɴ(12^b)
b.	露	oru	乎留(17^a)	woru(9^a)
	鳩	'ihut^{s}i	以不知(18^a)	'ihut^{s}i(14^a)
	鳥	tori	止里(18^a)	tori(14^a)
	蚊	boru	保留(18^a)	p^{q}oru(14^a)

우선 (1)a는 「和漢」과 「朝物」이 서로 다른 語形을 提示하고 있는 實例들이다. '弓, 矢, 士, 男, 綿'에 대해서는 兩者가 완전히 서로 다른 語形을

ヤ		ユ		ヨ ——→ya		yu		yo
カ	キ	ク	ケ	コ ——→ka	ki	ku	ke	ko
ガ	ギ	グ	ゲ	ゴ ——→ga	gi	gu	ge	go
サ	シ	ス	セ	ソ ——→sa	si	su	se	so
ザ	ジ	ズ	ゼ	ゾ ——→za	zi	zu	ze	zo
タ	チ	ツ	テ	ト ——→ta	t^{s}i	t^{s}u	te	to
ダ	ヂ	ヅ	デ	ド ——→da	d^{z}i	d^{z}u	de	do
ハ	ヒ	フ	ヘ	ホ ——→ha	hi	hu	he	ho
バ	ビ	ブ	ベ	ボ ——→ba	bi	bu	be	bo
パ	ピ	プ	ペ	ポ ——→p^{q}a	p^{q}i	p^{q}u	p^{q}e	p^{q}o
ナ	ニ	ヌ	ネ	ノ ——→na	ni	nu	ne	no
マ	ミ	ム	メ	モ ——→ma	mi	mu	me	mo
音節末의	ン	ツ		——→ɴ	Q			

「全一道人」에서는 이밖에도 ハ行 音節 전부, サ와 ソ, テ와 같은 音節에 補助記號를 덧붙혀 國語의 轉寫에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註 29 참조.

13) 現代日本語의 半濁音記號인 圈點(°)은 16세기 말엽의 '기리시단'(크리스천) 관계 文獻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奧村三雄 1977 : 242). 따라서 이 때의 '波°'는 ha°(パ)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本研究에서는 이 ha°를 p^{q}a로 轉字한다(註 12 참조). 한편 「朝物」의 '朝鮮の國語' 題下(8^b)에는 "이 동그라미를 붙혀 놓은 곳은 淸과 濁의 사이이니라"와 같은 細註가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國語의 ㅂ, ㅍ, ㅄ의 轉寫에 이 記號가 쓰이고 있다. 다만 「朝物」의 轉寫에서는 國語의 ㅂ에 濁音記號(゛)가 사용된 경우도 있다.

提示하고 있다. 그리고 '士'에 대한 「朝物」의 rita'i는 解讀이 안되는 語形이다. 이러한 差異는 「朝物」이 「和漢」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일 수 없음을 알려준다. 그렇다고 하여 兩者가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 (1)b는 「和漢」과 「朝物」에 共通되는 錯誤例들인데, '露'는 '凍'(얼-)의 錯誤인 듯하며, '鳩'에 대한 國語는 解讀이 안되는 語形이다. '鳥'에 대한 tori는 倭語와 混同한 것이고, '蚊'에 대한 「和漢」의 boru, 「朝物」의 pᵍoru는 다같이 '벌'(蜂)과 錯誤를 일으킨 것이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和漢」을 最初의 原形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요컨대 (1) a의 差異로 보아 「朝物」이 「和漢」에 依據했다거나, 兩者가 共通資料에 기반을 두었다는 推定은 어느 것도 成立되기 어렵다. 「朝物」의 標題語 項目이 「和漢」의 3倍에 가깝다는 事實도 위와 같은 推定을 容納하지 않는다. 결국 이 두 資料의 成立過程은 매우 복잡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 두 資料는 時代性과 地域性에도 불분명한 점을 많이 內包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後述할 것이다.

3.3. 「客館璀粲集」

「客館集」은 1719年 洪致中을 正使로 하는 朝鮮通信使가 江戶 往復 길에 名古屋에 두 번(往路 9月 16日, 歸路 10月 25日) 머물렀을 때, 木下實聞과 朝比奈文淵이 信使一行의 宿所를 찾아가 筆談으로 問答한 內容을 整理 刊行한 것이다. '以路波譯字'는 蘭皐(木下實聞)와 耕牧子(書記였던 姜栢)의 問答 가운데 들어있다. "諺文字體가 어떤 것이냐"는 蘭皐의 물음에 耕牧子가 "글자는 梵字와 비슷하고 方言으로 字義를 옮긴다"고 대답한 후, 따로 '諺文'을 써서 蘭皐에게 주었다고 한다.[14] 그 內容은 子音 'ㄱ ㄴ ㄷ ㄹ ㅁ ㅅ ㅇ'

14) 민족문화추진회, 「국역해행총재」 I (1974), Ⅱ(1974)에 收錄된 申維翰의 「海游錄」(1719年 10月 25日字)에는 "蘭皐가 또 그의 詩稿 두 권을 보이므로 내가 다 서문을 지어서 책 머리에 써 주었다. 여러 왜인이 우리나라 諺文의 字形을 보여달라 하므로 대략 써서 보였다"(「국역해행총재」 I : 549)고 되어 있는데, 「客館集」에는 耕牧子가 蘭皐에게 써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어느 쪽 記錄이 正確한지 現在로서는 判斷할 길이 없다. 다만 이것이 같은 날 같은 場所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職責이 높았던 申維翰이 書記인 姜栢에게 써주도록 指示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海游錄」의 記錄대로 申維翰은 여러

7字와 '가갸거겨…'에서 '하햐허혀…'까지의 音節表, 그리고 圓脣性 二重母音 音節 '과 궈 와 워 솨 숴 화 훠' 8字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에는 倭文字가 일체 쓰이지 않았다. 그 뒤에 '以路波譯字'가 나타나는데, 그 音節數는 모두 47字로 되어 있고, 한 音節 한 音節에 倭文字와 國語文字에 의한 表記가 나란히 놓여 있다.

(2) 'i ro ha ni ho he to／tˢi ri nu ru 'o[16] wa ka／
이 로 하 니 허 혜 도 지 리 느[15] 르 어 와 가
yo ta re so tˢu ne na／ra mu 'u wi no wo[17] ku／
요 다 례 소 즈 녜 나 라 므 우 이 노 어 구
ya ma ke hu ko 'e te／'a sa ki yu me mi si／
야 마 계 후 고 예 뎨 아 사 기 유 메 미 시
we hi mo se su
예 히 모 셰 츠

原文은 모두 7行으로 되어 있는데 斜線(／)으로 區分된 자리는 行이 바뀐 곳임을 나타낸다. 이 '以路波譯字'에는 未審한 점도 內包되어 있다. 우선 이 部分까지 耕牧子가 직접 蘭皐에게 써 주었다는 '諺文'에 包括되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資料가 耕牧子 혼자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倭人 누군가가 '이로하' 音節 하나하나를 耕牧子가 듣고 國語文字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發音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즉석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 資料가 다른 經緯를 거쳐 補完된 것일 수도 있다. 福島邦道는 이 作業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雨森芳洲가 여기에 介入했을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18]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資料 자체의 信憑性을 의심할

倭人에게, 「客館集」의 記錄대로 姜栢(耕牧子)은 木下實聞(蘭皐)에게 따로 따로 써 주었을 지도 모른다.

15) 國語의 字形이 이상하게 되어 있으나, 적어도 '누'字는 아닌 듯하여 '느'로 읽어 둔다.

16) 본래는 wo가 되어야 할 곳이다.

17) 본래는 'o가 되어야 할 곳이다. 당시의 倭語에서 wo와 'o가 音聲上 區別되지 않았으므로 倭人들도 表記에 錯誤를 일으킨 것이다.

18) 京都大學, 「弘治五年朝鮮板 伊路波」<影印本>(1965) 「客館璀粲集」 解說 참조.

필요는 없을 것이다. 雨森芳洲라면 당시의 倭人으로서는 國語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介入이 國語資料에 어떤 缺陷을 더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3.4. 「全一道人」

「全一道人」은 위의 다른 資料와 性格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國語音韻史的 側面에서 重要한 轉寫資料의 하나로 看做된다. 著者인 雨森芳洲가 文教職務를 管掌하는 藩士로서 對馬島에 招聘되어 온 것은 1693年(26歲時)이었다. 1703年(36歲時)에는 朝鮮땅에 건너와 3년간 國語를 배웠으며[19], 1711年(44歲時)과 1719年(52歲時)에는 두 차례나 朝鮮通信使 一行을 案內하며 江戶를 往復하였다.[20] 그는 儒學者로서 詩文에 能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漢語와 國語를 자유롭게 驅使할만큼 語學에도 長했다.[21]

雨森芳洲는 그 나름대로의 言語觀을 가지고 있었다. 「全一道人」의 序와 凡例 여기저기에는 그의 言語觀이 잘 反映되어 있다. 序에 의하면 그는 國語學習用 教材를 學習目標와 進度에 따라, 四部로 나누어 編述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序는 다음과 같다.

> 우리(對馬)州人, 무릇 公事에 從事하고 있는 者, 그 누가 韓語에 마음이 없으리오? 그러나 그 書도 없고 그 教도 없으니, 다만 望洋의 한숨을 지을 뿐. 여기에 四部의 書를 골라 처음에 韻略諺文을 읽고 字訓을 알고, 다음에 酬酢雅言을 읽고 短語를 알고, 다음에 全一道人을 읽고 그 마음을

---

19) 安田章(1964 : 18)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根據로서 雨森芳洲 자신의 다음과 같은 記錄이 引用되어 있다. 이를 筆者의 拙譯으로 여기에 옮겨둔다.
　　36歲 때 朝鮮말 공부를 위하여 彼地에 건너 갔노라(「交隣提醒」)
　　나는 '가라'(朝鮮) 땅에 가서 三年동안 힘들여 대체로 답답하지 않을만큼 배웠노라(「たはれぐさ」).

20) 특히 1719年의 通信使行中에는 製述官 申維翰이 있었는데, 그는 江戶를 往復하는 路程에서 雨森芳洲와 개인적으로 많은 討論을 가졌다. 申維翰의 「海游錄」(민족문화추진회, 「국역해행총재」 I, II 所收)에는 그에 대한 상세한 記錄이 보인다.

21) 申維翰의 「海游錄」에는 雨森芳洲가 通譯 없이 國語를 알아 듣거나(「국역해행총재」 I : 409, 1719年 6月 30日字), 倭語를 직접 國語로 通譯한 일이 있음(「국역해행총재」 I : 425, 1719年 7月 19日字)을 傳하는 記錄이 남아있다.

기르고, 그 다음에 鞮屨衣梚을 읽고 그 用을 達하게 하노라. 간절히 바라건대 그 教에 차례가 있고서야 그 材를 이룸이 가까우리라고만 해 두노라.[22]

雨森芳洲는 國語를 學習함에 있어 字訓을 익히는 段階, 短語를 익히는 段階, 마음을 醇化시키는 段階, 實用段階와 같은 順序를 提示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各 段階에 맞추어 四部의 教材를 編述했는데, 그것이 각기 「韻略諺文」, 「酬酢雅言」, 「全一道人」, 「鞮屨衣梚」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全一道人」을 제외한 나머지 三部는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全一道人」은 第三段階 學習書인만큼, 그 內容도 倫理的인 故事로 이루어져 있다. 安田章(1964)의 考證에 의하여 「全一道人」의 藍本은 明代 汪廷訥의 「勸懲故事」임이 밝혀진 바 있다. 同書 卷一 孝部 二十六條와 卷二 弟部 八條까지를 國語와 倭語로 각기 飜譯한 후, 國語 部分 전체를 倭文字 片假名으로 轉寫해 놓은 것이 곧 「全一道人」이다. '全一道人'이란 汪廷訥의 別號였다고 한다(安田章 1964 : 12).

「全一道人」은 國語部分을 적당한 段落으로 잘라 먼저 片假名으로 轉寫하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倭語文을 잇대어 나가는 方式을 택하고 있다. 이는 朝鮮時代의 諺解方式을 模倣한 것으로 생각된다. 轉寫文 군데군데에는 國語文字에 의한 註釋式 添記를 베풀고 있다. 그 첫 부분 한 段落을 音聲記號로 轉字하여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3)b에 安田章(1964)의 國語復元文을 곁들여 둔다.

손이라 ᄌᆞ건이니

(3) a. tˢiyusizeru'i。minsonirahanonsarami。tsononn。tsokonini。hiyosegi。

喪 母 계 뫼 두

tˢikuku。hatoni。'irutˢuku。sagumo。hoko。ke'imu'i。to'u'atoruru。nahuni。(17)[23]

---

22) 편의상 本研究에서는 原文을 筆者의 拙譯으로 대신한다. 原文에는 句讀點이 없으나, 理解를 돕기 위하여 筆者가 적당히 끼워 넣는다. 原文의 뜻을 保存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直譯하였으나, 意味가 잘 통하지 않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최소한의 意譯으로 대신하거나 괄호를 써서 보충하기로 한다.

23) 出典表示는 安田章(1964)의 影印本에 매겨진 面數를 그대로 따른다. 原本에는 본래 張數表示가 되어 있지 않았다.

b. 쥬시졀의。민손이라ᄒᆞ는사름이。ᄌᆞ는。ᄌᆞ건이니。 효셩이。지극ᄒᆞ더니。일즉。상모。ᄒᆞ고。계뫼。두아들을。나흐니

3.5. 「全一道人」의 形式

雨森芳洲가 國語를 倭文字로 表記한 이유는「全一道人」의 凡例 第一條에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이 册이 日本假名으로 朝鮮말을 적고, 肯綮한 곳에 諺文을(곁들여) 적음은, 諺文에 얽매어 말에 익숙하지 않은 者, 말하기가 어렵고, 말에만 힘을 써 諺文을 모르는 者, 그 말을 그르치는 통에 딱하도다. 그때문에 假名으로 적은 것을 보고 말을 알고, 諺文으로 곁들여 적은 것을 보고 말의 根本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만 이는 사람을 이끄는 捷徑으로, 材를 만드는 正法이 아니니라. 진정한 正法을 말하자면 聰明한 사람을 뽑아 七, 八歲부터 彼國에 건너 보내어, 처음부터 諺文으로 말을 배우게 하는 길밖에 없느니라.

雨森芳洲는 國語의 發話現實과 文字表記 사이에 差異가 있음을 認識하고 있었다. 그때문에 그는 發話現實을 나타내는 假名表記를 통하여 말을 익힘과 동시에, 國語添記를 통하여 表記의 規範을 알 수 있도록 위와 같은 轉寫方式을 택한 것이다. 요컨데 그는 發音을 먼저 배우고 表記를 익히는 것이 國語學習의 順序라고 생각한 것이다.[24] 이렇게 볼 때「全一道人」의 國語文字에 의한 添記는 단순히 倭文字 轉寫의 不備를 補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國語學習의 正法이 七, 八歲부터 現地에 건너가 말을 배우게 하는 것이라고 한 데에도 그의 그러한 國語學習觀이 잘 나타나 있다.

결국「全一道人」의 轉寫에 의한 國語는 發話現實에, 國語文字에 의한 添記는 表記規範에 依據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轉寫部分은 당시의 發話現實을 따르고 있어 進取的이지만, 添記部分은 表記의 慣用을 따르고 있

24) 이러한 사실은 凡例 마지막 條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되풀이 되어 있다.
全一道人을 처음에는 假名으로 적은 것을 熟讀하여 잘 깨친 후에, 되풀이 하여 諺文으로 적은 ××(蟲蝕으로 解讀이 안되는 부분임)을 가지고, 자세히 韓人에게 배워야 할지니라. 그러지 않는다면 진정한 韓語는 되지 않을 것이니라(凡例 第四條).

어 保守的이다. 音聲規則을 먼저 알고 册을 읽어야 한다는 雨森芳洲의 생각은 凡例 第二條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25]

> 韓語 가운데 諺文으로 쓰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으니라. 大槩[26] 그 例를 나중에 적겠노라. 이로써 類推할 수 있을 지니라. 日本말에도 假名으로는 馬者(mumaha)라 적지만 말로는 umaha라 하고, 假名으로는 瓜(uri)라 적지만 말로는 uri라 하나니 그것과 같은 이유가 됨을 알지니라. ……(語彙實例 部分 省略)……少年들이 諺文을 대충 알고 諺文册을 읽다가 말에 틀리는 일이 많으니라. 諺文册을 읽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니라. 開合, 淸濁, 音便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읽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니라.

'諺文으로 쓰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雨森芳洲는 분명히 指摘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語彙 實例를 '만리 maruri, 활살 hasaru, 안해 'ana'i, 심히 simi'처럼 30餘個 提示하고 있다. 開合, 淸濁, 音便이란 倭語의 發音 또는 音聲規則인데, 이러한 發音規則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册을 읽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全一道人」의 轉寫部分에 나타나는 國語는 당시의 發話現實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만큼 「全一道人」에 나타나는 轉寫部分은 다른 어떤 國語文獻보다 現實性을 지닌 資料로 看做될 수 있다.

3.6. 「全一道人」의 特徵

雨森芳洲는 國語를 좀더 精密하게 轉寫하기 위하여 旣存의 倭文字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補助記號를 使用하고 있다.

첫째, 圈點(。). 文構造에 나타나는 外的 休止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어지리 너기고   또흔   뉘웃처

(4) ʾabi。 kumaruru。 wotˢirin͡ek͡ik͡o。 womi。 ˢᵘtohaɴ。 susuro。 doyo͡oqtsa。(19)

---

25) 凡例는 모두 四項目인데 順番이 매겨져 있지 않고 모든 項目이 다같이 一로만 表示되어 있다. 편의상 첫 項目부터 順番을 매겨 이용한다.

26) 安田章(1964)의 釋文에서는 이를 '大葉'으로 읽고 있으나, 두번 째 글자에 대한 原文은 분명히 '槩'의 草書體이다. 뿐만 아니라 '大葉'으로는 뜻이 잘 통하지 않지만 '大槩'로 읽으면 意味가 잘 통하므로 여기서는 '大槩'로 읽어 둔다.

이 圈點은 新블룸필드學派의 일부 學者들이 내세웠던 音素的 句(phonemic phrase)[27]를 聯想시켜 주는 記號다. 다만 이 圈點은 一貫性 있게 베풀어졌다기보다 읽기에 便利하도록 적당히 쓰이고 있어 恣意性을 보이고 있다.

둘째, 弧線(⌒ 또는 ⌒). 原則的으로 單一音節임을 나타내기 위한 記號로 사용되었다.

(5) a. parukumiyo。(49) (미오)

b. 'uro'ihamiyo。(52) (우레)

倭文字는 CV(C는 子音, V는 母音)와 같은 한 音節을 한 單位로 한 音節文字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國語의 CVC 또는 CGV(G는 轉移音)나 CVG, CGVC나 CVGC와 같은 音節을 轉寫하려면 原則的으로 두개의 文字를 動員해야 한다. 그 결과 國語의 한 音節이 CVCV와 같은 두 音節로 바뀌는데, 이를 두 音節로 읽어서는 國語의 發音답지 않게 된다. 雨森芳洲는 이 점을 認識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5)a는 '붉으미오', (5)b는 '우레ᄒᆞ며'에 對應되는 轉寫인데, 國語의 '-미오'와 '-며'가 다같이 miyo로 나타난다. 雨森芳洲는 이를 區別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거기서 그는 똑같은 miyo라도 (5)a에서는 두 音節, (5)b에서는 한 音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弧線을 使用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 弧線이 언제나 單一音節을 表示하기 위한 記號만은 아니었다. 이 記號는 동시에, 두 音節間에 休止를 두지 말라는 뜻으로도 使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3)a에 보인 바와 같이 'ᄌᆞ건이니'를 轉寫한 t^sokonini에는 이 弧線이 t^sokoni 3音節에 걸쳐 있다. 이 때의 弧線은 音節間

27) Bloomfield, Swadesh, Pike 등은 單語나 形態素를 音素分析의 基準으로 삼았다. 音素分析에서도 形態論 層位의 單位를 基準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그 후 Bloch 등은 單語나 形態素를 形態論 層位의 單位로 돌리고, 音素分析에서는 순수한 音素論 層位의 單位를 基準으로 삼아야 한다고 主張하고 나섰다. 이것이 곧 音素的 句인데, 이 單位는 現實的 發話에 나타나는 音聲同化를 分析하는데 效果가 있었다. 여기서 形態音素란 中間層位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音素的 句는 形式 境界(formative boundary), 곧 形態素 境界(morpheme boundary)나 單語 境界(word boundary)를 包括하는 發話單位인데, 「全一道人」의 圈點은 대략 이 音素的 句를 나타내는 標識 役割을 하고 있다.

에 休止를 두어 읽지 말라는 表示임이 분명하다. 이 弧線表示는 圈點에 비하여 疎漏한 곳이 많지만, 이들 두가지 記號는 發話現實을 重視하려는 雨森芳洲의 態度를 잘 나타내고 있다.

셋째, 三點(‴). 倭文字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일부의 國語音聲을 轉寫하기 위하여, 既存 倭文字의 오른쪽 어깨에 찍어 쓴 記號이다.[28] 그것은 다음과 같은 音節에 해당하는 文字에만 나타난다.

(6) a. ha‴ hi‴ hu‴ he‴ ho‴[29]
b. sa‴ so‴
c. te‴

우선 (6)a는 國語의 語頭位置에 나타나는 兩唇無聲音 ㅂ, ㅍ를 轉寫하는 데 利用되었다. 그런데 喉頭化音 ㅄ는 당시의 國語表記에 따라 ^{su}pat^{s}ini ᄲᅡ지니(44, 94), ^{su}piyo ᄲᅢ(95)처럼 表記되어 있다. 이것은 「全一道人」에 例外的으로 나타나는 거의 유일한 轉字方式인데, 雨森芳洲가 喉頭化音에 한하여 이러한 轉字方式을 쓰게 된 데에는 그 나름대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ㅄ를 發音대로 表記하려면 ㅂ, ㅍ를 위하여 마련한 三點 찍힌 文字를 그대로 使用하는 길밖에 없다.[30] 그렇게 되면 모처럼 考案한 補助記號로도 ㅂ와 ㅍ를 區別 表記할 수 없는데, 여기에 다시 ㅄ까지 加重되면 ㅂ, ㅍ, ㅄ를 모두 區別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荷重을 줄이려는 意圖가 ㅄ를 發話現實과 관계 없는 ^{su}pV로 轉字하게 만든 原因이 된 것 같다. 이 原則을 喉頭化音 部類 ㅼ(ㅶ), ㅺ, ㅆ(ㅄ) 전체에 適用시켜, 그 辨別的

---

28) 安田章(1964)은 이 記號를 별표(*)로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이 별표와 弧線의 意味에 대해서만 약간 言及했을 뿐(安田章 1964 : 22, 28, 30, 35), 圈點의 意味에 대해서는 별다른 關心을 보이지 않았다.

29) 이를 倭文字로 직접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은데, 本研究에서는 오른쪽에 提示된 것처럼 轉字하여 쓰기로 한다. 나머지 音節에 대한 轉字方式은 註 12 및 (14)b 참조.

ハ‴ ヒ‴ フ‴ ヘ‴ ホ‴ ⟶ pa pi pu pe po
サ‴ ソ‴ ⟶ tsa tso
テ‴ ⟶ tse

30) 상식적으로는 소위 半濁音 文字인 pᵃa, pᵃi…를 利用할 법한데, 「全一道人」에서는 이들 半濁音이 倭語文에도 쓰이지 않았다.

資質(distinctive feature)에 해당하는 ㅅ 또는 ㅂ를 각기 su, pu 또는 bu로 옮기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轉字方式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發音을 重視한 雨森芳洲가 發話現實을 모르고 綴字式 轉字를 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喉頭化音 資質記號인 su, pu(bu)를 쓸 때에는 原則的으로 해당音節 文字의 왼쪽 어깨에 작은 글씨로 적어 놓았다는 사실로도 雨森芳洲의 意圖를 理解할 수 있다.

舌端破擦音 ㅈ, ㅊ를 表記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6)b이다. a, o를 母音으로 하는 音節에만 이 記號가 使用된 것은 그것이 國語의 '자, ᄌᆞ, 저, 조, 차, ᄎᆞ, 처, 초'와 같은 音節에만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밖의 母音으로 이루어진 音節, 예컨대 '주, 지'는 각기 既存의 t^{s}u, t^{s}i로 轉寫되었다. (6)c는 가장 包括的으로 쓰인 音節인데, 國語의 '뎌, 텨, 져, 쳐, 졔, 쳬'와 같은 口蓋性 上昇二重母音(rising diphthong) ㅕ 또는 三重母音(triphthong) ㅖ 앞에 나타나는 ㄷ, ㅌ, ㅈ, ㅊ를 轉寫하는데 利用되었다. 결국 雨森芳洲는 國語의 破擦音을 表記하기 위하여 ta行音節에 既存하는 t^{s}i와 t^{s}u 두 音節을 우선 動員하는 한편, sa行音節의 sa와 so를 각기 tsa와 tso로, ta行音節의 te를 tse로 加飾시킨 混成音節行을 臨時로 考案해 낸 셈이다. 이를 圖式化해 보면 다음과 같다.

(7) ㅈ表記用	tsa	t^{s}i	t^{s}u	tse	tso
	↑	↑	↑	↑	↑
sa行音節	sa				so
ta行音節		t^{s}i	t^{s}u	te	

이로써 tsa로는 '자, 차', t^{s}i로는 '지, 치', t^{s}u로는 '주, 즈, 추, 츠', tse로는 '저, 처', tso로는 'ᄌᆞ, 조, ᄎᆞ, 초'와 같은 國語의 單母音 音節을 어느 정도 倭文字 轉寫로 區別表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努力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表記는 그렇게 간단할 리 없었을 것이다. 가령 國語音節 '뎌, 텨, 져, 쳐, 졔, 쳬'에 대한 轉寫에는 새로 考案된 補助文字 tse가 원칙적으로 利用되었지만, 그 原則이 언제나 잘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이 tse는 이미 '저, 처'에 대한 轉寫에 利用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國語의 二重母音 音節 轉寫에 利用되면서, 더욱 複雜한 樣相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轉寫內容을 音節別로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뎌	텨	져	쳐	졔	쳬
tse	tse	tse	tse	tse	tse
				tse'i	
t^siya		t^siya	t^siya		
		t^siyo	t^siyo	t^siyo	
		ze		ze'i	

여기서 우선 注目되는 점은 '뎌, 텨'를 '져, 쳐'와 함께 tse로 表記하고 있다는 점이다. 音節位置에 따라 差異가 있지만 특히 '뎌'가 '져, 쳐'와 함께 t^siya로도 表記되었다는 사실은 ㄷ 口蓋音化를 反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檢討가 행해질 것이다.

요컨데 國語의 發話現實을 좀더 정확하게 轉寫하기 위한 雨森芳洲의 노력은 이상과 같은 3가지 補助記號에 잘 나타나 있다.

Ⅱ. 文獻音韻論의 方向

1. 表記法과 音韻變化

1.1. 音聲記號의 性格

文字表記는 發話現實에 대한 二次的 表象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한 言語의 發話現實이 직접적, 具象的 言語라면, 그에 대한 表記는 간접적, 추상적 言語라고 할 수 있다. "表記는 音聲이나 形態素의 地圖"(Anttila 1972 : 40)란 비유는 發話現實의 모든 要素가 表記에 受容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아무리 잘 考案된 音聲記號體系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한 言語의 發話現實을 완전무결하게 再現시킬 수는 없다.

發話란 本質的으로 物理的 音響의 複合的 連續體이기 때문에, 이를 不連續的 記號(discrete symbol)로 잘라 낼 수는 없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發話란 매듭과 같은 存在이지 염주와 같은 存在가 아니라(宋敏 1982 : 2)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든 發話가 一定數의 不連續的 音聲單位로 構成되어 있는 것처럼 認識한다(Schane 1973 : 3-4). 그러한 認識을 土臺로 하여 人間은 發話現實을 表記로 바꿀 수 있는 音聲記號體系를 考案하기에 이르렀다.

1.2. 發話現實과 表記의 乖離

일반적으로 發話現實과 文字表記 사이에 엄밀한 1 대 1의 對應(one-to-one ocrrespondence)은 없다. 그리하여 發話現實과 表記間에는 어쩔 수 없는 乖離가 생기는데, 그 乖離의 內面的 性格을 좀더 細目化해 보면 다음과 같다.

(9)

	發話	表記
共時的 側面	直接的 具象的 實質的 自然的 音聲的	間接的 抽象的 形式的 規範的 文法的
通時的 側面	進取的 現實的 流動的	保守的 傳統的 固定的
文體的 側面	口語的 對話的 俗物的	文語的 修辭的 權威的

表記의 保守性이란 결국 視覺化하기 어려운 聽覺的 現實을 限定된 文字記號로 바꾸는 過程에서 不可避하게 나타나는 兩者間의 거리인데, 이것이 共時的 差異를 誘發한다. 表記가 社會的으로 慣習化하면, 發話現實에 變化가 일어나더라도 慣習的 表記法의 影響이 後代에까지 持續된다. 이것이 通時的 側面의 差異로 나타난다. 文體的 差異는 위의 두 側面과는 次元을 달리한다. 이 때의 差異는 話者의 年齡이나 發話의 對象 또는 周圍狀況(金完鎭 1976 : 73)등은 물론, 話者의 教育水準이나 職業과 같은 要因에 의한 것이므로 表記의 保守性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31]

결국 文獻音韻論의 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은 共時的, 通時的 差異에 관계되는 表記의 現實性이다. 發話現實과 表記間에는 이처럼 필연적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兩者는 불완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發話現實의 變化

31) 文體的 要因이 通時的 變化를 誘發하여 發話와 表記間에 差異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表面上으로 表記를 保守化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라틴어 insula에서 類推된 英語의 īegland>island, 漢字 '狐'에서 類推된 國語의 '여스>여으>여호'와 같은 變化로 인한 表記上의 保守性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語源的 關係가 없는 非音韻論的 變化에 의한 것으로서, 知識人의 民間語源的 類推, 즉 文體的 要因에 의한 것이지, 表記의 保守性에 의한 것은 아니다.

와 表記의 變化는 서로 獨立的으로 進行되며[32], 音聲과 意味間에도 1 대 1의 對應이 없기 때문에, 發話現實의 變化는 意味變化와도 無關하다. 그러므로 表記資料만을 對象으로 하는 文獻音韻論에서는 우선, 表記 하나하나의 性格이 어떤 것인지를 檢討해 보지 않을 수 없다.

1.3. 音韻變化의 過程

音韻變化가 表記에 反映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過程이 가상된다. 形態素內部의 環境에 따라 어떤 音聲에 共時的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異音的 交替(allophonic alternation)는 오랫동안 隨意的 變異(free variation)에 머문다. 이 때의 隨意的 變異가 表記에 빠짐없이 反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時間이 흐름에 따라 異音的 交替는 점차 音聲規則(phonetic rule)으로 普遍化하겠지만, 이 때에도 그 發話現實이 表記에 그대로 反映되기를 期待하기는 힘들다. 初期段階의 音聲規則은 個人別, 世代別, 그리고 개개의 形態素別로 다르게 實現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文字 그 자체는 固定的이어서 變化를 모르기 때문에, 音聲規則에 의한 變異音까지는 表記에 전혀 反映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段階에서 偶發的으로 文獻에 나타나는 表記改新은 通時的으로 중요한 意味를 지닌다. 그들은 異音的 交替에 머물렀던 隨意的 變異가 점차 音聲規則으로 普遍化하고 있음을 代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話者의 文法知識에 規則이 追加되어 變化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 段階의 規則 追加(rule addition)는 個人語(idiolect)에 따라 그 實現이 다를 수도 있다. 表記의 混亂은 일차적으로 거기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話者의 文法에 規則이 追加되어 發話에 改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

32) Anttila(1972 : 43)는 綴字와 發音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3가지 類型으로 나누고 있다.

(1) pronunciation spelling : 發音의 變化에 의하여 綴字에 變改가 일어나는 경우.

(2) spelling pronunciation : 發音이 綴字의 영향으로 달라지는 경우.

(3) spelling spelling : 發音과는 관계없이 綴字가 類推的 變化(analogical change)를 입는 경우, 곧 混態(blend and contamination).

결국 音韻變化는 (1)에 국한되며 (2)와 (3)은 非音韻論的 變化에 속한다.

表記로 옮겨질 때에는, 他人의 保守的 發話現實이나 傳統的 表記法 때문에 心理的 葛藤을 겪게 된다. 가령 'ᄒᆞᆰ'이 자신의 文法으로는 '흙'인데도, 그것을 表記할 때에는 習慣上 傳統的 表記인 'ᄒᆞᆰ'을 쓰게 된다. 이 때에 어쩌다 '흙'으로 表記되는 수도 있어, 한 文獻內에서도 表記가 流動性을 보이게 된다. 例컨데 許浚은 「諺解胎産集要」(1608)에서 'ᄒᆞᆰ'(48ᵇ)과 '흙'(48ᵃ)을 同時에 쓰고 있다.

한 文獻內에 나타나는 이러한 流動的 表記는 어떤 語彙目錄에 대한 話者의 個人語的 文法에 두 가지 發話現實이 共存하는 것이라기보다, 社會的 傳統的 表記慣習에 대한 話者의 心理的 葛藤을 나타낸다. 그때문에 話者는 스스로의 發話現實을 表記로 옮기면서, 傳統과 現實間을 무의식적으로 방황하게 된다. 평상시의 文字生活이 漢文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國語表記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制度的으로 統一된 表記法을 따로 가지지 못했던 近代國語時代의 話者들에게는 특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생겨나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相異한 表記關係를 Wang(1969)은 '心理的 징검다리'(psychological bridge)라고 부른 바 있다.

이러한 話者의 心理的 징검다리는 表記의 改新을 抑制하겠지만, 音聲規則은 漸進的으로 形態素에서 形態素로, 個人語에서 個人語로 擴散되고, 世代에서 世代로 이어지는 동안 점차 必須的 規則으로 굳어진다. 表記의 改新이 어쩔수 없이 文獻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段階에서는 話者의 文法知識에까지 變化가 이루어졌으므로 엄밀한 意味의 音韻變化 時期는 이 때를 말한다.

音韻變化는 이처럼 오랜 歲月에 걸쳐 漸進的으로 이루어지지만, 거기에는 異音的 交替의 隨意的 實現, 音聲規則의 追加, 音聲規則의 形態素的 擴散, 個人語의 文法變化, 文法變化의 社會的 擴散 및 世代交替와 같은 過程이 따른다. 결국 모든 音韻變化는 發端과 擴散, 그리고 完結段階를 거친다고 할 수 있는데, 최종적 變化는 個個人의 世代交替를 통해서 實現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世代交替는 個個人에 따라 時差를 갖기 때문에 한 時點의 文法에도 保守와 改新이 共存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表記 또한 流動性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어느 時代, 어느 文獻의 表記法에도 이러한 共時的 流動性과 通時的 變化過程이 多樣한 差異로 나타나기 때문에, 文獻音韻論에서는 散發的으로 나타나는 表記改新이나 異例的인 表記를 통하여 하나의 音韻變化 過程이 보다 精密하고 矛盾없이 解明될 수 있어야 한다.[33)]

2. 近代國語 資料의 性格

2.1. 飜譯文體의 音韻論的 性格

近代國語 資料의 거의 대부분은 이른 바 諺解, 즉 飜譯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34)], 그 形式으로서는 對譯方式을 택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中世國語 資料도 같은 性格을 지닌다. 자연히 國語資料는 文體上 飜譯文體라는 性格을 강하게 띨 수밖에 없다. 飜譯文體에는 原文인 外國語의 文法的 干涉이 끼어 들기 마련이지만, 그 範圍는 語彙的, 統辭的 干涉에 局限될 뿐이어서 音韻論的, 形態的 干涉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 一般的이다.[35)] 따라서 國語資料에 대한 音韻論的 分析이 飜譯文體라는 理由 때문에 支障을 받는 일은 우선 없다고 할 수 있다.

對譯方式은 오히려 意味解讀에 도움이 될 때가 많다. 「伍倫全備諺解」(1721)를 實例로 삼아 그 一端을 더듬어 볼 수 있다.

(10) a. 여긔가놀기됴티아니ᄒᆞ다<不好去這裏耍>(一 8^b)
　　내가여러歌舞아ᄂᆞᆫ子弟들을請ᄒᆞ야<我去請幾箇會歌舞的子弟每>(四 12^b)

---

33) 그밖에도 詩歌에 나타나는 韻律, 自國語에 대한 옛 사람의 論議, 音聲的 表記로 口語를 보다 충실하게 再現해 낸 非文學人의 誤綴(misspelling) 등도 신중을 기한다면(Anderson 1973 : 16) 좋은 資料가 될 수 있다.

34) 古代小說이나 詩歌, 또는 宮中文學作品 등은 創作品이어서 資料로서는 價値가 높지만, 이들 대부분은 作者나 成立時期 또는 筆寫年代 등에 信憑性이 적기 때문에, 音韻論 硏究 資料로서는 適合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筆者가 분명한 諺簡과 같은 資料는 때에 따라 有用한 情報를 提供해 준다.

35) 이른 時期의 고틱語 文獻이나 古代敎會 슬라브語 文獻은 그리스語로부터의 飜譯物들인데, 이 두 言語의 音韻論과 形態論은 그리스語의 影響을 입은 사실이 없으나, 두 言語의 聖經文 構造에는 그리스語의 統辭的 類型에 대한 模倣이 많다고 한다(Jeffers and Lehiste 1979 : 167).

b. 이곳이 ᄀᆞ장놀기됴ᄒᆞ니이다<此處最好耍>(一 6[a])
이곳이夫死從子ㅣ라<這便是夫死從子>(一 38[a])

c. 老夫人을請ᄒᆞ야나오라<請老夫人出來>(四 13[a])
請ᄒᆞ여나아오라<請進來>(一 17[a])

中國語原文이 없다면 (10)a의 '여긔가, 내가'와 같은 짤막한 構成成分에 대한 形態分析에도 論理的으로는 4가지 解釋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여긔#가+(아), 내#가+(아)', 둘째, '여긔#가+(아), 내+가', 셋째, '여긔+가, 내#가+(아)', 넷째, '여긔+가, 내+가'가 그것이다. 결국 '여긔가, 내가'를 單語境界(#)로 分析한다면, 이 때의 '가'는 動詞가 되고, 形態素境界(+)로 分析한다면 '가'는 主格 語尾가 되지만, 어느 쪽이 옳은 지를 判斷할 수 있는 객관적 根據가 없다. 그러나 中國語原文에 의하여 이 때의 '가'는 둘 다 '去'를 뜻하는 動詞임이 쉽게 밝혀진다. (10)b의 '이곳이'도 처음 것은 '이#곳+이', 나중 것은 '이#곳#이'임이 中國語原文에 의하여 確認되며, (10)c의 '나오라'와 '나아오라'의 '나'와 '나아'도 각기 '出來'와 '進來'에 의하여 意味를 서로 달리하는 別個의 動詞임이 밝혀진다. 對譯方式은 이처럼 意味解讀이나 形態分析에 有用하므로 그 結果는 音韻論的 分析에도 안전하게 利用될 수 있다.

2.2. 表記混亂의 要因

近代國語 資料가 보여 주는 表記法은 中世國語의 그것에 비하여 그 整然性이 다소 흐트러져 있다. 그러나 흐트러진 表記 속에 音韻論的 要因이 숨어 있을 때도 있다.

近代國語 資料의 경우, 表記上의 流動性은 주로 非語頭音節에 나타난다. '벼슬'이 '벼ᄉᆞᆯ'로, '구름'이 '구ᄅᆞᆷ'으로 表記되는 것도 그 一部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단순한 混亂이나 母音調和의 瓦解로 인한 秩序 喪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非語頭音節의 ㅡ가 모두 ㆍ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며ᄂᆞ리', '거ᄃᆞᆸ'(重), '기ᄅᆞᆷ'(油), '여ᄉᆞᆺ', '기ᄎᆞᆷ'(咳)에서처럼 舌端子音下에만 나타나고 있어, 거기에 某種의 音聲環境的 要因이

作用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表面的으로는 〔+鼻音性(nasal), +舌端性(coronal)〕, 또는 〔−鼻音性, +舌端性〕 資質, 곧 〔+舌端性〕 資質로 이루어진 子音下에서 본래의 ㅡ가 ㆍ로 나타나는 傾向이 강하지만[36], 이때의 ㅡ>ㆍ를 音韻變化라고는 볼 수 없다. 非語頭音節의 ㆍ가 이미 ㅡ에 合流된 段階에서, 그에 대한 逆行性 表記가 생겨난다는 것은 類推的 變化(analogical change)를 除外하고는 달리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37] 이렇게 判斷되는 데에는 또 다른 根據가 있다. 이들 形態素들은 한 文獻內에서 각기 '며느리, 거듧, 기름, 여슷, 기츰'과 共存할 때가 많을 뿐 아니라, '며느리, 거듭, 기름'과 같은 形態로 現代國語에 이르렀다. 다만 '여슷'은 그후 '다섯'에 類推되어 '여섯'으로 다시 한 번 變했고, '기츰'은 非破裂性 舌端子音下에서 일어난 前部母音化 ㅡ>ㅣ에 의하여 '기침'으로 變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며느리>며ᄂᆞ리>며느리, 거듧>

---

36) '겨을'(冬)에 대한 '겨ᄋᆞᆯ'처럼 母音下에서 例外的으로 ㅡ가 ㆍ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겨을'은 通時的으로 '겨ᅀᅳᆯ'에 遡及되므로, 이 경우에도 舌端子音下라는 條件에는 差異가 없다. 다만 半齒音 ㅿ가 非音韻化한 이후에 ㅡ가 ㆍ로 나타나는 점이 問題이긴 하지만, 이 때에는 또다른 理由, 즉 'ᄀᆞᄋᆞᆯ'(秋)에 의한 類推로 說明될 수 있다.

37)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그러한 逆行性 變化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代表的 實例로서는 '기드리-(待)>기ᄃᆞ리->기다리-, 더느-(賭)>더ᄂᆞ->(더)나-' 등이 있다.

我后를 기드리ᅀᆞᄫᅡ(「龍飛御天歌」 10章), 주구믈 기드리노니(「釋譜詳節」 六 5a), 기드릴 ᄃᆡ <待>(「新增類合」<羅孫本> 下 34b)

나오믈 기ᄃᆞ려(「東國新續三綱行實」 孝子圖 一 62b), 며ᄃᆞ려 뭇기를 기ᄃᆞ리라(「伍倫全備諺解」 一 11a)

博으로 더느기를 비호디 말며(「小學諺解」 五 34a)

혹 돈 더ᄂᆞ기 ᄒᆞ며(「朴通事諺解」 上 17b)

賭錢 나기ᄒᆞ다(「同文類解) 下 32b)

그러나 '기드리->기ᄃᆞ리-, 더느->더ᄂᆞ-'에 보이는 ㅡ>ㆍ는 發話現實에 의한 音韻變化가 아니다. 이것은 舌端音下에서 일어난 '心理的 징검다리'式 類推에 의한 表記였는데, 그러한 表記가 이번에는 發音에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綴字가 發音의 變化를 誘發한 것으로, 이른 바 spelling pronunciation (Anttila 1972 : 43)에 해당하는 實例가 될 것이다. 그후 '기ᄃᆞ리-, 더ᄂᆞ-'의 非語頭音節 母音 ㆍ는 'ᄇᆞᄅᆞᆷ(風), 사ᄅᆞᆷ, 다ᄆᆞᆫ'과 같은 資格으로 ㆍ>ㅏ의 變化를 거쳐 '기다리-, 더나-'에 이르렀다. 그 過程에서 '더나-'의 語源은 '더'(加)와 '나-'(出)의 結合으로 分析되어, '나-'는 '더'에서 分離될 수 있었고, 그 派生名詞 '나기'는 다시 움라우트로 인하여 '내기'가 되었다.

거ᄃᆞᆲ>거듧, 기름>기ᄅᆞᆷ>기름, 여슷>여ᄉᆞᆺ>여슷, 기츰>기ᄎᆞᆷ>기츰'과 같은 不自然스러운 循環的 變化過程을 겪지 않았다는 根據가 된다. 그러므로 '며ᄂᆞ리, 거ᄃᆞᆲ' 등은 非語頭音節에서 일어난 ㆍ 非音韻化에 대한 '心理的 징검다리'식 表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第一音節의 ㆍ는 바로 〔-鼻音性〕 資質보다는 〔+鼻音性〕 資質, 〔-舌端性〕 資質보다는 〔+舌端性〕 資質로 이루어진 音聲環境下에서 더 오래 維持되었다. 따라서 第二音節 이하의 一가 ㆍ로 表記된 音聲條件을 통하여 第一音節의 ㆍ가 겪은 非音韻化 過程을 追跡할 수도 있다. 第二音節 이하에 流動的으로 나타난 一>ㆍ에 의한 表記도 실상은 第一音節 位置의 ㆍ 非音韻化와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近代國語 資料가 보여 주는 表記의 流動性에 대하여 좀더 注目해야 할 理由가 거기에 있다.

2.3. 同一文獻內의 部分別 表記差異

近代國語 資料가 안고 있는 難點의 하나는 言語資料 자체의 性格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文獻에 대한 執筆者나 飜譯者가 구체적으로 確認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資料에 대한 現實性이나 地域性에 대한 性格 究明이 막연할 때가 많다. 특히 대부분의 資料에 대한 方言的 背景을 推尋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때문에 中央에서 刊行된 文獻이라면 일단 中央方言 資料로 默認되어 왔다. 그러나 文獻 하나하나에는 그나름대로의 性格이 있다. 한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文獻에는 그 사람의 個人語가 反映되어 있겠지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文獻에는 多樣한 方言的 要素가 反映되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한 文獻內에서도 앞뒤의 資料的 性格이 다른 경우가 흔하다.

例컨데 ㄷ 口蓋音化 現象을 反映하고 있는 文獻으로서 그 時期가 「同文類解」(1748)를 앞서는 것으로는 「御製內訓」(1736)과 「女四書諺解」(1736)가 있다.[38] 그러나 이 두 資料는 部分 部分이 서로 異質的인 性格을 들어 내고

38) 18세기 초엽에 成立된 것으로 보이는 「倭語類解」에는 ㄷ 口蓋音化가 크게 反映되어 있다. 그러나 現存本 「倭語類解」는 1783년 이후, 1789년 이전의 어느 時期에 刊行된 것이다(宋敏 1968). 따라서 거기에 나타나는 ㄷ 口蓋音化가 18세기 초엽의 것인지, 18세기 말엽의 것인지 判斷하기 어렵다. 安田章(1980:

있다. 우선 「御製內訓」은 重刊本인데 그 本文에는 ㄷ 口蓋音化가 나타나지 않는다. 本文은 이 때에 改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口蓋音化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郭忠求 1980 : 31). 그런데 卷三 末尾에 붙어 있는 '御製內訓 小識'의 諺解文에는 ㄷ 口蓋音化가 나타난다. 「女四書諺解」는 또 다른 性格을 보인다. ㄷ 口蓋音化가 全四卷 本文에는 어쩌다 나타날 뿐인데, 序文 하나에만 그것이 集中되어 있는 것이다. 「女四書諺解」 卷一의 맨 앞부분에는 세가지 序文, 즉 '神宗御製女誡序, 御製女四書序, 女誡原序'가 차례로 諺解되어 있는데, ㄷ 口蓋音化는 그중에서도 두번째 序文에만 集中的으로 나타난다.[39] 그 實狀을 點檢해 보는 뜻에서 序文別로 그 全例를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宋敏 1982). 오른쪽이 口蓋音化 實例이며 왼쪽은 潛在的인 것이다.

(11) a. 神宗御製女誡序

ᄂᆞ리디 아녀도(3^a)　　　　가ᄉᆞᆷ의 부쳐 외오고(4^a)

어디니를 親히 ᄒᆞ며(3^a)

뎌 즈음 쁴(3^b)

ᄇᆞᆰ디 몯홀가 저으샤(3^b)

法ᄒᆞ샤믈 디내여실시(4^a)

---

223)은 「倭語類解」를 그 成立時期, 곧 18세기 初頭의 倭語資料라고 보고 있으나, 國語音韻史 側面에서는 그러한 見解가 成立되기 어렵다. 그 理由로서 「倭語類解」는 몇가지 점에서 18세기 말엽의 性格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倭語의 語頭에 나타나는 ha行音節이 '하'로 轉寫되어 있다는 점이다. ha行音節이 「捷解新語」(1676)에 '화', 「方言集釋」(1778)에 '화~하', 「改修捷解新語」(1781)에 '하'로 轉寫되어 있음을 勘案할 때, 「倭語類解」는 가장 後代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는 e段 音節中 te, ne에 한해서 각기 '데, 네'로 表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國語 舌端子音 部類의 口蓋音化 및 ㅔ의 單母音化로 '뎨, 녜'가 語頭에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 역시 18세기 말엽의 性格을 보이고 있다. 셋째는 18세기 초엽의 다른 어떤 國語文獻보다 ㄷ 口蓋音化를 대량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第一音節의 ㆍ가 대부분 잘 維持되어 있는 점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18세기 초엽에 ㄷ 口蓋音化는 분명히 存在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倭語類解」를 그 직접적 根據로 삼기는 어렵다. 現存本 「倭語類解」가 비록 18세기 초엽에 成立되었다 하더라도, 音韻史的으로 18세기 말엽의 性格을 함께 보이고 있으므로, 刊行時期인 18세기 말엽에 어떤 修正을 거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39) 「女四書諺解」 卷一, 二까지의 口蓋音化 頻度는 7% 정도인데, 序만은 100%를 보이고 있다고 調査된 바 있지만(李明奎 1974 : 96), 序에 대한 調査만은 약간 부정확한 셈이다.

어딘 德을(4a)
坤維를 뎡ᄒᆞ며(4a)
업디 아니ᄒᆞ리니라(4b)

b. 御製女四書序
말올씨어다(6b)
道ㅣ 큰지라(4a)
다ᄉᆞ지 몯홈이(4a)
齊치 몯ᄒᆞ매(4a)
重치 아니ᄒᆞ냐(4b)
漸漸 푸러져(5a)
下치 몯ᄒᆞ거든(5a)
엇지(6a, 6b)
잇지 아니ᄒᆞ리오(6a)
씌돗지 못ᄒᆞ야(6b)
刊치 못ᄒᆞᆫ 前과(6b)
넓지 아닌 前과(6b)
廣布ᄒᆞᄂᆞᆫ ᄠᅳ지리오(6b)
忽치 말올씨어다(6b)

c. 女誡原序
斂티 몯ᄒᆞ나(2b)
生티 아니ᄒᆞ더니(2b)
근심ᄒᆞ디 아니ᄒᆞ거니와(3a)
더으디 몯ᄒᆞ야(3b)
듣디 못ᄒᆞ니(3b)
돕게 ᄒᆞᆯ디니라(4a)
갈디어다(4a)

두번째 序文만이 ㄷ 口蓋音化에 敏感한 反應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同一한 文獻이 이처럼 部分에 따라 差異를 보이는 理由는 두번째 序文의 諺解者가 나머지 序文의 諺解者와 다를 가능성밖에 없다. 이 때의 口蓋音化가 당시 中央方言의 普遍的 現實인지, 個人語 特有의 方言的 要素인지 이 文獻만으로는 判斷이 어렵다. 그것이 中央方言의 普遍的 現實이었음을 確認할 수 있는 길은 적어도 「女四書諺解」보다 時期上으로 앞서는 文獻에서 口蓋音

化에 대한 實證을 確保하는 도리밖에 없다. 現在로서는 國語文獻에서 그러한 文獻的 뒷받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倭文字 轉寫資料인「全一道人」(1729)은「女四書諺解」의 두번째 序文에만 集中的으로 나타나는 ㄷ 口蓋音化가 당시의 普遍的 現實이었음을 뒷받침해 주게 된다.

3.「全一道人」의 資料的 現實性

3.1. 轉寫資料의 要件

지금까지의 國語音韻史에서도 國語文字로 轉寫 또는 轉字된 中國語, 蒙古語, 淸語, 倭語 등의 資料는 물론, 漢字 또는 倭文字로 轉寫된 國語資料에 힘입은 바가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國語文字에 의한 外國語 資料와 外國文字에 의한 國語資料는 그 性格이 약간 다를 때도 있다. 前者에는 外國語에 대한 音聲層位(phonetic level)의 情報가 직접적으로 反映되어 있지만, 後者에는 國語에 대한 音聲層位의 情報가 그나름대로 反映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國語音韻論이란 側面을 勘案할 때, 前者는 斷片的, 間接的 資料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後者는 綜合的, 直接的 資料가 될 수 있다는 점에 差異가 있다. 前者를 통해서는 國語文獻만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國語의 個別音聲에 대한 分析이 어느 정도 가능할 뿐, 形態素 構造나 音韻現象과 같은 音韻論的 分析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後者를 통해서는 國語의 音聲資質은 물론 形態素 構造나 音韻現象까지도 얼마간의 分析이 가능하다.

外國文字로 轉寫된 國語資料라 하더라도 그것이 國語音韻論 硏究에 援用되려면 그 文字가 不連續的 記號(discrete symbol), 즉 表音文字體系로 이루어진 것일 때가 가장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그 模寫(replica)는 國語의 文字表記를 1 대 1 식으로 轉字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現實的 口語를 통한 發話現實의 聽覺的 認知에 그 基盤을 둔 것이어야 한다.[40] 그러한 意味에서

40) 外國文字에 의해 轉寫된 國語資料 그 자체만으로 國語音韻論 硏究가 完成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音聲層位의 情報提供源으로서 補助的 役割에 그칠 뿐이다. 그 役割에 좀더 適合한 條件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될 것이다.

漢字로 轉寫된 國語資料에는 많은 制約이 따를 수밖에 없다. 表記體系로서의 漢字는 表音과는 거리가 멀어, 音聲表記에 未洽한 文字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漢字에 의한 轉寫資料가 國語音韻史 硏究에 寄與한 功勞는 매우 크다. 12세기 初頭에 편찬된 「雞林類事」(1103~1104 兩年間)나 15세기 초엽으로 추정되는 「朝鮮館譯語」가 國語音韻史 再構에 寄與한 바를 想起하는 것만으로도 轉寫資料의 價値를 認識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倭文字로 轉寫된 國語資料인 「全一道人」에 기대를 거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3.2. 「和漢三才圖會」와 「朝鮮物語」의 現實性

轉寫資料 分析에서 先決되어야 할 要件이 거기에 反映되어 있는 資料의 現實性과 地域性에 대한 推尋이다. 「全一道人」에 대해서는 後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和漢三才圖會」(1712)와 「朝鮮物語」(1750)에 대하여 一瞥하기로 한다. 이 두 資料에는 不正確性이 많아서, 한마디로 斷定하기는 어려우나, 그나름대로 國語의 發話現實을 暗示하는 경우도 있다. 그중 하나가 國語의 鼻音에 隨意的으로 나타나는 剩餘的 資質(redundant feature)로서의 先破裂性(prestopped)이다.

		「和 漢」		「朝 物」
(12)	a.	水 buru	不留(17^a)	huri(9^a)
		七 d^zirukohu	知留古布(18^b)	zirikobu(15^b)
	b.	墨 boku	保久(17^b)	moku(12^a)
		梅 ba'iha'i	波以波以(17^b)	maba'i(9^b)
	c.	四 to'i	止伊(18^b)	dowo'i(15^b)

첫째, 表音文字로 轉寫되어 있는 경우. 둘째, 口語를 직접 귀로 들어가며 採錄한 경우. 셋째, 轉寫用文字의 母胎語와 被寫語의 音韻體系나 音節構造가 類似한 경우. 넷째, 轉寫用文字의 母胎語에 대한 音聲資質이 通時的으로 밝혀져 있는 경우. 다섯째, 採錄者가 對象言語의 音聲 또는 形態音韻論 層位의 發話現實을 충실히 轉寫에 反映시킨 경우. 여섯째, 轉寫의 對象이 語彙 아닌 文章인 경우.

그러나 이와 같은 理想的 條件을 過去의 轉寫資料에서 期待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轉寫用 文字와 被寫語의 音韻體系나 音節構造間에 參差不齊가 無常하다. 漢字로 轉寫된 國語資料에서 그러한 사실을 實感할 수 있다.

現代國語의 鼻音 ㅁ, ㄴ는 語頭位置에서 條件에 따라 先破裂性을 隨意的으로 同伴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異音的 交替로 高母音 앞에 配分되는 ㅁ, ㄴ가 각기 〔^{b}m〕, 〔^{d}n〕로 實現되는 수가 있는데(李秉根 1980), 위의 實例들은 그러한 異音的 實現의 通時的 根據라고 할 수 있다. (12)a에는 高母音 앞에 配分되는 語頭音 ㅁ, ㄴ의 發話現實에 대한 倭人의 聽覺的 認知가 분명하게 反映되어 있다. 「和漢」 buru(水)의 語頭音 b는 國語 '믈'의 語頭音 ㅁ가 高母音 앞에서 〔^{b}m〕와 같이 實現되었음을 暗示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믈'이 唇音化한 '물'이었다 하더라도 高母音 앞이라는 環境에는 差異가 없다. 「朝物」의 huri도 實質的으로는 같은 性格을 지닌 것이다. 이 때의 hu는 본래 濁音(有聲音)으로 認知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hu는 bu로 表記되었어야할 곳이다. 國語 '믈'의 ㅁ가 倭人에게 처음부터 〔h〕로 認知되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닐곱'(七)의 '니'에 대한 模寫인 「和漢」의 d^{z}i, 「朝物」의 zi는 다같이 ㅣ 앞의 ㄴ가 〔^{d}n〕로 實現되었음은 暗示하고 있다.

「和漢」에는 非高母音 앞에 配分되는 國語의 ㅁ가 b로 轉寫된 경우도 있다. (12)b의 boku(墨), ba'iha'i(梅)는 각기 國語의 '먹, 미화'에 대한 模寫인데, 둘 다 非高母音 앞의 ㅁ가 b로 轉寫된 實例로서, 「朝物」의 moku, maba'i와는 對照的 差異를 보인다. 李秉根(1980 : 註 1)은 '미화'의 ㅁ가 b로 轉寫된 實例를 들어 '가나'資料에서는 그 條件이 一定치 않은 듯하다고 指摘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때의 轉寫에 나타나는 b는 國語의 ㅁ에 대한 音聲實現의 직접적 結果라기보다, 倭語 音聲 b 자체에 나타나는 鼻音性 資質의 干涉에 의한 것으로 解釋된다.[41] 倭語의 有聲子音 b, d, z, g는 通時的으로 鼻

41) 自國語와 音聲資質을 달리하는 外來語 音聲이 借用될 때에는 自國語의 音聲資質體系에 의한 調整이 따르기 마련인데, 現代國語가 現代日本語의 dokata(土方), dokaɴ(土管)을 각기 '노가다(노가대), 노깡'으로 受容한 것도 그러한 實例가 된다. 이 경우 現代日本語 do의 d는 國語에서 無聲化하므로 do는 '도'가 될 存在이다. 그것이 '노'로 受容되었다는 사실은 國語의 高母音 앞에 나타나는 ㄴ의 條件的 變異音 [^{d}n]가 非高母音 o앞의 d에 擴大適用되어, do→^{d}no→no와 같은 過程을 거은 結果로 解釋된다. 借用語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理由로 解釋될 수 있는 事例가 일찌기 「捷解新語」(1676)에도 나타난다. 여기에는 倭語 do'usitemo(아므리 ᄒᆞ여도), do'uyutemo(아므리 닐러도)여야할 do'u가 아예 倭文字 表記 no'u, 國語音譯 '노우'(八 6^{a}, 8^{b})로 나타나는 것이다. 倭語

音性을 同伴한 〔^{n}b, ^{n}d, ^{n}z, ^{n}g〕 또는 〔$^{\sim}$b, $^{\sim}$d, $^{\sim}$z, $^{\sim}$g〕였던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馬淵和夫 1971 : 126-128, 井上史雄 1971 : 35-38, 外山映次 1972 : 183-186, 241-242, 森田武 1977 : 260-262). 이 때의 鼻音性은 同器官音性 入過渡音(homorganic on-glide)으로 分析되는 것이 合理的이므로, 이들은 각기 〔^{m}b, ^{n}d, ^{n}z, ^{ŋ}g〕로 解釋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倭語에서는 m∼b, n∼d, ŋ∼g와 같은 同器官音 相互間의 通時的 變化나 共時的, 方言的 交替가 多様하게 觀察된다(金田一京助 1938 : 191-192, 205, 208). 그러므로 非高母音 앞에 나타나는 國語의 ㅁ가 倭文字 b로 轉寫될 수도 있었던 것은 당시 倭語音聲 b 자체의 鼻音性 資質에 그 一次的 原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42)]

(12)c처럼 非高母音 ㅓ 앞에 나타나는 國語의 ㄴ가 倭文字 轉寫에서 d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理由로 說明될 수 있다. 「和漢」 to'i(四)나 「朝物」 dowo'i의 語頭音 t나 d는 다같이 國語 '넷'의 語頭音 ㄴ에 대한 轉寫인데, 「和漢」의 第一音節 文字 to는 본래 濁音으로 認知되었던 音節일 것이다. 그렇다면 to는 do여야 할 곳이다. 國語 '넷'의 ㄴ가 有聲 대 無聲의 文法的 對立을 가지고 있는 倭人에게 처음부터 〔t〕로 認知되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43)] 요컨데 國語 '넷'의 '너'가 do로 轉寫될 수 있었던 것은 倭語 d 자

音節 do가 일찌기 康遇聖에게 '노'로 認知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現代 日本語 baka(바보)가 '마까' 아닌 '빠가'로 受容된 것은 b, d, g와 같은 語頭 有聲破裂音의 경우 國語에서는 喉頭化音으로 受容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2) 日本語 音韻史에 의하면 그러한 同器官音性 入過渡音이 室町時代(1392 이후)부터 z, b, d, g 順으로 점차 弱化되기 시작하여, 江戶時代(1603 이후) 초기에는 語中, 語尾의 g를 除外하고는 그것이 거의 消滅되었다고 한다(外山映次 1972 : 241-242). 그러나 위의 例들은 18세기 초엽까지도 倭語의 有聲破裂音 b, d에 鼻音性 入過渡音이 殘存하고 있었음을 暗示한다. 그렇게 되면 日本語 音韻史와 半世紀 정도의 時差가 생기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說明할 수 있는 길이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和漢」이나 「朝物」이 17세기 중엽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어떤 資料를 基盤으로 삼았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倭語의 [^{m}b, ^{n}d]가 方言的으로 18세기 초엽 이후까지도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다. 「全一道人」이 「和漢」이나 「朝物」과 같은 性格을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後者일 가능성이 높다.

43) 12세기 초엽으로 遡及되는 「二中曆」에는 '三'이 towi, '四'가 sawi로 나타난다. towi와 sawi의 順序가 뒤집혀 있다고 본다면, 이 때의 towi는 '四'가 된다. 이 towi의 to도 본래는 do였던 것이 그후의 傳承過程에서 濁音表記를 잃게 된 結果일 것이다.

체의 鼻音性 資質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國語의 條件的 變異音 〔^{b}m, ^{d}n〕가 각기 倭文字 轉寫에서 b, d로 나타나는 實例는 「全一道人」에서도 確認된다(安田章 1964 : 25-26). 여기에는 또한 '너(汝)'나 '넷(四)'의 ㄴ처럼 非高母音 ㅓ 앞의 ㄴ가 倭文字 轉寫에서 d로 나타나는 수도 있어 전체적으로는 「和漢」이나 「朝物」과 同一한 性格을 보인다. 이 또한 倭語 d의 音聲資質에 그 직접적 原因이 있었으리라고 解釋된다. 요컨데 高母音 앞에 配分되는 國語의 ㅁ, ㄴ가 倭文字로 轉寫될 때 각기 b, d가 될 수 있었던 것은 國語의 ㅁ, ㄴ에 條件的 變異音 〔^{b}m, ^{d}n〕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倭語의 b, d 自體가 鼻音性을 同伴한 〔^{m}b, ^{n}d〕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때문에 非高母音 앞에 나타나는 國語의 ㄴ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倭語音聲 d로 代置될 수 있었던 것이다.

「和漢」이나 「朝物」에는 이처럼 불완전하게나마 國語의 發話現實이 직접 表面에 反映되어 있다. 國語의 條件的 變異音 〔^{b}m, ^{d}n〕는 東北方言과 東南方言, 즉 聲調 方言圈을 除外한 대부분의 方言圈에서 實現되지 않나 여겨진다(李秉根 1980 : 43)고 하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b}m〕에 관한 한 「和漢」이나 「朝物」이 東南方言과는 적어도 관련이 없을 듯하다. 그렇다고 하여 이 두 資料의 地域的 背景이 中央方言이라고 斷定하기도 어렵다. 다음과 같은 實例가 이들 資料의 복잡한 性格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和 漢」		「朝 物」
(13) a.	兄	heki	閉岐(17^{b})		segi(11^{a})
	弟	'asi	阿之(18^{a})		'azi(11^{a})
	湯	to'ᴏɴburu	止乎無布留(18^{a})		tohoɴburi(12^{b})
b.	喰				mukure(13^{a})
	賣				sat^{s}iya(11^{a})
	買				haruka(11^{a})

우선 (13)a는 音韻, (13)b는 語彙的 側面에서 南部方言과 관련이 있는 듯한 實例들이다. 「朝物」의 segi는 南部方言의 ㅎ 口蓋音化를 反映하고 있는 듯하지만, 日本語 西部方言의 s는 摩擦性이 弱해서 [h] 또는 [ç]로 交替될

뿐 아니라[44], h 또한 環境에 따라 [ç] 또는 [ʃ]로 交替되는 경우가 있는데[45], segi의 se가 그러한 倭語 音聲資質의 干涉에 의한 것이었다면, 國語의 發話現實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곧 國語의 [hyəŋ]이 倭人에게 [çyeᵑgi]로 認知되었기 때문에 segi로 表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和漢」의 'asi(弟)와 「朝物」의 'azi는 中世國語의 半齒音 ㅿ에 對應하는 南部方言의 ㅅ와 관련이 있는 듯하나, ㅅ가 期待되는 「朝物」의 다른 語彙에는 mo'uka(里, 10[a]), mo'uga(町, 10[a]), ka'oru(秋, 10[b]), keworu(冬, 10[b])에서처럼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朝物」의 tohoɴburi(湯)의 tohoɴ은 語中에 h를 보이고 있어서 東南方言形 '더분'의 ㅂ를 反映하고 있는 듯하나 斷定하기는 어렵다.[46]

(13)b의 語彙로 보면 「朝物」의 mukure(喰)가 東南方言의 '묵-'을 反映하고 있는 듯하며, sat[s]iya(賣)와 haruka(買)는 각기 請誘形과 疑問形인 듯한데, 中央方言의 一般的 意味로는 그 語形이 서로 反對로 되어 있다. 穀物去來에 한하여 그러한 意味를 갖게 되는 경우가 주로 南部方言에서 發見되지만 '糴米 쌀 푸라드리다'(「譯語類解」 下 48[b])처럼 17세기 말엽의 中央方言에서도 '풀-'(賣)이 '사-'(買) 대신 쓰이고 있어, 「朝物」의 語形을 方言的 要素라고만 볼 수는 없다.

「和漢」이나 「朝物」은 이상과 같은 몇 項目에서 東南方言의 要素를 보이는 듯하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불완전하나마 中央方言의 現實과 대체로 통하는

44) 그러한 실례로서 近畿方言의 saɴ(樣, 씨)>haɴ, sorekara(그로부터)>ho'ikara (金田一京助 1938 : 220), sitʃi(七)>çitʃi, simasyō(합시다)>çimaçyō(金田一京助 1938 : 216) 등이 있다.

45) 그러한 實例로서 近畿方言의 hito(人)>çito>ʃito, hibatʃi(火鉢)>çibatʃi>ʃibatʃi(金田一京助 1938 : 215) 등이 있다.

46) 이때의 h는 通時的으로 兩唇摩擦音 ɸ에 遡及된다. 이 ɸ는 配分되는 環境이나 方言에 따라 差異가 있으나, 18세기 초엽까지는 대체로 喉頭摩擦音 h로 變해 있었다고 생각된다(外山映次 1972 : 245-246). 그런데 이들 轉寫資料가 兩唇摩擦音 ɸ를 維持하고 있는 狀況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語中位置의 ɸ는 이미 平安時代(794 이후)부터 圓唇性 轉移音으로 實現되었기 때문에, 18세기 초엽까지 語中에 ɸ가 維持되었을 리 없다(奧村三雄 1972 : 126-130, 外山映次 1972 : 194, 215, 244-247). 따라서 tohoɴ의 h가 國語의 語中 ㅂ를 나타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 資料가 清濁表記에 疎漏한 점이 많으므로 tohoɴ의 ho가 본래 bo였다면 解釋은 달라진다.

것으로 判斷된다.

3. 3. 「全一道人」의 現實性

「全一道人」(1729)에 나타나는 國語資料는 現實性과 地域性으로 볼 때 대체로 당시의 中央方言을 反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諺文으로 쓰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이 다름을 분명히 認識하고 있었던 雨森芳洲는 國語의 音韻體系나 音節構造를 堪當하기에는 많은 制約이 따르는 倭文字를 利用하여 國語의 發話現實을 그나름대로 충실하게 옮겨 놓으려고 노력하였다. 「全一道人」에 國語의 發話現實이 反映되어 있다는 첫번째 根據는 「和漢」과 「朝物」의 檢討에서 이미 言及된 바와 같이 高母音 앞의 ㅁ, ㄴ에 보이는 條件的 變異音 〔^{b}m, ^{d}n〕가 倭文字 轉寫에 각기 b, d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14) a.	(미리)	biri(78)	
b.	뉘읏처	doyoQtsa(19)	
	늙-	dorukuɴ(26)	^{d}nurukuɴ(40, 74, 90, 95, 106)
			^{d}nurukuko(100)
			^{d}nurukumuru(93, 94)
			^{d}nurukuto'i(79)
	(늦-)		^{d}nut^{s}uko(61)
	(누르-, 黃)		^{d}nuruɴ(95)
	누리-(享)		^{d}nurimuɴ(24)
	눕-(臥)	dowa(54)	^{d}nuwa(77)
		dowasito'i(59)	^{d}nuwaQtoni(68)
c.	너(를)	doruru(46)	
	너(과)	dokuwa(52)	
	네(主格)	do'i(34, 46, 62)	
		do'i(40, 46, 52, 73, 90, 100, 104)	
	네(屬格)	do'i(70)	
		do'i(89, 90, 95)	
	(넷을)	do'isoru(82)	

이상이 그 實例의 전부인데 ( )속에 國語를 補充한 것은 「全一道人」 本文에 國語添記가 한번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우선 14(a)의 biri는

國語添記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미리'(豫)에 해당하는 形態素이므로 高母音 앞의 ㅁ란 條件에 어긋나지 않는다. 단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때의 ㅁ가 b로 轉寫된 것은 國語의 條件的 變異音 [ᵇm]를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高母音 環境일지라도 '믿-'(信), '밋것'(本錢), '밋'(及), '및-'(及)은 물론 '므슨', '므엇', '믄득', '믈'(水), '믈-'(咬), '묻-'(問)의 ㅁ는 언제나 m로 轉寫되었다.

(14)b는 高母音 앞에 配分되는 國語의 ㄴ가 d 또는 ᵈn로 나타남을 보인 것이다. 雨森芳洲는 '누, 느'와 같은 音節의 ㄴ에 나타나는 條件的 變異音 [ᵈn]를 轉寫하기 위하여 do 이외에도 倭文字로 nu를 나타내는 音節에 濁音記號를 덧붙힌 特殊表記를 利用하고 있다. 倭文字 nu는 본래 濁音을 가질 수 없는 音節인데, 國語의 '누, 느' 轉寫에만 이 濁音表記(오른 쪽 어깨에 두 점을 적은 것)를 가진 nu가 利用된 것이다. 앞에서 「全一道人」에 쓰인 補助記號인 圈點, 弧線, 三點記號에 대하여 檢討한 바 있지만, 雨森芳洲가 國語를 倭文字로 轉寫하기 위하여 考案한 또 하나의 音節이 이 濁音記號를 同伴한 nu였다. 本硏究에서는 이를 ᵈnu로 轉字한다.

이 ᵈnu가 do와 同價인 音節記號였다는 사실은 '늙은'의 '느'가 do와 ᵈnu, '누워'의 '누'가 역시 do와 ᵈnu처럼 두 가지 轉寫方式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쉽게 確認된다. 雨森芳洲가 國語의 '누, 느'를 do로 轉寫했다가 거기에 ᵈnu를 다시 追加한 理由는 간단하다. '누, 느'를 do로 轉寫하고 보면 條件的 變異音 [ᵈn]에 대한 表記에는 不滿이 없지만, 그에 後行하는 母音 ㅜ나 ㅡ에 대한 表記가 疎漏해지고 만다. 여기에 du와 같은 音節을 利用할 수 있었다면 안성맞춤이겠지만, 당시의 倭語에는 이미 高母音 앞에 舌端破裂音이 配分될 수 없는 制約이 생겨서 tu, du, ti, di와 같은 4개의 音節이 構造的 빈칸(structural gap)을 이루고 있었다. 결국 '누, 느'의 母音까지를 좀더 확실하게 옮기기 위하여 ᵈnu와 같은 특수 音節이 考案된 것으로 理解된다.

「全一道人」에서는 '누' 또는 '느'처럼 高母音을 音節主音으로 하는 語彙形態素中 '눈'(目)을 除外한 나머지 모두가 do 또는 ᵈnu로 轉寫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高母音으로 이루어졌으면서도 '니'를 頭音節로 하는 語彙形態

素만은 例外없이 ni로 轉寫되어 있어서 '미리'의 '미'가 bi로 轉寫된 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니'(齒), '니르-'(至), '니르-'(謂), '니블', '닉-'(熟), '닐-'(起), '닐웨', '닑-'(讀), '닙-'(被), '닛-'(繼), '닞-'(忘)과 같은 形態素의 '니'가 한결같이 ni로만 轉寫되어 있는 것이다. (12)a에서처럼 「和漢」과 「朝物」에는 '닐곱'의 '니'가 각기 d^zi, zi로 轉寫되어 있다. 그런데 雨森芳洲가 오히려 國語의 '니'에 나타나는 [^dn]를 聽覺的으로 정확히 認知할 수 없었던 理由는 倭語音節 ni의 n가 變異音으로 實現되는 일이 거의 없는 〔n〕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漢字形態素 '능(能)히'의 '느'는 例外없이 ^{d}nu로 轉寫되어 있다. 결국 「全一道人」에는 高母音 앞에 配分되는 國語의 ㅁ, ㄴ, 그중에서도 특히 ㅡ, ㅜ 앞의 ㄴ에 나타나는 條件的 變異音 [^dn]에 대한 發話現實이 상당히 敏感하게 反映되어 있다. 이러한 事實은 「全一道人」이 文字 대 文字와 같은 轉字方式으로 이루어진 資料가 아니라, 現實的 發話에 의한 轉寫方式으로 이루어진 資料임을 알려 준다.

「全一道人」에는 非高母音 ㅓ 앞의 ㄴ가 d로 轉寫된 實例도 나타난다. (14)c의 '너'에 대한 do, '넷'에 대한 do'is이 그것이다. '너'는 모두 16회, '넷'은 1회에 걸쳐 쓰인 바 있는데, 그 모두가 例外없이 do로 轉寫되어 있다. 특히 '넷'의 '너'가 do로 轉寫된 것은 「和漢」이나 「朝物」과도 共通된다. 國語의 非高母音 ㅓ 앞에 配分되는 ㄴ가 倭人에게 d로 認知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倭語音聲 d 자체가 지닌 鼻音性 資質에 起因한 것이다.[47] 다만 '넘-'(越)의 '너'만은 no로 轉寫되어 있다.

3.4. 「全一道人」의 轉寫와 發話現實

「全一道人」이 보여 주는 個別音聲의 轉寫에 대해서는 安田章(1964：20-47)

47) '너'의 ㄴ가 한번도 n로 轉寫된 일이 없다는 사실은 注目을 끈다. '너'의 ㄴ에만은 先破裂性이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全一道人」에 나타나는 資料만으로 判斷할때, '넘어지-'의 '너'는 no로, '눈'(目)의 '누'는 例外없이 nu로 轉寫되어 있다. 이로 볼 때 '넘, 눈'처럼 音節主音 뒤에 다시 鼻音이 配分되면 語頭의 ㄴ에 條件的 變異音 [^dn]가 나타나지 않고, 그밖의 경우에만 [^dn]가 나타난 듯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合理的인 理由를 찾기는 어렵다.

에서 비교적 詳細한 檢討가 행해진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밖의 側面에 대하여 一瞥하기로 한다. 雨森芳洲는 「全一道人」의 凡例 第二條에서 '諺文으로 쓰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한 바 있는데, 그것은 곧 表記와 發話現實間의 差異를 指摘한 것이었다. 그는 그러한 差異를 구체적인 實例로 提示하고 있다. 形態素 結合과 관계되는 30餘個의 實例가 그것인데, 그 性格은 퍽 잡다할 뿐 아니라, 類型別로 整理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대략 分類해 보면 다음과 같은 音韻現象과 관계되는 것들이다.

(15) ㄴ 舌側音化

a. 한림(翰林) harurimu
만리(萬里) maruri
신령(神靈) siruriyogu[48]
슌류(順流) siyururiyu
난리(亂離) naruri
린리(隣里) niruri
운미관(運米官) 'urumiguwaN

b. ᄉᆞᆯ라게 메왓고<肉袒>(「小學諺解」<陶山書院本, 1587>六 80[a])
ᄉᆞᆯ나게 메왓고(「小學諺解」 六 77[b])
내 ᄃᆡ륙ᄒᆞᆫ 쳘량으로(「二倫行實圖」<重刊本, 1727> 21[b])
글월와 쳘냥 녀ᄒᆞᆫ 방 ᄌᆞᆷᄆᆞᆯ쇠(二倫行實圖」 18[a])

(15)a는 形態素나 單語境界를 사이에 두고 ㄴ가 ㄹ의 앞이나 뒤에 配分될 때 舌側音化하는 同化現象을 指摘한 實例이다. 雨森芳洲는 '한림→할림, 만리→말리'와 같은 漢字語만을 例示하였으나, 이 現象은 ㄴ가 ㄹ 앞뒤에 配分될 수 없는 國語의 連結剩餘性(sequence redundancy)에 그 原因을 둔 것으로, 그 時期는 상당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同化現象은 (15)b에 보이는 「小學諺解」의 'ᄉᆞᆯ라게'처럼 16세기의 國語文法에도 분명히 存在하고 있었다. 이 때의 'ᄉᆞᆯ라게'는 'ᄉᆞᆯㅎ#나게'와 같은

48) 앞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한 音節임을 나타내거나 音節間에 休止를 두지 말라는 뜻으로 쓰인 弧線을 여기서부터는 편의상 下線(____)으로 대신한다.

合成語의 表面形으로서 같은 文獻에 '술나계'로도 나타난다. (15)b에 보이는 '쳘량'이란 「二倫行實圖」의 表記는 ㄴ 舌側音化가 18세기 초엽에도 存在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이는 '쳔량'의 表面形인데, 같은 文獻에 '쳘냥'으로 表記된 것은 '心理的 징검다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쳘냥'은 近代國語에 자주 나타나는 '실노, 훌노, 훌너, 열니고'와 같은 表記와 함께 發話現實을 제대로 反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ㄴ 舌側音化는 漢字形態素 둘 이상의 結合으로 이루어지는 漢字語에도 그대로 適用되는 規則이지만, 個別 漢字의 獨自的 固定性으로 인하여 同化現象의 表面形이 表記에 露出되는 일은 드물다. 雨森芳洲는 이 점에 注意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한편 (15)a의 마지막 實例인 '운미관→울미관'은 약간 특이한 것이지만, ㅁ 앞에서도 ㄴ 舌側音化가 일어날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現代國語文法에서는 ㄴ가 '움미관'처럼 ㅁ 앞에서 ㅁ로 同化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ㄴ 舌側音化가 먼저 適用되어 '울미관'이 될 수도 있는데, '눈믈을'이 「杜詩諺解」<重刊本>에 '눐므를'(六 2[b])로 나타나고 있어 ㄴ 舌側音化가 競爭規則(competing rule)으로서 일찍부터 存在했음을 알려준다.[49)]

(16) ㄹ 脫落

a. 몰쇼(馬牛)	mosiyo
활살(弓箭)	hasaru
블도(不道)	puto
블지(不知)	put[s]i
알피(前)	'aqpi

49) ㅁ 앞에서 ㄴ→ㄹ와 같은 舌側音化가 ㄴ→ㅁ와 같은 同化規則보다 앞서 適用될 수 있었던 理由는 '골머귀, 말믜(由), 불무(冶), 할미' 또는 '갊-(藏), 곪-(膿), 굶-, 돎-(染), 덞-(染), 옮-, 솖-'에서와 같이 形態素 內部에 ㄻ 子音群은 자주 나타났으나, ㄵ 子音群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17세기에 일어난 '언머>얼마'와 같은 變化도 ㄵ 子音群이 再構造化(restructuring)를 통하여 ㄻ 子音群으로 合流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ㅁ 앞에 나타나는 ㄴ 舌側音化는 音韻現象이라기보다 形態素 內部에 나타나는 自然스러운 일반적 子音群 ㄻ에 의한 類推的 變化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지도 모른다.

b. ᄆᆞ쇼(「飜譯朴通事」上 42[b], 「捷解新語」四 25[a])
화살(「小學諺解」三 19[a], 「老乞大諺解」上 26[a], 「譯語類解」上 22[a])
나ᄃᆞᆯ<日月>(「小學諺解」五 62[a])
아ᄃᆞ님(「小學諺解」四 12[b])
아ᄑᆞ로 옷기슬 ᄃᆞᆼ긔고(「小學諺解」五 70[b])

雨森芳洲가 指摘하고 있는 (16)a는 形態素나 單語境界를 사이에 두고 舌端子音 앞에 配分되는 ㄹ가 脫落을 일으킨 경우이다. 이 規則은 '알+ᄂᆞ+니→아ᄂᆞ니, 알+디→아디'와 같이 共時的으로도 適用되는 것이었으나, 그가 例示한 것들은 通時的 變化에 속하는 것들이다. (16)b는 그러한 類型의 變化가 中世國語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임을 보이고 있다. (16)a의 마지막 事例인 '앒>앞'은 形態素 內部의 兩唇子音 앞에서 ㄹ가 脫落을 겪은 것이다. (16)b는 그러한 變化가 이미 16세기 말엽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變化는 17세기 초엽의 「諺解胎産集要」(1608)와 「東國新續三綱行實」(1617)등에서도 確認되었을 뿐 아니라(田光鉉 1967 : 74), 「捷解新語」(1676)에도 '압희'(五 23[b]), 「朴通事諺解」(1677)에도 '압'(上 5[a])이 나타나므로, 雨森芳洲는 18세기 초엽 당시의 表記와 發話現實의 差異를 올바르게 認識하고 있었다고 믿어진다.

(17) ㆁ 脫落

a. 송양(松陽) siyoyagu
종용히(從容) t[s]iyoyogi
흉악(兇惡) hiyunaku
셕양(夕陽) seyagɯ

b. 님굼미 ᄇᆡ봉 나 겨시다가 그 집븨 ᄒᆡ힝ᄒᆞ샤(「二倫行實圖」<玉山書院本, 1518> 27[a])
님굼이 ᄇᆡ봉 나 겨시다가 그 지븨 ᄒᆡ힝ᄒᆞ샤(「二倫行實圖」<重刊本, 1727> 27[a])
죵용티 못ᄒᆞ외(「捷解新語」二 17[a])
죠용히 말ᄉᆞᆷᄒᆞ니(捷解新語」二 4[a])

雨森芳洲는 (17)a의 '송양, 죵용'의 發話現實이 각기 '쇼양, 죠용'이었음

을 證言하고 있는 셈이다. (17)b는 그러한 現象이 '힝힝→히힝, 죵용→죠용' 과 같이 實在했음을 뒷받침해 준다.[50] 漢字形態素의 結合時에 주로 나타나는 이 現象은 中央方言을 基準으로 할 때, '쇼양'은 共時的 交替, '죠용'은 通時的 變化에 속하는 實例이다. 이 現象에 대해서는 口蓋性 上昇二重母音 앞에 配分되는 軟口蓋 鼻音 ㅇ의 口蓋音化로 解釋되기도 하였으나(許雄 1965 : 490-491), 通時的으로는 母音이나 圓脣性 上昇二重母音, 또는 ㅎ나 ㄱ에 先行하는 ㅇ뿐 아니라, ㄱ가 脫落되는 수도 있어서, 이들 모두가 口蓋音化만으로는 解釋되지 않는다. 실제로 '명함→며함, 향암→햐암'과 같은 共時的 交替, '셕웅황(石雄黃)>셕우황, 헝울>허울, 목욕>모욕, 뉵월>뉴월'과 같은 通時的 變化가 中世國語나 前期近代國語 文獻에 이미 나타나는데(劉昌惇 1964 : 51-52), 이들을 모두 口蓋音化만으로 解釋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現象은 漢字形態素의 結合[51]으로 생겨나는 不自然스러운 音節을 막기 위한 形態規則(morphological rule)으로 理解된다. 이 現象과 관계되는 例들은 일단 形態素境界사이에 Vŋ+(y, w)V와 같은 構造를 보이고 있다. Vŋ+CV와 같은 構造와는 달리, 이 때의 形態素 境界는 自然스러운 發話行爲의 音節境界인 V-ŋ(y, w)V와 一致되지 않는다. 즉 '죵용, 향암'을 形態素 境界로 보면 각기 čyoŋ+yoŋ, hyaŋ+am이 되지만, 音節 境界로 보면 čyo-ŋyoŋ,

50) 다만 「二倫行實圖」 初刊本(1518)의 刊行地나 「捷解新語」(1676)의 著者인 康遇聖의 出生地는 모두 慶尙道와 관련이 있어서, 이들 文獻에 나타나는 ㅇ 脫落이 東南方言 要素일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中央方言과의 관계를 완전히 否定하기도 어렵다.

한편 여기에 引用된 「捷解新語」의 '죵용'과 '죠용'은 둘 다 倭語 sid^{z}ukani(靜)에 대한 飜譯語로서 交替를 보이는 것인데, 이밖에는 다른 實例가 없다. 「捷解新語」에는 11회의 國語表記로 된 '죵용히'(一 20^{b}, 二 18^{a}, 三 7^{b}, 21^{a}, 26^{a}, 26^{b}, 五 21^{a}, 八 10^{a}, 23^{a}, 27^{a}, 九 7^{a})와 1회의 漢字表記로 된 '從容히'(七 16^{b})가 다시 나타나지만, 이들은 모두 倭語 yururito(緩)에 대한 飜譯語일 뿐 아니라, 이때의 '죵용히'는 '죠용히'로 나타나는 일도 없다.

51) '헝울'만은 語源이 確實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헝울>허울'(劉昌惇 1964 : 51)도 直接的 變化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다. 意味上으로 '헝울'과 '허울'은 약간 다르기 때문이다.

蛻 헝울에, 蛥 헝울공(「訓蒙字會」<叡山本, 1527> 下 5^{a})
즐겨 잔 먹움기로뻐 노픈 허울을 삼고(「小學諺解」 五 18^{a})

hya-ŋam이 되고 만다. ŋyoŋ이건 ŋam이건간에 ㅇ을 頭子音으로 하는 音節은 약간 不自然스럽다. ㅇ은 國語의 自立形態素나 漢字形態素에서 頭子音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形態素境界와 音節境界의 不一致, 그로 인하여 惹起되는 音節構造의 不自然性은 čyoŋ+yoŋ→čyō+yoŋ, hyaŋ+am→hyā+am과 같은 母音의 鼻音化(nasalization)로 克服될 수 있다. 따라서 理論上으로는 ㅇ이 脫落되면서 그 補償(compensation)으로 先行母音을 鼻音化시켰으리라고 解釋된다. 이 鼻音化는 國語文字로 表記될 길이 없기 때문에 ㅇ의 脫落처럼 나타나다가, 鼻音性이 점차 弱化된 語彙는 通時的 變化로 굳어지고, 그렇지 않은 語彙는 共時的 交替에 머물렀으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명함, 셕웅황, 셩강'처럼 形態素 境界 사이에서 ㅇ이 ㅎ나 ㄱ 앞에 配分될 때에는 有聲音 環境에 있는 ㅎ나 ㄱ가 먼저 脫落을 입어 '명암, 셕웅왕, 셩앙'이 된 다음, 이들이 다시 위와 같은 鼻音化의 節次를 거쳤을 것이다. '목욕, 뉵월'과 같은 形態素 境界 앞의 ㄱ는 形態素 境界를 뛰어 넘으면서까지 '푹, 궐'과 같은 不自然스러운 音節構造를 갖게 되는 대신, k>g>ɣ>ɦ와 같은 漸進的 弱化(gradual weakening)를 거쳐 脫落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雨森芳洲가 例示하고 있는 (17)a의 '셕양→셔양'도 隨意的으로 이러한 節次를 거친 實例의 하나로 說明될 수 있다. 다만 '흉악→휴낙'만은 특이한 交替를 보이는데, 이 때에는 hu-ŋak의 ŋak과 같은 不自然스러운 音節이 nak과 같은 自然스러운 音節로 再構造化된 것이다. 여기에는 母音衝突防止라는 要因도 潛在하고 있겠지만, 本文에는 hiyugu'aku(73)으로도 나타나고 있어 hunak이 必須的인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18) ㅎ 脫落과 融合

a.	안해(妻)	'ana'i
	심히(甚)	simi
	감히(敢)	kami
	친히(親)	tˢini
	엄연히(儼然)	womeni
	완연히(宛然)	waneni

죵용히(從容)	tsiyoyogi
나만히(壽)	namani
긋허졋숩닉(絕)	kunotseqsumuno'i
b. 급히(急)	kutsuhi
극히(極)	kukuki

絕긋코置놋코抱안코. '고'라고 써서는 나쁘니라

우선 (18)a는 有聲音 사이에서 ㅎ가 脫落되는 現象을, (18)b는 ㅎ가 앞뒤의 無聲破裂音과 融合(coalescence)을 일으켜 有氣音化하는 現象을 각기 指摘한 것이다. 다만 '급히, 극히'의 形態素 境界에 나타나는 有氣音化를 倭文字 轉寫로는 제대로 옮길 수 없었으나, 實例의 마지막에 國語表記로 '絕긋코, 置 놋코' 등을 덧붙히고 나서, 이를 '고'라고 써서는 나쁘다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들 音韻現象에 대한 雨森芳洲의 認識은 분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原文의 '국히, 안코'는 각기 '극히, 안쏘'에 대한 錯誤이다. 國語의 ㅡ와 ㅜ, 有氣化音과 喉頭化音의 對立을 倭人이 區別하여 쓰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雨森芳洲의 國語表記에는 그러한 錯誤가 상당히 包含되어 있다.

(19) 無聲子音의 鼻音化

a. 공착미(公作米)	koguzagumi
긋허졋숩닉(絕)	kunotseqsumuno'i
ᄒᆞᆸ닉	hawomuno'i
죽엇는지라(死)	tsukonnontsira
죽엿는지라(殺)	tsukiyonnontsira
ᄒᆞ엿노라	hayannora

b. 인품의 놉낫가이를(「小學諺解」 五 8a)
하늘히 福으로 갑ᄂᆞ니(同 五 5b)
본 받논 故로(同 四 53b)
묻논 바는(同 五 104a)
술 빋논 거시니(同 五 18a)
禮와 義ㅣ 굳ᄂᆞ니(同 三 9a)
존논 道ㅣ 인ᄂᆞ니(同 一 53a)

샤치ᄒᆞ고 빈난 이롤 금지ᄒᆞ야(同 五 81ᵇ)
ᄡᅵ 인ᄂᆞᆫ 이란(同 一 40ᵇ)
무롭 단ᄂᆞᆫ 고디(同 六 122ᵃ)

우선 (19)b는 '높-, 갚-'의 末音 ㅍ가 ㄴ 앞에서 ㅁ로, '받-, 묻-, 빗-, 곶-, 좇-, 빚-, 잇-, 닿-'의 末音 ㄷ, ㅈ, ㅊ, ㅅ, ㅎ가 ㄴ 앞에서 다같이 ㄴ로 同化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로써 16세기 말엽 이전에 이미 모든 無聲子音이 後行하는 子音 앞에서 部類別로 中和(neutralization)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鼻音化는 唇音, 舌端音 및 喉頭摩擦音, 軟口蓋音으로 區分되는 無聲子音들이 部類別로 각기 ㅂ, ㄷ, ㄱ로 中和되고 난 후에 일어나는 同化現象이기 때문이다. 특히 舌端音 ㄷ, ㅈ, ㅊ, ㅅ와 喉頭摩擦音 ㅎ가 다같이 後行하는 ㄴ에 同化되어 鼻音化할 수 있었던 理由는 이들이 먼저 ㄷ로 中和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雨森芳洲는 이러한 同化現象에서 오는 表記와 發話現實間의 差異를 막연하게나마 認識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19)a에 引用된 實例로 그 事實을 確認할 수 있다. '공작미'의 '작'이 '착'으로 잘못 表記되기는 했으나, 그에 대한 轉寫인 koguzagumi는 '공장미'와 같은 發話現實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이미 言及된 바와 같이 당시의 倭語音聲 g는 鼻音性 入過渡音(on-glide)을 同伴한 [ᵕg] 또는 [ᵑg]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雨森芳洲는 國語의 音節末音 ㅇ을 g로, ㄴ를 ɴ로 轉寫하고 있다. 'ᄉᆞᆫ허졋ᄉᆞᆸ니, ᄒᆞᄋᆞᆸ니'의 ㅂ도 轉寫에는 m로 나타난다. 그 나머지는 ㅅ가 ㄴ 앞에서 ㄴ로 同化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때의 ㅅ는 먼저 ㄷ로 中和되고 나서, 그것이 다시 ㄴ로 同化되는 節次를 거쳤을 것이다.

(20) 기타

a. 년됴(年條) nemudᶻiyo
b. ᄒᆞᆫ가지(一同) hanigatˢi
ᄒᆞᆯᄂᆞᆫ(一日) harurɔɴ
ᄒᆞ엿노라 hayaɴnora

여기에 提示된 實例는 「全一道人」이 보여 주는 發話現實中에서도 가장 意味가 큰 것이다. (20)a는 口蓋性 上昇二重母音 앞에 配分되는 ㄷ의 發話現實, (20)b는 語彙形態素의 第一音節에 나타나는 、의 發話現實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다시 말하면 '년됴'의 '됴'에 대한 轉寫表記 d^{z}iyo는 ㄷ 口蓋音化, 'ᄒᆞᆫ가지, ᄒᆞᆯᄂᆞᆫ, ᄒᆞ엿노라'의 第一音節에 대한 轉寫表記 ha는 、 非音韻化를 暗示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詳細한 檢討가 다시 행해질 것이다.

이상이 「全一道人」의 凡例 第二條에 例示된 發話現實의 거의 전부이다. 이들이 類別되어 提示된 것은 아니지만, 이로써 「全一道人」의 轉寫表記에는 당시 國語의 發話現實이 크게 反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雨森芳洲가 이처럼 發話現實을 重視했다는 사실은 그의 轉寫表記에 反映된 國語의 現實性을 일단 認定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3.5. 「全一道人」의 地域性

「全一道人」에 나타나는 國語資料가 당시의 現實性을 反映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음에 問題가 되는 점은 그 地域性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雨森芳洲는 1703년에 朝鮮 땅에 건너와 國語를 배웠다고 한다. 그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國語를 배웠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가 驅使하던 國語의 地域性은 우선 그의 身分이나 職責으로 볼 때 당시의 中央方言이었으리라고 推測된다. 그는 公人으로서 國語를 배웠으며, 國語로 表記된 書籍을 읽을 수도 있었고, 國語와 관계되는 여러 著述에도 직접 간접으로 關與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가 접한 國語는 당시의 知識人들이 말하고 썼던 中央方言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그는 「全一道人」의 凡例에서 倭語의 시골말과 서울말에 差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指摘하면서, 시골 사람이 시골 사람에게 서울말을 배우기가 어렵듯이, 倭人이 諺文을 倭人에게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한 部分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다해서 170字의 諺文[52]을 우리나라 사람에게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라. 시골 사람이 서울말을, 같은 시골 사람으로서 서울말을 잘 배웠다고 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과 같으니라. 아무리 잘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서울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니라(第二條).

예를 들면 橋와 筯, 雲과 蛛, 花와 鼻, 笠과 瘡[53] 등을 서울 사람은 각기 구별하여 말할 수 있지만, 邊土人은 배워도 이루지 못함은 山川風氣가 다르기 때문이니라.[54] 하물며 異邦의 말이리오(第三條).

서울 사람이 kirumono를 kirimono라 쓰고, da'ikoɴ을 da'iko라 쓰고, 시골 사람이 kayiru(蛙)를 kayeru라고 쓰는 따위는, 말을 잘못하여 '가나' 表記도 잘못한 것이니라. te'uzi(丁子)라 써야할 것을 tˢiya'uzi라 쓰고, saɴse'u(山椒)라 써야할 것을 saɴsiya'u라고 쓰는 따위는, 말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假名 表記가 그 法을 잃은 것이니라. 朝鮮의 諺文에도 이러한

52) 倭人들이 國語文字를 배우기 위한 音節表의 字數를 말하겠지만, 그것이 어째서 170字인지는 「客館璀粲集」(1720)에서 그 根據를 찾을 수 있다. 1719년 通信使行時 姜栢(耕牧子)이 木下實聞(蘭皐)에게 써서 주었다는 諺文은 子音 ㄱ ㄴ ㄷ ㄹ ㅁ ㅅ ㅇ 7字와 '가갸' 줄에서 '하햐' 줄까지의 音節 154字, 그리고 圓唇性 上昇二重母音 音節 '과 궈 와 워 솨 숴 화 훠' 8字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合하면 169字가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子音中에는 ㅂ가 包含되어 있지 않다. ㅂ가 써줄 때부터 빠져 있었는지, 出版過程에서 漏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나, 여기에 ㅂ를 補充한다면 모두 170字가 된다. 그러므로 倭人들이 國語文字學習時에 基本으로 삼은 것은 '가갸' 音節表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받침用 子音 8字, 圓唇性 上昇二重母音 音節 8字를 더한 170字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客館集」의 '가갸' 音節表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파 타 카 하' 順으로 되어 있다.

53) 이들은 각기 hasi(橋, 筯), kumo(雲, 蛛), hana(花, 鼻) kasa(笠, 瘡)에 해당하는 語彙들이지만, 倭語에서는 그 意味에 따라 액센트가 각기 다를 뿐 아니라 方言에 따라서도 액센트가 다르다.

54) 雨森芳洲는 한 言語의 方言音聲差나 國家間의 言語音聲差가 山川風氣의 差異 때문에 생겨났다고 보고 있다. 申維翰은 「海游錄」의 附錄인 '聞見雜錄'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일찌기 우삼동으로 더불어 音譯의 같고 다름을 말하여 보았는데, 우삼동이 말하기를 "중국의 발음은 탁음이 많고, 조선의 발음은 청한 것이 많고, 일본의 발음은 純淸이요, 탁음이 없읍니다. 그것은 음성이라는 것은 각각 風氣에서 나오는 것인데, 조선은 중국과 거리가 가깝고, 일본은 또 조선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므로, 내가 일찌기 말하되 조선은 중국의 음을 그대로 배워서 잘못된 것이요, 일본은 또 귀국의 음을 배워서 잘못된 것이라 하였읍니다"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하였다(「국역해행총재」 Ⅱ : 64-65).

일이 많으니라. 固執하지 말 일이니라. 또한 어떻게 쓰더라도 매한가지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니라. 자세히 韓人에게 배우고 널리 물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니라(第四條).

雨森芳洲는 이렇게 시골말과 서울말의 差異, 表記와 發話現實의 差異에 細心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던 人物이다. 따라서 그가 國語의 發話現實을 重視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中央方言의 表記에 대한 發話現實일 수밖에 없다. 그는 國語表記 또한 重視하고 있었다. 「全一道人」의 凡例 第三條에는 國語表記에 漢字풀이만을 곁들인 8개의 文章이 提示되어 있는데, 그의 表現을 따르자면 그것은 '疑似한 말을 모아 적은' 것이었다.

(21) a. 가치나모가지우희이셔가지을그버여어보니가지고가려ᄒᆞᄂᆞᆫ가<鵲在樹枝上俯窺茄子欲持而去之耶>
b. 게를궤여담엇거ᄂᆞᆯ괴이셔먹음어가니괴이ᄒᆞ다<盛蟹於櫃有猫啣而去之可謂恠異>
c. 멀리ᄃᆞᆫ니ᄂᆞᆫ사ᄅᆞᆷ이ᄆᆞᆯ을ᄆᆞᆯ됴ᄒᆞᆫᄆᆞᆯ쎄싯고믄득메멘사ᄅᆞᆷ을ᄆᆡ우희셔만나서로도토와ᄆᆡ이쳐더니ᄒᆞᆫ밥먹을ᄉᆞ이ᄂᆞᆫᄒᆞ여이예프러가니라<遠行之人馱藻於拳好之馬忽逢荷槌之人於山上相爭而痛捶之一頓飯時乃解去>
d. ᄑᆡᄎᆞᆫ군관이ᄇᆡ를ᄐᆞ고가다가ᄇᆡ를먹고ᄇᆡ일파ᄒᆞᄂᆞᆫ병을어드니라<佩牌軍漢乘船食梨而得腹痛之病>
e. ᄃᆞᆯ구경ᄒᆞᄂᆞᆫᄯᆞᆯ이ᄃᆞ리우희바자니다리가ᄌᆞᆺ브지아니랴<翫月之女橋上彷徨無脚倦乎>
f. ᄯᆞᆷ으로ᄀᆞ리워ᄠᆞᆷ업게ᄒᆞ니다만ᄯᆞᆷ날ᄲᅮᆫ아녀두려권대담이셩ᄒᆞᆯ가ᄒᆞ노라<以苫周遮使無罅隙不獨汗出恐有痰盛>
g. 칼을둘러ᄀᆞᆯ을버혀두로들러도라와시니술로술을먹으면엇지쾌ᄒᆞ리오<揮刀芟蘆周廻而還匙以飮酒安得快乎>
h. 블의예블이두던의풀과ᄀᆞᆯ를ᄉᆞ와다ᄉᆞᆯ와시나블히가오히려이시니엇디사라나지아닐가근심ᄒᆞ리요<不意火燎於原草菅盡燒有根猶存何患不生>

몇몇 군데에 잘못이 보이지만[55] 각 文章에 나타나는 最小對立語(minimal

55) 가령 (21)a의 '그버'는 '구버', b의 '궤여'는 '궤예', c의 '도토와'는 'ᄃᆞ

pair), 또는 거기에 가까운 類似語 區別表記는 近代國語의 그것과 대체로 一致한다. 이를 抽出해 보면 (21)a의 '가치'(鵲), '가지'(枝), '가지'(茄子), '가지-'(持), b의 '게'(蟹), '궤'(櫃), '괴'(猫), '괴이'(恠異), c의 'ᄆᆞᆯ'(藻), 'ᄆᆞᆯ'(馬), '메'(槌), '메-'(荷), 'ᄆᆡ'(山), 'ᄆᆡ이'(痛), d의 'ᄑᆡ'(牌), 'ᄇᆡ'(船), 'ᄇᆡ'(梨), 'ᄇᆡ'(腹), e의 'ᄃᆞᆯ'(月), 'ᄯᆞᆯ'(女), 'ᄃᆞ리'(橋), '다리'(脚), f의 'ᄡᅳᆷ'(苦), 'ᄠᅳᆷ'(隙), 'ᄯᆞᆷ'(汗), '담'(痰), g의 '칼'(刀), 'ᄀᆞᆯ'(蘆), '술'(匙), '술'(酒), h의 '블의'(不意), '블'(火), '풀'(草), '블희'(根), 그리고 'ᄉᆞᆯ와'(燒), '사라'(生) 등이 된다. 雨森芳洲는 이들 하나 하나를 區別하여 말하고 쓸 수 있을 때 國語를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以上 數條의 疑似한 말을 모아 적었느니라. 이와 같은 類는 無數할 것이니라. 하나 하나 區別하여 말하고 쓸 수 있을 때, 올바른 諺文을 알고 韓語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區別하여 쓰기까지는 工夫의 힘을 가지고 이룰 수 있지만, 區別하여 말하는 것은 이루기 어려우니라.

그가 이처럼 國語表記에 관심을 보인 것은 倭人으로 하여금 國語表記를 읽을 수도 있고, 國語로 쓸 수도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때의 國語는 자연히 中央方言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全一道人」은 音韻, 語彙, 文法에 걸쳐 이렇다할 方言的 要素를 뚜렷하게 보여 주는 일은 없다. 「全一道人」에 混入될만한 方言으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候補가 있다면, 그것은 地理的으로 倭와 隣接한 東南方言일 것이다. 그러나 「全一道人」에는 東南方言 要素임이 분명한 事例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이른바 ㅂ, ㅅ 不規則動

토와', '처더니'는 '치더니' 또는 '첫더니', f의 '두려권대'는 '두리건대' 또는 '두려컨대' h의 '셰와'는 '틔와'의 잘못된 表記일 것이다. c의 'ᄆᆡ'와 h의 '블히'도 각기 '뫼, 불휘'의 잘못이다. 'ᄆᆡ'는 本文에 '뫼흐로, 뫼히'(95)로 나타나지만 '불휘'는 그대로 '블히'(56)이다. 非語頭音節이긴 하지만 本文에 '두어되'(二三升)가 '두어ᄃᆡ'(35), '사회'(婿)가 '사ᄒᆡ'(38)처럼 잘못 表記된 例도 있다. 한편 d의 'ᄇᆡ일파'는 본래 'ᄇᆡ알파'였다가 蟲蝕을 입은 흔적이 보인다. c의 '몰됴흔'도 어떤 잘못일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짐작되지 않는다.

詞의 活用에 있어서도 「全一道人」은 中央方言과 같은 文法을 보일 뿐이다. 中世國語의 唇輕音 ㅸ, 半齒音 ㅿ에 각기 對應되는 東南方言의 ㅂ, ㅅ도 語彙形態素 內部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

(22) a. 눕- dowa 누어(54), ^{d}nuwa(77)
더럽- torowoN(123)
덥- towoN(76)
사오납- sawonawoN(63)
쉽- su'ihoNgosira 쉬온(113)
어듭- wotowa(75)
어렵- woriyowohanoN(118)
칩- t^{s}i'ureniwa(18)
b. ᄭᅳ으-(引) ^{su}kuwo ᄭᅳ어(52), ^{su}kuwona'iko ᄭᅳ어내고(87)
닛-(繼) niyo 니어(120)
ᄇᆞ아디-(碎) powat^{s}iyo ᄇᆞ아져(123)
c. 여외-(瘦) yo'u'iNgosuru 여윈(100), yo'u'ini 여외(107)
겨을 keworimeN(82)
ᄆᆞ올 moworu ᄆᆞ올(47)

먼저 (22)a는 ㅂ 不規則動詞의 活用을 보인 것인데, 어느 것이나 中央方言의 文法을 따르고 있다. 다만 '쉬온'에 대한 轉寫 su'ihoN이 形態素 境界에 h를 보이지만, 이것은 東南方言 要素인 ㅂ라기보다 母音衝突 環境에 無意識的으로 끼어 들 수 있는 國語의 ㅎ와 같은 存在일 것이다.[56] (22)b는 東南方言의 活用에 ㅅ를 보이는 動詞들인데, 「全一道人」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22)c는 東南方言일 경우, 그 內部에 ㅂ나 ㅅ가 期待되는 語彙形態素들인데, 둘 다 中央方言에서 일어난 ㅸ>w, ㅿ>ϕ과 같은 變化를 따르고 있다.

56) 倭語의 喉頭摩擦音 h는 兩唇摩擦音 ɸ에 遡及된다. 이 ɸ가 語中에서 圓唇性 轉移音 w로 變하기 시작한 것은 平安時代부터였으나(註 46 참조), 表記上으로는 二次大戰前까지도 h로 남아 있었다. 語中의 ha行音節 表記는 發話現實과 관계없이 維持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쉬온'을 轉寫함에 있어 母音衝突位置인 形態素 境界에 h를 挿入시키게 된 것은 倭人의 語中 ha行音節 表記習慣이 無意識的으로 干涉을 일으킨 結果일 것이다.

3.6. 「全一道人」의 語彙

語彙에 있어서도 「全一道人」은 이렇다 할 方言的 性格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길드리-(馴)'라는 語形이 한 번 쓰인 바 있어 注目을 끈다.

(23) a. 馴 질드릴 슌(「新增類合」<羅孫本> 下 16[b])
b. pitoruki kirutorikiruru 비둘기 길드리기(를)(70)
馴 길드릴 슌(「倭語類解」 下 24[a])

「全一道人」의 轉寫와 國語添記에 다같이 '길드리-'로 나타나는 이 語彙는 (23)a나 b의 實例를 내세울 필요도 없이 '질드리-'에서 變化한 것이다. 문제는 이 '길드리-'가 中央方言 要素인지 그밖의 어느 方言 要素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인데, 18세기 말엽에는 '질드리->길드리-'와 同一한 範疇에 속하는 變化가 中央方言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4) 범의 깃<羽>(「三譯總解」 九 15[b])
舵 키(「漢淸文鑑」 十二 21[a])

이 때의 '깃, 키' 또한 '짗, 치'의 變化形인데, 現代國語 '기와, 길쌈, 김치, 김장'의 頭子音 ㄱ도 同一한 通時的 過程을 經驗한 것들이다. 音聲的 環境으로는 前部高母音 ㅣ나 口蓋性 轉移音 y 앞에 配分되는 ㅈ가 ㄱ로 바뀐 것이지만, '집', '짓-'(作)과 같은 形態素에는 그러한 變化가 미치지 않았다. 결국 이 變化는 일부 語彙形態素의 第一音節 '지'에만 나타났기 때문에 語彙的, 音節位置的 制約을 안고 있는 것이었다. 흔히 不正回歸(false regression) 또는 過剩修正(hyper-correction)이라고 불리우는 이 變化는 音聲的 容認可能性으로 說明되지 않기 때문에 音韻變化가 아니라 類推的 變化로 解釋될 수밖에 없다.

이 變化는 ㄱ 口蓋音化가 生產的일 때에만 相對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18세기 말엽까지 中央方言에 ㄱ 口蓋音化가 일어났다는 確證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變化는 中央方言의 自體的 變化가 아닌 方言의 借用으로 理解되고 있다(郭忠求 1980 : 41). 그렇다면 '지>기'와 같은 類推的 變化

는 18세기 초엽에 적어도 ㄱ 口蓋音化를 겪은 바 있는 東南方言(李明奎 1974 : 89)이나 西南方言에서 일어난 것이고[57], 「全一道人」에 나타나는 '길드리-'도 일단 南部方言 要素처럼 看做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變化가 南部方言 要素의 借用에 의한 것이라고 斷定할 수 있는 根據는 아직 없다. 南部方言에 ㄱ 口蓋音化가 일어나 있었다면, 같은 時期의 中央方言에 그것이 發生하지 않았더라도, 몇몇 語彙形態素에 限定되는 類推的 變化마저 일어날 수 없다는 根據는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南部方言에는 '질드리-'와 '길드리-', '짓'과 '깃', '지야'와 '기와', '질삼'과 '길삼', '짐치'와 '김치', '짐장'과 '김장'이 共存하지만, 中央方言에서 멀어질수록 '지'形의 勢力이 커지거나 '지'形 하나로 單一化된다. 뿐만 아니라 '지'形은 다양한 異形態로 나타나지만, '기'形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中央方言에 가까와질수록 '기'形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 상태가 그대로 18세기까지 遡及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작 南部方言의 自然스러운 語形이 '지'形이라는 사실은 이 '지>기'의 類推的 變化가 오히려 中央方言에서 먼저 일어난 것임을 暗示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南部方言의 ㄱ 口蓋音化와 接觸을 갖게 된 中央方言 話者들이 그에 대한 心理的 過剩修正을 일으키게 된 結果가 '지>기'와 같은 類推的 變化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類推的 變化에 의한 中央方言의 '기'形이 오히려 南部方言으로 擴散되어 오늘날과 같은 '지, 기'形의 地理的 分布가 이루어졌다고 假定될수도 있다.[58] 이렇게 볼 때 南部方言에서 '지'形이 우세한 이유나 中央方言에서 '기'形으로 單一化한 이유가 다같이 自然스럽게 說明된다.

---

57) 後期近代國語의 西南方言 資料라고 할 수 있는 完板本 「烈女春香守節歌」에는 ㄱ 口蓋音化가 대폭 反映되어 있는데, 여기에 '질드리-'가 '길듸리-'로 나타난다. 西南方言에 일찍부터 '길드리-'가 있었음을 알려 준다.

오동 속의 노든 봉황 형극 속의 길듸린 듯(梨大 韓國文化硏究院, 「韓國古代小說叢書」 第二 열여춘향수졀가 <影印本>, 1959 : 123)

58) 崔泰榮(1983 : 70)에는 全州地域語에서 일어난 ㄱ系 口蓋音化의 事例에 čitㄱ(깃), čimč^{h}i(김치), čils'am(길쌈), čia(기와)를 包含시키고 있다. 그러나 通時的으로 이들이 ㄱ>ㅈ와 같은 口蓋音化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註 57에 提示된 바 있는 完板本「烈女春香守節歌」의 '길듸리-'도 文筆家에 의한 中央方言의 借用으로 解釋될 수 있다.

요컨대 18세기 초엽에는 中央方言에서도 '길드리-'가 쓰이고 있었을 것이다. 「全一道人」은 18세기 말엽의 「增修無寃錄諺解」(1792)에서 確認되는 '기야'(三 17ª)가 아직 '지야(115)' 段階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에, '질드리-'만은 同一한 範疇에 속하는 다른 語彙보다 먼저 '길드리-'로 類推되었음을 알려 준다. '질드리-'가 이렇게 다른 語彙에 앞서 '길드리-'로 類推될 수 있었던 것은 '질드리-'의 '질'이 지닌 意味의 不透明性으로 說明될 수 있다. '질드리-'는 南部方言의 ㄱ 口蓋音化와 接觸하기 이전 段階에서도 '길드리-'로 類推될 수 있는 意味上의 潛在性을 지니고 있지만, 그 時期는 역시 南部方言에 ㄱ 口蓋音化가 發生한 이후일 것이다. 결국 「全一道人」에 나타나는 '길드리-'를 雨森芳洲가 개인적으로 東南方言에서 借用한 것이라고 斷定할 수 있는 根據는 없다.

「全一道人」의 國語資料에는 이처럼 이렇다할 方言的 要素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는 ㄷ 口蓋音化가 대폭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 있어서 「全一道人」은 우선 國語文獻과 差異를 보인다. 그러나 이 ㄷ 口蓋音化도 당시 中央方言의 現實과 無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解釋된다. 따라서 「全一道人」의 國語資料는 당시의 中央方言에 基盤을 둔 것이라고 믿어진다.

3.7. 「全一道人」의 國語添記 誤謬

끝으로 「全一道人」 本文의 國語添記에 나타나는 誤謬를 指摘해 두기로 한다. 安田章(1964)의 國語復元文에는 原文의 國語添記 誤謬가 그대로 옮겨져 있기 때문이다. 편의상 誤謬의 內容을 子音에 관계되는 것과 母音에 관계되는 것으로 區分整理하여 提示한다. 그리고 各 實例의 끝에는 당시의 일반적 表記를 추정하여 덧붙힌다.

(25) a. 子音表記의 誤謬

① <u>keq</u><u>te'i</u> 겻디(23), keqte'i 겻디(44)←겻틔

tanʀsiku 단식(119)←탄식(嘆息)

'itomuha'iwe 이톰희(66)←이듬희

② tsaguzora'i 창출히(28)←창졸히

tsat^s^ut^s^imot^s^uhayaqta　ᄌᆞ치(86)←ᄌᆞ지(못ᄒᆞ얏다)
naruru。t^s^iyuhaya　쥐(20, 99)←취(娶)
t^s^inmunuru　진문을(68)←침문(寢門)
nemutseguhakiro　념정(113)←념청(廉淸)
^su^kunt^s^i'anihanira　쓴지(120)←쓴치
kegutseni　경젼히(122)←경쳔(輕賤)
③ tsebu'ipuni　쳡의 쌘이(49)←분(分)
posonarukiri　쎄서(72)←버서
tsosikuru'ango　(ᄌᆞ식을) 안코(58)←안ᅀᅩ
④ katsetaka　가졋다가(27, 38, 39)←가져다가
katsenonkururu　가져ᄂᆞᆫ(34)←가졋ᄂᆞᆫ
niruroqtoni　니ᄅᆞ러더니(63)←니ᄅᆞ럿더니
t^s^ukond^z^i　죽엇지(68)←죽언지
t^s^ukiyonnora　죽연노라(73)←죽엿노라
t^s^ukoma'i　주으매(71)←죽으매
niyobu。togu　녑통(54)←념통
⑤ mayagu　밍양(35)←미양
sagu'aqpu'i　장 알픠(24)←상(床)
⑥ t^s^iyoseruru　됴셔(25)←죠셔(詔書)
t^s^iyokomu　됴곰(27)←죠곰, t^s^iyokoman 됴고만(102)←죠고만

b. 母音表記의 誤謬

① ta'iruru。tsoruro　절로(36)←졸라
soqko　ᄉᆞᆺ고(54)←섯거
toyaqtoni　되엿ᄃᆞ니(42)←되엿더니
② soro'i　ᄉᆞ릐(122)←소릐
mobusurunomi　못쁠 놈이(72)←놈이
koqtso　고ᄎᆞ(30)←고초(苦楚)
③ towoteruru　두어 ᄃᆡ(35)←두어 되(升)
saho'itoya　사희(38), saho 사회(118)←사회(婿)
teriruso'i　드릴ᄉᆞ이(26)←드릴시
puruhu'i　블희(56)←불휘
④ t^s^urukiya　줄겨(33)←즐겨, t^s^urukinond^z^ira 즐기(36)←즐기

kumogu 그명(59)←구명
kuriɴna'i 그린내(27)←구린내
^{su}kumu 슴(61)←숨
⑤ hamokuhaya 하목(22)←화목(和睦)
torawa 드러(32)←도라와
'uweni 위연히(36)←우연히
mora'i 몰에(58)←몰애
pa'ika 파가(64)←패가(敗家)
momurupara (몸을) 푸(라)(77)←픅(라)
⑥ ^{su}taguha'i 쌍히(26)←쌍히
kosakirora 고징이러라(53)←고장(告狀)
namana 나만히(56)←나만하
'amuka'ihiwe 이모가히(79)←아모가히
naku'iruru 니귀(118)←나귀

雨森芳洲의 誤謬中에는 轉寫部分이 文法的으로 잘못된 것, 轉寫를 옳게 하고도 國語添記가 잘못된 것, 당시의 國語表記 慣行을 따른 결과가 오히려 잘못된 것, 단순한 誤記등 여러가지 경우가 包含되어 있으나, 國語와 倭語의 音聲體系나 音節構造의 差異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誤謬도 들어 있다.[59]

子音과 관계되는 誤謬로서는 平音, 有氣化音, 喉頭化音 三者間의 混同과 不正確한 音節末音 表記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25)a①은 ㄷ와 ㅌ, a②는 ㅈ와 ㅊ, a③은 ㅂ와 ㅄ의 區別에 混亂을 보이고 있다. a③의 마지막 例는 '조식을 안고(抱)'에 해당하는데, 이 때의 '안고'가 '안코'로 表記되어 있다. 이 表記는 (18)b에 提示된 바와 같이 凡例 第三條의 國語表記와도 一致되는데, 거기에는 '안고'의 '고'를 '코'라고 적어야지 '고'라고 적어서는 나쁘다는 注意까지 붙어 있다. 그러므로 雨森芳洲는 '안ㅭ'를 '안코'로 잘못 認識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a④는 音節末音 表記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混亂들이다. '죽연노라'는 發話現實을 따른 國語表記여서, 國語添記로 表記

59) 「全一道人」 凡例 第三條의 國語表記에 나타나는 誤謬에 대해서는 註 55에 整理해 둔 바 있다.

規範을 나타내려 했던 雨森芳洲의 본래 意圖와 어긋나고 있다. '념통'을 '녑통'이라고 表記한 것은 轉寫와도 一致되고 있어서, 이 語彙에 대한 雨森芳洲의 認識자체가 틀려 있었음을 알려 준다. a⑥은 ㄷ 口蓋音化로 인하여 본래의 ㅈ까지를 ㄷ로 잘못 表記하게 된 實例인데, 이러한 過剩修正으로서의 類推的 表記는 당시의 國語文獻에도 흔히 나타나므로 이를 雨森芳洲의 개인적 誤謬라고는 할 수 없다.

母音과 관계되는 誤謬로서는 ㆍ, ㅓ, ㅗ 三者間, ㅡ, ㅜ 兩者間의 混同이 主軸을 이룬다. (25)b①,②는 ㆍ를 ㅓ로, ㅓ를 ㆍ로, ㅗ를 ㆍ로 잘못 表記한 것들이다. ㆍ, ㅓ, ㅗ 三者間의 混同은 音節位置에 관계없이 舌端子音 아래에서만 일어나고 있음이 注目된다. b③은 ㆍ를 音節主音으로 하는 下降二重母音(falling diphthong)과 관계되는 것들이다. 즉 '되(升), 사회(婿), 불휘(根)'가 각기 'ᄃᆡ, 사ᄒᆡ, 블ᄒᆡ'로 表記되어 있다. '블ᄒᆡ'는 (21)h에 引用된 바와같이 凡例 第三條의 國語表記와도 一致되는데, 凡例에는 '뫼'(山)가 (21)c에 提示된 바와 같이 'ᄆᆡ'로 表記되기도 하였다. 이 混亂은 당시의 國語表記를 따랐을 가능성이 커서 雨森芳洲의 개인적 錯誤가 아닐지도 모른다. b④는 ㅡ와 ㅜ 사이에 混同을 일으킨 것이며, b⑤는 개별적인 混亂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다만 b⑤의 마지막 例는 '몸을 ᄑᆞ라'에 해당하는데, 'ᄑᆞ라'의 'ᄑᆞ'에 대한 國語添記 '푸'는 意外의 表記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ᄑᆞ'字를 쓴다는 것이 ㅍ와 ㆍ 사이에 ㅡ를 잘못 적어 넣은 흔적이 보인다. b⑥은 단순한 誤記들이다.

요컨데 雨森芳洲의 誤謬에는 國語와 倭語間에 潛在하고 있는 音聲들의 範例的 體系(paradigmatic system)나 統合的 構造(syntagmatic structure)의 差異가 불가피하게 露出되어 있다.

Ⅲ. ㄷ 口蓋音化

1. ㄷ 口蓋音化의 發端

1.1. ㄷ 口蓋音化의 發端時期와 條件

音韻變化로서의 口蓋音化에 대한 論議는 前部高母音 ㅣ나 口蓋性 轉移音 y 앞에 配分되는 舌端破裂音, 즉 ㄷ部類의 ㅈ部類化에 대한 觀察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最初의 觀察記錄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柳僖(1773~1837)의 「諺文志」(1824)에 나타난다. 그 內容은 3가지 指摘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東俗에 '댜, 뎌, 탸, 텨'와 '쟈, 져, 챠, 쳐'가 각기 똑같이 發音된다는 점.

둘째, 關西人은 '天'과 '千', '地'와 '至'를 각기 다르게 發音한다는 점.

셋째, 鄭東愈(1744~1808)의 高祖에 '知和'와 '至和'라는 이름의 兄弟가 있었다고 하므로, '디'와 '지'의 섞임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첫째와 둘째는 共時的 發話現實에 대한 觀察임에 반하여, 셋째는 通時的 音韻變化에 대한 推測이라고 할 수 있다.

兄弟 이름에 '知和'와 '至和'가 있었다는 事實은 적어도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時期까지 漢字音 '知'가 口蓋音化를 입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그 時期는 대략 17세기 초엽이나 중엽에 해당하므로, 그때까지 '知'는 우선 口蓋音化를 입지 않았으리라는 推定이 된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諺文志」의 證言이 漢字音 '知', 그러니까 高母音 ㅣ 앞에 配分되어 있는 ㄷ에 局限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限定的 情報가 固有語의 '댜, 뎌, 됴, 듀', 즉 tyV와 같은 音節構造의 頭子音 ㄷ까지 口蓋音化를 입지 않았다는 根據로 援用될 수 있을 지는 斷言하기 어렵다.

李明奎(1974)의 包括的인 文獻調査에 따르면, 中央方言에서의 ㄷ 口蓋音化는 16세기 말엽부터 극히 드물게나마 文獻에 그 모습을 들어낸다. 그에 의하면 처음에는 否定副詞化 語尾 '-디'보다 語彙形態素內에서 ㄷ 口蓋音化가 먼저 일어나는 傾向을 보인다고 한다(李明奎 1974 : 85).[60] 그것이 사실이라면 ㄷ 口蓋音化 規則의 發生에 形態的 制約(morphological constraint)이 따랐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根據는 없는 듯하다. 오히려 中央方言의 實例를 基準으로 할 때, ㄷ 口蓋音化는 前部高母音 ㅣ보다 口蓋性 轉移音 y 앞에서 먼저 일어났으리라는 推測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口蓋音化에 있어서의 同化力은 일반적으로 ㅣ보다 y가 더 크다(Neeld 1973)고 한다. 調音的으로 前部母音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母音은 口蓋性이 强해져서, 그 앞에 配分되는 子音을 쉽게 口蓋音化시킬 수 있기(Hyman 1975 : 160)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中央方言의 경우 高母音 ㅣ앞의 ㄷ보다 口蓋性 轉移音 y 앞의 ㄷ에 口蓋音化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 李明奎(1974)는 ㄷ 口蓋音化에 대한 初期的 實例로서 「新增類合」(1576)의 '건질 증'(拯), 「蒙山和尙法語略錄」(1577)의 '지혜', 「練兵指南」(1612)의 '젼읫 녕ᄆᆞ치 ᄒᆞ라', '습진'(習陣), '젼신'(轉身), 「東醫寶鑑」(1613)의 '죠ᄒᆞᆫ 누른 딜ᄒᆞᆰ'(好黃土) 등을 들고 있는데, 이들 중 「東醫寶鑑」의 '죠ᄒᆞᆫ'을 除外하면 나머지는 모두 方言的인 것일 수 있다.[61] 「東醫寶鑑」의 實例를 基準으로 할 때, '죠ᄒᆞᆫ'이 口蓋音化를 겪었음

---

60) 劉昌惇(1961 : 120)은 否定副詞化 語尾의 口蓋音化를 나타내는 '-디>-지'의 오래된 實例로서 「小學諺解」의 '可히 써 堯舜ㅅ道에 드지 몯ᄒᆞ리니'(五 119a)의 '드지'를 提示하고 있으나, 陶山書院本(1587)에는 이 때의 '드지'가 '드디'로 되어 있다. '-디'의 ㄷ가 16세기 말엽에는 口蓋音化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61) 「新增類合」의 著者인 柳希春(1513~1577)은 世居의 땅인 全羅道 海南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修學하였다 하므로(安秉禧, 「新增類合」<檀國大影印> 解題, 1972 : 18), 그의 個人語 背景은 西南方言의 最南端이었다. 「蒙山和尙法語略錄」은 全羅道 順川 松廣寺版으로, 여기에는 ㄷ 口蓋音化가 많이 나타난다(安秉禧 1972). 「練兵指南」의 刊行經緯는 序나 跋이 없어 분명하지 않으나, 卷末에 韓嶠(宣祖~仁祖朝)가 "書于咸山豊沛之館" 했다는 記錄이 있으므로 咸鏡道 咸興에서 刊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咸鏡道 方言에는 16세기 말엽에 口蓋音化가 일어나 있었다. 咸鏡道版 「村家救急方」(1571~

에 반하여 '딜ᄒᆞᆰ'은 口蓋音化를 겪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注目된다. 그런데 이 '둏-'의 口蓋音化形인 '좋-'는 16세기 말엽의 「小學諺解」(1587)<陶山書院本>에서도 確認된다.

(26) 진실로 밧긔 걷 됴ᄒᆞᆯ 적이면 도로혀 제 몸과 다ᄆᆞᆺ ᄆᆞᄋᆞᆷ이 이믜 스스로 몬져 죠티 몯ᄒᆞᄂᆞᆫ 줄을 아디 몯ᄒᆞᄂᆞ니라<苟得外物好時 却不知道自家身與心 已自先不好了也>(五 87b)

이처럼 '둏->좋-'와 같은 變化가 16세기 말엽과 17세기 초엽의 中央方言 資料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우연일지도 모르나, 口蓋音化가 ㅣ보다 y 앞에 配分되는 ㄷ에 먼저 찾아들었다는 뜻으로 解釋될 수 있다. 그러므로 否定副詞化 語尾 '-디'의 ㄷ보다 語彙形態素內의 ㄷ가 먼저 口蓋音化되었다는 非音韻論的 解釋은 ㅣ앞의 ㄷ보다 y앞의 ㄷ가 먼저 口蓋音化를 겪기 시작했다는 音韻論的 解釋으로 수정될 수 있다. y가 ㅣ보다 同化力이 강하다는 一般音聲學的 根據로 보나 文獻的 實例로 볼 때, 위와 같은 解釋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1.2. ㄷ 口蓋音化의 擴散

이미 16세기 말엽에 高母音 ㅣ보다 口蓋性 轉移音 y 앞에서 ㄷ 口蓋音化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諺文志」에 引用된 바 있는 17세기 중엽의 兄弟名 '知和'와 '至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解釋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ㅣ 앞의 ㄷ는 17세기 중엽까지 口蓋音化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知(디)和'의 '知'와 '至(지)和'의 '至'는 發音이 서로 달라, 兄弟이름으로 쓰일 수 있었으리라는 音韻論的 解釋이다. 둘째는 '知'가 漢字形態素라는 語彙的 範疇(lexical category)에 속하기 때문에 固有語의 一般音節 '디'와는 달리 17세기 중엽까지도 口蓋音化를 입지 않아서, '至'와는 發音이 區別되었으리라는 形態論的 解釋이다. 현재로서는 이 두가지 解釋中 어느 것이 옳다고 斷定할

1573 사이)으로 그 사실이 確認된 바 있다(安秉禧 1978). 그러므로 「練兵指南」이 咸鏡道 刊行이라면 거기에 口蓋音化가 나타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 없지만, 두가지 要因이 함께 作用한 結果라고 볼 수도 있다.

ㄷ 口蓋音化는 16세기 말엽에 이미 tyV와 같은 音節構造 안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때의 口蓋音化는 偶發的 變異에 의한 것이었겠지만, 그것은 또한 분명한 異音的 交替(allophonic alternation)의 發端이었다. 그러므로, 이 때의 變異는 隨意的 性格을 강하게 띠고 있어서, 話者의 文法知識에 變化를 일으킬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 隨意的 變異音 規則은 특정 語彙形態素에 먼저 限定的으로 나타났고 그중의 한 形態素가 'ᄃᆞᆼ-'였다. 그 첫번째 實例가 「小學諺解」에 단 한 번 나타나지만, 하나의 例라도 文獻에 露出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時期에 그것이 實在했음을 意味한다. 이 形態素에 口蓋音化가 먼저 찾아든 것은 그것이 tyV 構造를 이루고 있는 데다가 頻度數가 높아 오히려 偶發的 變異가 일어날 수 있는 確率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62] 거기다가 당시의 'ᄃᆞᆼ-'는 스스로 範例的 關係(paradigmatic relation)를 이루고 있는 'ᄌᆞᆼ-'(淨)와 意味資質上 類似性을 많이 가지고 있어, 偶發的으로 'ᄌᆞᆼ-'에 이끌릴 수 있는 潛在性을 지녔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ㄷ 口蓋音化는 17세기를 거치는 동안 이렇다 할 語彙的 擴散을 보이지 않는다. 中央方言에 관한 한 몇개의 語彙形態素에서 ㄷ 口蓋音化가 確認될 뿐이다. 「東醫寶鑑」(1613) 湯液篇의 '조ᄒᆞᆫ', 「東國新續三綱行實」(1617)의 '건져내여', 「譯語類解」(1690)의 '곡뒤치다(打背公)' 정도가 李明奎(1974 : 60-66)에 報告된바 있다.[63] 그밖에 「捷解新語」(1676)에도 드물게나마 ㄷ 口蓋

62) 일반적으로 頻度數가 높은 語彙目錄(lexicon)은 話者에게 명확히 記憶될 수 있기 때문에, 音韻變化에 대한 抵抗力이 강한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原理가 항상 개별적 語彙에 一律的으로 適用된다는 保障은 없다. 실제의 國語史에 登場하는 개개의 語彙形態素들은 音聲的, 非音聲的(形態的, 統辭的, 語彙的, 意味的) 要因 이외에도, 社會的, 心理的 要因과 같은 非言語的 要因으로 인하여 變化의 時期나 方向에 差異를 보일 때가 많다.

63) 李明奎(1974 : 60)에는 「諺解痘瘡集要」(1608)의 '밋치(根)'가 그 첫번 째로 例示되어 있으나, 이는 原文의 '믿지리'를 잘못 읽은 것이다. 印刷가 鮮明하지 않으나 해당부분 앞뒤는 다음과 같이 읽힌다.

만일 믿지리 븕고 귿티 두렷ᄒᆞ야 <若根窠紅頂圓>(上 15a)

이 때의 '믿지리'는 '믿자리'의 '자'가 脫劃을 입은 것이다. 다른 곳에 '믿자리'가 옳게 나타난다.

믿자리 전혀 븓디 아니ᄒᆞ고 <根窠全不起>(上 26b)

音化의 實例가 나타난다. '홀릴만졍 수이 ᄒᆞ고져 ᄒᆞ니'(六 11^{a})의 '-만졍'은 '-만뎡'의 口蓋音化形이다. 또한 '말ᄉᆞᆷ 겻티'(六 10^{b})와 '말ᄉᆞᆷ 겻치'(一 4^{a}, 九 14^{b}), '내 迷惑을 프르시과댜'(一 30^{a})와 '아므려나 ᄀᆞᄅᆞ치시과쟈'(九 19^{a})에 나타나는 '겻티'와 '겻치', '-과댜'와 '-과쟈'의 共存 또한 ㄷ 口蓋音化를 示唆하고 있다. 특히 頻度가 매우 큰 '둏-'(好)가 단 한번이긴 하지만 'ᄂᆡ일도 天氣 죠흘까 시브다 ᄒᆞ니'(六 16^{a})처럼 '죻-'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ㄷ 口蓋音化에 대한 분명한 證據라고 할 수 있다.[64]

다만 口蓋音化에 관한 한 「捷解新語」의 이와 같은 實例가 中央方言의 現實을 직접 나타낸 것인지에는 약간의 疑問이 남는다. 그것은 이 册의 著者인 康遇聖이 慶尙道 晋州 出身일 뿐아니라, 「捷解新語」에는 실제로 東南方言 要素처럼 보이는 實例 한두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이리 ᄉᆞᆯ오믈 휴지 삼디 마ᄋᆞᆸ소'(九 15^{b})의 '휴지'에 대한 '우리 ᄉᆞᆲᄂᆞᆫ 일은 다 슈지 사므시고'(四 19^{b})의 '슈지'와 같은 實例이다.[65] '휴지'에 대한 '슈지'는 ㅎ 口蓋音化를 暗示하고 있는데, 17세기의 中央方言에 ㅎ 口蓋音化가 일어났다는 證據는 아직 없는 듯하다. 다른 하나는 '오래 슈고ᄒᆞ던 아랫 사람들희 별로 포홀 일도 업서'(八 3^{b})에 보이는 '포ᄒᆞ-'의 存在이다.[66] 그것이 誤

한편 「東國新續三綱行實」의 '건져내여'도 方言的 要素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册의 板刻과 印刷는 各地方에 分擔시켰기 때문이다. 李丙燾, <影印本> 解題(國立圖書館, 1958) 참조.

64) 그밖에도 '내 ᄉᆡᆼ각ᄒᆞᆫ 일을 졈치디 아니코'(一 6^{a})에 나타나는 '졈치디'의 '치-'는 「譯語類解」의 '졈티다'<筭卦>(上 64^{a})로 볼 때, '티-'의 口蓋音化形처럼 보인다. 실제로 劉昌惇, 「李朝語辭典」(1964)에는 이 '졈치-'가 '占치-'로 풀이 되어 있다. 그러나 「捷解新語」의 '졈치-'는 倭語 hika'i(<hikahe, 멈추게 하다, 억제하다, 만류하다)에 대한 飜譯이므로 '멈치-'의 誤謬임이 분명하다. 「改修捷解新語」(1781)에는 그것이 '멈치-'(一 7^{b})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捷解新語」의 '졈치-'를 口蓋音化와 관련시킬 수는 없다.

65) '휴지'와 '슈지'에 해당하는 倭語는 각기 '호우구'(ho'uku)와 '호웅구'(ho'ugu)로 다르게 되어 있으나, 森田武(京都大學, 「捷解新語」<影印本>解題, 1957 : 42)는 ho'uku를 ho'ugu의 錯誤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휴지'와 '슈지'는 다같이 ho'ugu에 대한 飜譯이 된다. 실제로 「改修捷解新語」에는 이 '슈지'가 '휴디'(四 25^{b})로 고쳐져 있다. 倭語 ho'ugu는 hogu(反古, 反故)의 變化形으로서, '글씨 따위를 써서 못쓰게 된 종이'(大野晋・佐竹昭廣・前田金五郎, 「岩波古語辭典」 1974)를 뜻한다.

66) 이 때의 '포ᄒᆞ-'는 倭語 hisahisa kura'usita kenindomoni pet^{s}ini sirosi'itasu

字가 아니라면, 이 때의 '포'는 東南方言의 '표(標 또는 表)>포', 즉 y 脫落에 의한 口蓋性 上昇二重母音의 單母音化를 暗示하고 있는 이른 時期의 實例가 아닌가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捷解新語」의 ㄷ 口蓋音化 實例 또한 東南方言 要素일 가능성을 보여 준다.

「捷解新語」의 ㄷ 口蓋音化까지를 모두 中央方言의 現實로 看做하더라도, 17세기 말엽까지는 ㄷ 口蓋音化가 아직 限定된 일부 形態素에 隨意的으로 나타날 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ㄷ 口蓋音化는 17세기 말엽에 이르기까지 語彙的으로는 그다지 큰 擴散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17세기의 90년대 전후에는 ㄷ 口蓋音化가 話者의 文法知識에 變化를 가져 오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論議하게 될 것이다.

2. ㅈ 口蓋音化의 發端

2.1. ㅈ 口蓋音化에 대한 諸說

적어도 16세기 말엽에는 西南方言과 東北方言에 다같이 ㄷ 口蓋音化가 일어나 있었다. 全羅道版 「蒙山和尙法語略錄」(1577)과 咸鏡道版 「村家救急方」(1571~1573 사이)에서 ㄷ 口蓋音化가 確認된 바 있기 때문이다(安秉禧 1972, 1978). 그렇다면 16세기 말엽의 中央方言에 ㄷ 口蓋音化가 偶發的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것이 方言에 의한 干涉이라는 확실한 根據가 없는 이상, '둏->죻-'와 같은 變化에 나타나는 ㄷ 口蓋音化는 中央方言의 先驅的 一例라고 할 수 있다.

---

kotomo nasi의 sirosi에 대한 飜譯이다. 그러나 sirosi는 '희다, 밝다, 명확하다'(白, 著)는 뜻이어서, 이 뜻으로는 文脈이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때의 sirosi는 '표하다, 기억하다'(徵, 標, 記, 銘) 등을 뜻하는 sirusi의 錯誤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改修捷解新語」에는 이 부분이 hisabisa kura'u'itasita simozimoni beqsite t^sukawasu monomo gozarazu<오래 슈고ᄒᆞ든 아래 사ᄅᆞᆷ의게 別로 줄 것도 업ᄉᆞ>(八 4^a)로 되어 있다. sirosi가 '使者를 시켜 편지나 선물을 보내다'(使, 遣)를 뜻하는 t^sukawasu(<t^sukahasu)로 고쳐진 것이다. 결국 sirosi를 sirusi로 본다면, 이에 대한 「捷解新語」의 '포ᄒᆞ-'는 '標하-' 또는 '表하-'의 뜻으로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ㄷ 口蓋音化의 發端은 15세기에 非口蓋音이었던 ㅈ 部類의 口蓋音化, 즉 c>č와 같은 變化에 그 原因이 있었던 것으로 解釋된다. 舌端破擦音 ㅈ 部類의 口蓋音化에 대한 論議는 許雄(1964)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15세기에 非口蓋音이었던 ㅈ 部類가 18세기에 口蓋音化를 일으켰다는 解釋이었다. 곧 中世國語의 ㅈ는 [ts]였으나, 그후 口蓋音化를 입어 [tš]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中世國語의 ㅈ 部類에 대해서는 또다른 解釋도 있다. 中世國語 齒音의 調音位置는 上齒齦과 舌端(舌尖後部) 사이였던 것으로 推定되기 때문에, 그 發音은 다음에 오는 母音의 種類에 따라 ts, ts‘, s로도 實現될 수 있었고, tʃ, tʃ‘, ʃ(또는 tɕ, tɕ‘, ɕ)로도 實現될 수 있었다는 解釋이 그것이다(姜信沆 1983). 中世國語 文獻에는 '몬져, 죠개' 등에 대한 '몬저, 조개'와 같은 混用例가 나타나므로[67], 이들 混用은 調音位置의 移動과는 無關하며, 中世國語에서는 '자'계열과 '쟈'계열의 辨別的 機能이 별로 크게 작용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解釋이다.

이러한 解釋은 결국 15세기에 이미 ㅈ가 ㅣ 또는 y 앞에서 口蓋化音 [č]로 實現될 수 있었음을 알려 준다. 다시 말하면 中世國語의 ㅈ는 共時的으로 音聲環境에 의한 口蓋性 變異音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몬져'에 대한 '몬저'가 어쩌다 나타나는 점을 勘案할 때, 그러한 變異音의 出現은 隨意的이었던 것으로 理解된다. 따라서 中世國語의 ㅈ가 音韻論的으로는 非口蓋音이었다고 解釋하더라도 거기에 무리가 따르지는 않는다.

이러한 解釋은 中世國語의 文法的 音韻現象으로도 確認이 가능하다. 즉 '몬져'에 대한 '몬저'처럼 形態素 內部에서는 '져'와 '저'의 混亂이 나타나지만, '지(負)+어→져, 가지(持)+어→가져'에 의한 '져'가 '저'로 나타난다거나, '늦(緩)+어→느저, 닞(忘)+어→니저'에 의한 '저'가 '져'로 나타나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中世國語 文獻에 대한 精密한 檢索없이 速斷하기

---

67) 混用例 가운데에는 '잡-'(捕)에 대한 「石峯千[illegible](1583)의 '쟈블 포'<捕>가 包含되어 있다. 劉昌惇, 「李朝語辭典」(1964)에도 같은 語形으로 提示되어 있으나, 初刊本으로 推定되는 日本國立公文書館本 「石峯千字文」에는 같은 漢字가 '자블 포'(39a)로 풀이되어 있다. 「李朝語辭典」에 錯誤가 없었다면, '쟈블 포'는 필시 後代의 重刊本(例컨대 1694, 1745)에 나타나는 實例일 것이다.

는 어려우나, 活用에 나타나는 文法的인 '져'와 '저'가 混亂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의 話者들이 文法的으로는 '져'와 '저'를 분명히 區別할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당시의 ㅈ가 音韻論的으로 非口蓋音 c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편, 中世國語에는 '가지-', '지지-'(噪)처럼 '지'를 末音節로 하는 複數音節 動詞語幹이 存在했는데, 이들은 그후 '가지->갖-, 지지->짖-'과 같은 變化를 겪었다. '가지-'와 '갖-'은 現代國語에서 '가지고'와 '갖고'에서처럼 아직도 隨意的 交替를 維持하고 있으나, '지지-'는 通時的 變化를 거쳐 '짖-'으로 굳어졌다. 이러한 變化가 언제 일어났는지 確認하지는 못했으나, 그 時期는 적어도 ㅈ가 口蓋音化를 완전히 겪은 다음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지+어→지져'에 의한 '져'가 '저'와 音聲的 實現이 같아지면서, '지져'가 文法的으로 '지저'처럼 認識되었기 때문에 그 語幹이 '짖-'으로 再構造化될 수 있었으리라고 理解된다. 따라서 '지지->짖-'과 같은 再構造化의 原因은 ㅈ 口蓋音化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ㅈ와 관계되는, 이상과 같은 共時的 音韻現象이나 通時的 變化에 의해서도 中世國語의 ㅈ가 音韻論的으로는 非口蓋音 c였음을 밝힐 수 있다.

許雄(1964)에서는 ㅈ 口蓋音化가 ㄷ의 그것보다 조금 앞섰으리라고 推定하면서, 그 理由에 대해서는 ㅈ가 口蓋音化하기 전에 ㄷ가 먼저 ㅈ에 合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推定은 ㄷ가 먼저 非口蓋性 破擦音 [ts]로 變했다가, 거기서 다시 口蓋性 破擦音 [tš]로 變했다는 뜻이 되어 音韻論的 解釋으로는 非合理的이다. 이에 대하여 ㄷ 口蓋音化는 ㅈ 口蓋音化를 前提로 하기 때문에 ㄷ 口蓋音化가 ㅈ 口蓋音化에 앞서 일어날 수는 없다는 批判이 提起되었다(李基文 1972[a] : 66-67). 이 見解는 대체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李明奎 1974 : 29, 郭忠求 1980 : 32).

2.2. ㅈ 口蓋音化의 條件

ㅈ 口蓋音化는 ㅣ 또는 y 앞에 配分되는 非口蓋音 c[ts]의 隨意的 變異音 č[tš]에 그 發端이 있었으리라고 推測된다. 그것이 ㅣ 또는 y 이외의 母音環

境에까지 擴散될 수 있었던 것은 齒莖과 軟口蓋 사이의 硬口蓋域에서 調音되는 子音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곧 體系上의 빈칸 때문이었으리라고 解釋되고 있다(郭忠求 1980 : 33).

筆者는 ㄷ 口蓋音化가 tyV와 같은 音節構造에 먼저 나타났으리라고 推定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口蓋位置에서는 破擦音이 破裂音보다 더 自然스럽다(덜 有標的<marked>이다)(Ladefoged 1971 : 41)고 한다. 그렇다면 tyV의 ㄷ는 당초부터 破擦音化할 潛在性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位置에서 ㄷ 口蓋音化가 偶發的으로 나타난 時期는 16세기 말엽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ㄷ 口蓋音化가 ㅈ 口蓋音化를 前提로 한다면, ㅈ 口蓋音化에 대한 根據가 16세기 말엽 이전에 나타나야 한다. 실제로 그러한 發端的 實例가 ㄷ 口蓋音化를 처음으로 보였던 「小學諺解」에 나타난다.

(27) a. 시졀(三 25[a], 五 15[b], 六 34[a], 93[b])
b. 시절(五 49[a], 100[b], 六 66[b], 75[a], 82[a], 109[a])

實例가 '時節'에 해당하는 漢字語인데다가, 그 位置가 非語頭音節이란 불만이 없지 않으나, 漢字는 그 하나하나가 自立形態素로서의 資格을 지니고 있으므로, '시졀'과 '시절'이 이처럼 한 文獻에 共存한다는 사실은 ㅈ가 드물게나마 轉移音 y 앞에서 口蓋化音으로 實現될 수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졀'의 發話現實에 cyəl→čyəl→čəl과 같은 隨意的 變異가 나타날 때라야만 그것이 '절'로 表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形態素 內部에 나타나는 '졀→절'의 隨意的 變異는 두개의 規則으로 說明될 수 있다. 그 하나는 c가 y 앞에서 口蓋音化하는 規則이고, 다른 하나는 y가 č 뒤에서 脫落하는 規則이다. 適用되는 順序는 前者가 後者를 앞선다. 그런데 y 脫落規則의 存在는 18세기 중엽 이후의 '셤(島)>섬'에 의한 syV>sV와 같은 通時的 變化에서 確認된다.

'시졀'의 '졀'이 '절'로 表記될 수 있었던 것은 위의 두 規則이 反對順序로 適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곧 c→č에 대한 競爭規則(competing rule) y→ϕ가 먼저 適用된 cyəl→cəl과 같은 變異가 '절'로 表記될 수도 있

다는 解釋이다. 그러나 '졀'이 cəl에 대한 表記일 가능성은 否認될 수밖에 없다. c→č, y→ϕ와 같은 順序가 y→ϕ, c→č와 같은 順序로 바뀌면 y 脫落이 먼저 일어나므로, 口蓋音化 規則인 c→č는 環境을 잃게 되어 空轉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口蓋音化는 일어나지 못하고 만다. 이것은 두 規則間의 順序가 給與關係(feeding relation)에서 奪取關係(bleeding relation)로 再配列(reordering)을 일으켰다는 뜻이 된다. 그렇게 되면 規則들이 最大限으로 利用될 수 있는 順序로 配列되는 傾向이 있다(Kiparsky 1982 : 40)는 普遍的 原理에 어긋나게 된다. 구태어 그러한 原理를 내세울 필요도 없다. 國語音韻史로 볼 때, 18세기 중엽 이전에 舌端子音 環境으로 이루어진 音節 cyV 나 tyV는 물론, nyV나 lyV 등에서도 y 脫落이 口蓋音化에 앞서 일어났다는 證據는 없기 때문이다.[68] syV가 通時的으로 y 脫落을 겪기는 했지만, 그것은 적어도 18세기 중엽 이후의 일이다.

2.3. ㅈ 口蓋音化의 發端時期

요컨대 '시졀'의 '졀'은 ㅈ 口蓋音化를 示唆하고 있는 表記로 理解된다. ㅈ 口蓋音化는 이처럼 ㄷ 口蓋音化의 發端時期인 16세기 말엽에 이미 存在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전으로 遡及될 가능성도 있다. 「飜譯小學」(1518)에 그러한 實例가 보인다.

(28) a. 시결(六 17^{a}, 七 32^{b}, 九 30^{b}, 55^{a}, 72^{a}, 十 32^{a})
　　b. 시절(六 10^{a}, 七 12^{a}, 43^{b}, 八 19^{b}, 九 39^{a}, 72^{a}, 96^{b})

---

68) y 脫落이 먼저 適用된 方言으로서는 西北方言이 있다. 西北方言에 口蓋音化가 일어나지 않은 理由로서 "平安道 사람의 中鮮에 대한 反感"(金亨奎 1955: 241)과 같은 非音韻論的 要因, 즉 社會的, 心理的 原因이 提示된 적도 있으나, 사실은 y 脫落規則이 口蓋音化에 앞서 適用된 結果로 解釋된다. 그때문에 西北方言에서는 舌端子音 部類에 後行하는 口蓋性 上昇二重母音 yV가 單母音化하여 V로 굳어졌다. '녀석>너석, 녀나ᄆᆞᆫ>너나믄, 뎝시>덥시, 둏다>돟다, 량반(兩班)>냥반>낭반, 류황(硫黃)>뉴황>누황, 뎔력>덜력, 훌륭하다>훌룽하다, 셤(島)>섬, 셤기다>셩기다>성기다>셍기다, 져다>적다'(金履浹, 「平北方言辭典」, 精神文化硏究院, 1981). 이와 같은 y 脫落은 口蓋音化의 發生을 막게 되어, 西北方言의 舌端子音 部類는 前部高母音 ㅣ 앞에서도 口蓋性 變異音을 갖지 않게 되었다.

現存하는 木板本「飜譯小學」은 어느 것이나, 初刊本이 아닌 後代의 複刻本 뿐이어서 斷言하기는 어려우나, '시졀'과 '시절'의 共存만은 이처럼 16세기 초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通時的 變化로서의 ㅈ 口蓋音化도 결국은 그 이전 어느 時期의 共時的 變異音에서 出發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졀'의 '졀'이 漢字形態素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漢字는 話者의 言語習得 過程에서 그 한 字 한 字가 獨立的으로 記憶되는 語彙目錄에 속하기 때문에, '시졀'과 '시절'에 나타나는 混亂은 隨意的 變異로 說明될 수밖에 없다.

形態素 內部에서 일어나는 隨意的 變異로서의 ㅈ 口蓋音化는 다시 15세기로 거슬러 올라 갈 가능성도 있다. 姜信沆(1983)에 提示된 바 있는 '몬져→몬저, 죠개→조개'와 같은 表記混亂이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ㅈ 口蓋音化가 ㄷ 口蓋音化보다 앞섰다고 할 수 있는 根據가 文獻으로도 實證되는 셈이다. 다만 cyV에 나타난 ㅈ 口蓋音化는 그 發端에 있어서 tyV에 나타난 ㄷ 口蓋音化보다 덜 偶發的이었을 것이다. 口蓋性 轉移音 앞에서의 ㅈ는 音聲環境으로 보나 硬口蓋域의 子音이 빈칸이라는 體系上의 理由로 볼 때, 같은 音聲環境의 ㄷ보다 自然스럽게 口蓋音化할 수 있는 潛在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tyV에 일어난 ㄷ 口蓋音化를 音韻論的 要因으로 解釋하려면, 口蓋位置에서 破裂音보다 破擦音이 더 自然스럽다는 一般音聲學的 普遍性밖에 없는데, 그러한 普遍性이 絕對的일 수는 없다. 이것이 ㅈ 口蓋音化가 ㄷ 口蓋音化에 앞서 實現되기 시작했으리라고 推定하는 또 하나의 理由가 된다.

2.4. ㅈ 口蓋音化의 擴散

ㅈ 口蓋音化는 17세기를 거치는 동안 다른 語彙形態素로 擴散된다. 그 證據가 文獻에 나타나는 '자'와 '쟈', '저'와 '져', '조'와 '죠', '주'와 '쥬'의 表記混亂이다. 그 實例로서 李明奎(1974 : 33-37)에는 「諺解痘瘡集要」(1608)의 '져즐'(乳)과 '젖쑤리, 저제'의 共存[69], 「東國新續三綱行實」(1617)

69) 一簑本「諺解痘瘡集要」에는 '짖'과 '젖'이 분명히 共存하는데, 같은 著者 許

의 '죽기로 뼈'[70], 「家禮諺解」(1632)의 '졋어미'와 '젓어미'의 共存이 報告되어 있으며, 李基文(1972[b] : 198)에도 「老乞大諺解」(1670)의 '창(<챵, 靴底), 「譯語類解」(1690)의 '저울'(<져울, 秤), '저재'(<져재, 市), '저근'(<져근, 小), '줄'(<즐, 線)과 같은 表記混亂이 提示된바 있다. 實例가 이처럼 한정되어 있지만, ㅈ 口蓋音化는 ㄷ 口蓋音化보다 앞서서 擴散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檢討된 바 있는 ㄷ, ㅈ 口蓋音化는 다음과 같이 整理될 수 있다. 隨意的 變異로서의 ㅈ 口蓋音化는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ㄷ 口蓋音化는 16세기 말엽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前者가 後者보다 앞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口蓋音化는 다같이 高母音 ㅣ보다 口蓋性 轉移音 y 앞에서 먼저 異音的 交替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ㅈ 口蓋音化는 子音體系上의 빈칸을 메꾸는 異音的 交替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ㄷ 口蓋音化는 ㅈ 口蓋音化와의 共謀(conspiracy)에서 비롯된 것이다. ㄷ 口蓋音化는 音聲環境上 ㅈ 口蓋音化보다 偶發的 性格을 더 많이 띠고 있다. ㅈ 口蓋音化는 17세기 말엽에 이르는 동안 語彙形態素的으로 상당히 擴散되었을 것이나, ㄷ 口蓋音化는 ㅈ 口蓋音化만큼 擴散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口蓋音化는 17세기 말엽에 가까와지면서 점차 話者의 文法知識에 變化를 일으키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18세기 초엽의 ㄷ 口蓋音化

3.1. 國語文獻의 ㄷ 口蓋音化

國語의 中央方言 資料에 ㄷ 口蓋音化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時期는 18세기

浚에 의하여 같은 해에 刊行된 「諺解胎産集要」(1608)에는 그러한 共存이 없고 언제나 '젖'으로 나타난다.

져제 몽욜이 이시면(11[a])

두녁 져지 펴디여(59[a])

짐작컨대 一簑本 「諺解痘瘡集要」는 印刷가 粗雜하고 落面(23[a])과 부분적 落刻(26[b])이 있는 점으로 보아 적어도 初刊本은 아닌 듯하다.

70) 「東國新續三綱行實」에 方言的 要素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註 63 참조.

의 30年代 전후이다. 「同文類解」에는 ㄷ 口蓋音化가 대폭 나타나지만, 그보다 앞서는 「女四書諺解」(1736)에서도 ㄷ, ㅌ, ㅼ 口蓋音化가 모두 確認된다.

(29) a. ㄷ>ㅈ
節을 직ᄒᆡ엿더니(四 26[a])
官이 歎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어지다……ᄒᆞ고(四 11[a])
ᄇᆡ호지 말올띠니(二 5[a])
벼히지 몯ᄒᆞ고(三 23[a])
b. ㅌ>ㅊ
王 죽긴 자ᄅᆞᆯ 쳐 죽기니라(四 9[a])
ᄆᆞᄋᆞᆷ이 돌쳐로 가히 구울리지 몯ᄒᆞ리란 말이오(三 18[a])
能히 고침을 貴히 너기시고(一 22[b])
忠치 몯ᄒᆞᆫ 줄이 앗가온디라(四 56[b])
c. ㅼ>ㅉ
얻지 가히 받긔 낫타내여(二 35[a])
可히 降티 못ᄒᆞᆯ지니(四 33[b])

이 時期에는 語彙形態素나 文法形態素, 語頭音節이나 非語頭音節과 같은 條件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口蓋音化가 實現되었다. (29)a는 '딕ᄒᆡ->직ᄒᆡ-, 어딜->어질-, -디>-지'를, (29)b는 '티->치-, -뎌로>-쳐로, 고티->고치-, -티>-치'와 같은 口蓋音化를 보여준다. ㅼ 口蓋音化는 表面的 表記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29)c의 '엇디>얻지, 몯ᄒᆞᆯ디니>못ᄒᆞᆯ지니'는 실질적으로 ㅼ 口蓋音化를 보이고 있다.

「女四書諺解」에 나타나는 ㄷ 口蓋音化는 量的인 면에서 지극히 미미한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든 類型의 ㄷ 口蓋音化가 反映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事例가 그중 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30) a. 네가디 힝실은 곧 네가딧 德이라(一 10[b])
그 患이 스스로 귿티리라(三 82[b])
뎌에 이셔ᄂᆞᆫ 아뎌홈이 업ᄉᆞ며(一 24[a])
b. 네가지 힝실이 이시니(一 12[a])
그치지 아니ᄒᆞ면(一 10[a])

사름의 아쳐ᄒᆞ믈 블너(二 8[b])

이 때의 '네가디, 귿티-' 아텨'는 각기 (30)b의 '네가지, 그치-, 아쳐'의 또 다른 表記이지만, (30)a와 같은 表記가 당시의 실제 發話現實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이 音韻變化에 의한 실제 發話現實이었다면, 現代國語에 그 反射形이 남아 있어야 한다. '아쳐'는 그후 廢語化하였으므로, 그 行態를 알 수가 없지만, 現代國語에 남아 있는 것은 '네가지, 그치-' 쪽이다. 이것은 (30)b가 당시의 發話現實이었음을 暗示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네가디'와 같은 存在는 「全一道人」에 나타난 바 있는 '질드리->길드리-'와 그 性格이 전혀 다르다. '질드리->길드리-'는 音韻變化가 아니라, 類推的 變化로서, 南部方言에서 일어난 軟口蓋音의 口蓋音化 ㄱ>ㅈ에 대한 心理的 過剩修正에 그 原因을 두고 있다. '길드리-'는 그 때부터 發話現實로 굳어져서, 같은 類型의 變化를 겪게 된 '깃'(羽), '키'(舵), '기와', '길쌈', '김치', '김장'과 함께 現代國語에 繼承되었다. 그러나 '네가디'는 그러한 過程을 겪지 않았다. '네가디'는 당시 表記者의 心理的 葛藤을 나타내고 있을 뿐, 發話現實에 의한 異音的 交替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心理的 葛藤은 ㄷ 口蓋音化에서 由來한다. 따라서 '네가디'와 같은 表記는 ㄷ 口蓋音化를 意識한 過剩修正이라는 점에서 ㄱ 口蓋音化에 대한 '길드리-'와 같으나, 表記時에만 나타나는 個人的, 瞬間的 類推일 뿐, 言語社會의 發話現實로 굳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길드리-'와는 差異가 있다. 다만 '그치-'에 대한 過剩修正 表記인 '귿티-'에는 名詞 '귿'(末)에 의한 語源意識의 範例的(paradigmatic) 干涉도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이미 指摘한 바 있지만 「女四書諺解」의 ㄷ 口蓋音化는 卷一 앞 부분에 붙어 있는 3가지 序文中 두번 째인 '御製女四書序'에만 集中的으로 反映되어 있다. 첫번 째인 '神宗御製女誡序'에는 하나의 實例가 나타날 뿐이지만 그것이 특별한 意味를 지닌 實例로서 注目된다.

(31) a. 廣布ᄒᆞᄂᆞᆫ ᄠᅳ지리오(女四書序 6[a])
b. 가숨의 부쳐 외오고(女誡序 4[b])

이 때의 '쓰지리오, 부쳐'는 각기 '쁟+이+리+오, 븥+이+어'의 表面形이다. 動詞活用에 나타나는 이러한 形態音韻論的 交替는 ㄷ 口蓋音化가 당시의 文法에 共時的 音韻現象으로서 存在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거기다가 「女四書諺解」는 漢字音에서도 ㄷ 口蓋音化를 보이고 있다(南廣祐 1977^{b}). 이 모든 사실은 「女四書諺解」가 量的으로는 비록 ㄷ 口蓋音化를 미미하게 보여 주고 있지만, 그것이 당시의 文法에 매우 普遍的인 現象이었음을 알려 준다.

3.2. 「全一道人」의 ㄷ 口蓋音化 (1)

이상과 같은 ㄷ 口蓋音化가 18세기 초엽의 文法이었음을 確認시켜 주는 또 하나의 資料가 「女四書諺解」보다 時期的으로 앞서는 「全一道人」(1729)이라고 할 수 있다. 이 資料의 轉寫와 國語添記에는 ㄷ 口蓋音化가 全面的으로 나타나는데, 그 範圍는 語彙形態素의 語頭와 非語頭, 文法形態素, 漢字音에 모두 결쳐 있다. 國語添記에 본래의 '디, 티, 뎌, 텨' 등이 어쩌다 維持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倭文字 轉寫는 한결같이 口蓋音化한 狀態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이미 檢討한 바와 같이 「全一道人」에는 18세기 초엽의 中央方言이 反映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나타나는 ㄷ 口蓋音化 또한 당시 中央方言의 現實이었을 것으로 理解된다.

(32) a. 궂브지 아니랴(凡 3),
사라나지 아닐가 근심ᄒᆞ리요(凡 3)
kari'ot^{s}imoqhaka'ihako ᄀᆞ리오지 (못ᄒᆞ게 ᄒᆞ고)(30)
kat^{s}it^{s}i'ani。hatoni 가지지 (아니ᄒᆞ더니)(113)
toqhat^{s}i。'anihayaqtani 뜻ᄒᆞ지 (아니ᄒᆞ얏더니)(52)
^{d}nukuhi'ipurit^{s}imoqharira[71] (능히) 부리지 (못ᄒᆞ리라)(100)
sibud^{z}imoqhani 십<齒>지 (못ᄒᆞ니)(22)
wobutot^{s}ikot^{s}iyahakonuru 업셔지(고져 ᄒᆞ거늘)(42)

71) '能히'가 ^{d}nukuhi'i로 轉寫되어 있으나, ku에 濁音記號가 베풀어져서 gu가 되었어야 할 곳이다. 「全一道人」에는 이처럼 濁音記號가 베풀어지지 않은 곳이 많다.

t^{s}it^{s}imoQharira 치<打>지 (몯ᄒᆞ리라)(104)

b. ^{su}kuNt^{s}i'anihanira ᄉᆞᆫ치 (아니ᄒᆞ니라)(120)

tsewot^{s}ut^{s}imoQhatora 졔어<制御>치 (몯ᄒᆞ더라)(103)

(33) a. 쥭엇는지라 t^{s}ukoNnoNt^{s}ira(凡 2), 쥭엿는지라 t^{s}ukiyoNnoNt^{s}ira (凡 2)

kayameNt^{s}ira 가욤연지라(85)

toN。 pagumenina。 ^{bu}soNd^{z}ira 돈 빅민<百緡>이나 ᄡᅳᆫ지라(72)

woreNnoNt^{s}ira 어렷는지라(122)

블지<不知> put^{s}i(凡 2)

엇지(凡 3)

wot^{s}irinekiko 어지리 녀기고(19), wot^{s}itahaya 어지다(ᄒᆞ야) (60)

koNd^{z}ini 견디(니)(44)

muro'i。 ^{su}pat^{s}ini (믈에) ᄲᅡ지니(44)

b. woku'i。 kaQt^{s}iyaQtoni (獄의) 갓치엿더니(49)

na'it^{s}ini 내치(니)(99)

puQt^{s}it^{s}i'anihako 븟치지 (아니ᄒᆞ고)(51)

(34) a. t^{s}iyaruru 지야<瓦>(를)(115)

karuro。 t^{s}iruro。 t^{s}ukiko 칼(로) 질러 (쥭이고)(48)

t^{s}ikusoruru 직ᄉᆞ<直事>(를)(105)

b. t^{s}iriyahani 치<打>(려 ᄒᆞ니)(27), t^{s}imiyo 치(며)(67), t^{s}ini 치(니)(87), t^{s}it^{s}imoQharira 치지 (몯ᄒᆞ리라)(104)

t^{s}ini 티<打>(니)(45), t^{s}irahasinira 티(라 ᄒᆞ시니라)(46)

t^{s}iriyo 티료<治療>(77)

먼저 (32)는 否定副詞化 語尾 '-디, -티', (33)은 非語頭 位置에 나타나는 '디, 티', (34)는 語彙形態素의 第一音節 '디, 티'에 대한 轉寫와 國語表記를 整理해 본 것이다. 이들은 다같이 t^{s}i 또는 d^{z}i로 轉寫되어 있을뿐 아니라, 國語添記에도 거의 대부분이 '지, 치'로 나타난다. '견디-, 티-, 티료'와 같은 數三例에 본래의 '디, 티'가 維持된 경우도 있지만, 그에 대한 轉寫는 '지, 치'와 差異를 보이지 않는다. 본래부터의 '지, 치'는 말할 필요

도 없이 t^si로 轉寫되어 있다.

(35) a. t^si'abu'imaruru 지아븨 (말을)(26)
t^siburu 집을(79)
t^siQtoni 짓더니(115)
t^sikukuhatoni (至極ᄒᆞ더니)(17)
t^siɴhakiwe (盡ᄒᆞ기에)(29)
t^siɴso (進士)(32)
t^sikupunu'i 직분<職分>의(49)
purut^{s}it^{s}ini 브ᄅᆞ지지니(43)
'it^{s}iɴguwaɴ (頤眞觀)(55)
b. t^si'ureniwa 치으려(니와)(18)
t^sini 친<親>히(84)
t^siɴmunuru 진[72]문<寢門>을(68)
t^simuseku'i (枕席의)(80)

日本語 音韻史에 의하면 高母音 앞에 配分되는 t, d는 母音環境에 따라 ti>tʃi, di>dʒi, tu>tsu, du>dzu와 같이 口蓋音化하거나 破擦音化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時期는 16세기 중엽(森田武 1977 : 263-264), 아니면 16세기 말엽(外山映次 1972 : 192-193)으로 推定되고 있다. 따라서 國語 본래의 '디, 티'와 같은 音節이 雨森芳洲에 의하여 '지, 치'로 認識되었고, 그것이 倭文字 t^si, d^zi로 轉寫되어, 본래의 '지, 치'에 대한 轉寫와 差異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단 ㄷ 口蓋音化를 暗示하고 있는 것으로 理解된다.

國語의 '뎌, 텨, 톄, 뎨'와 같이 그 音節主音이 ㅓ로 이루어진 二重母音 또는 三重母音 音節은 그 構造上 倭文字 하나로 轉寫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雨森芳洲는 이들 音節을 轉寫하기 위하여 te를 나타내는 倭文字에 三點의 補助記號를 베풀어 利用하고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本硏究에서는 이 特殊音節 表記를 tse로 轉字하고 있으나, 본래의 '뎌, 텨, 톄, 뎨'가 「全一道人」에 언제나 tse로만 轉寫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語頭

---

72) '진'은 '침'의 잘못이다. (25)a② 참조.

位置에서는 이들이 tse로 轉寫되어 있지만, 非語頭位置에서는 t^{s}iya, d^{z}iya 또는 t^{s}iyo, d^{z}iyo로 轉寫되어 있는데, 그 윤곽에 대해서는 이미 (8)에 整理해 둔 바 있다. 그런데 이들 音節에 대한 國語添記는 거의 언제나 '져, 쳐, 졔, 쳬'로 나타난다.

(36) a. tse。tsosiki 져<彼>(ᄌ식이)(20), tse。hiroku[73] 져 (비록)(21)
tseru 절<寺>(61)
tsegumo 젹모<嫡母>(66)
tsemu'i 졈<店>의(61)
ᄭᅳᆫ허졋숩ᄂᆡ kunotseQsumuno'i(凡 3), kunot^{s}iyo ᄭᅳᆫ허져(72)
koNd^{z}iyona'inira 건져 (내니라)(78), koNd^{z}iya。na'it^{s}i'aniru-puni'anira 건뎌(내지 아닐 ᄲᅮᆫ이 아니라)(45)
huQtot^{s}iyo 흣터져(59)
posot^{s}iyo 버서져(60)
mori。powat^{s}iyo (머리) ᄇᆞ아져(123)
t^{s}i'abiruru。maQt^{s}iya (지아비를) 맛져<任>(88)

b. ma'iro。tse 매(로) 쳐(32), mo'i。tse (ᄆᆡ이) 쳐(103, 104), peragu。tse 벼락 쳐(52), peragu。tse 쳐(87)
tseku'i 쳑<滌>의(105)
tseNsegi 쳔셩<天性>이(26), hagutseni 황쳔<皇天>이(35), siyagutseni 샹쳔<上天>이(46)
haNtsemu 훈텸<一點>[74]
woku'i。kaQtset^{s}ukuko (獄의) 갓쳐 (죽고)(111)
siNnaNguru。^{su}ka'it^{s}iyo (싓)남글 ᄭᅢ쳐(75), ^{su}ka'it^{s}iya ᄭᅢ쳐(89)
kuQtset^{s}irahaNda'i 그쳐디라 (ᄒᆞᆫ대)(87)
^{su}kururoNmururo。kit^{s}ut^{s}iyo ᄉᆞᆲ는 (믈로) 깃쳐(74)

---

73) '비록'에 해당하는 形態素이므로 hiroku의 hi에 濁音記號가 加해졌더라면 bi가 되었을 곳이다.

74) 安田章(1964 : 37)은 이 때의 '텸'을 '뎜'의 잘못으로 보고 있으나, 그렇다고 斷定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훈텸'의 '텸'이 漢字形態素 '點'이라고 본다면 그 개별적인 音讀은 당연히 '뎜'이었겠지만, 現代國語에 '고기 한첨'과 같은 慣用句가 쓰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훈텸'의 存在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puQtse 븟텨(36, 38)

(37) a. haguze'i 황제<皇帝>(50), 'aNtse'i <安帝>(101)
heguze'i <兄弟>(85)

b. morononoNtse。hakiruru (모ᄅᆞ는) 쳬 (ᄒᆞ기ᄅᆞᆯ)(52), 'at^simoQha-noNtsehoko (아지 못ᄒᆞ는) 쳬 (ᄒᆞ고)(51)

본래의 '뎌, 텨, 뎨, 톄' 대부분이 이처럼 '져, 쳐, 졔, 쳬'로 表記되었으나 (36)a의 '건뎌', (36)b의 'ᄒᆞᆫ텹, 븟텨'처럼 '뎌, 텨'가 表記에 維持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語頭位置에서 tse로 轉寫되어 있다. 非語頭位置에서는 (36)a의 'ᄉᆞᆫ허졋습ᄂᆡ', (36)b의 '갓쳐, 그쳐디라, 븟텨', (37)b의 '(모ᄅᆞ는) 쳬'에 나타나는 '져, 쳐, 텨, 쳬'가 tse로 轉寫되어 있으나, (36)a의 '건져, 건뎌, ᄉᆞᆫ허져, 훗터져, 버서져, ᄇᆞ아져, 맛져', (36)b의 '쌔쳐, 깃쳐'에 나타나는 '져, 뎌, 쳐'는 t^siyo, d^ziyo 또는 t^siya, d^ziya로 轉寫되어 있다. 'ᄉᆞᆫ허졋습ᄂᆡ'의 '졋'에 해당하는 音節이 tseQ으로, 'ᄉᆞᆫ허져'의 '져'에 해당하는 音節이 t^siyo로 轉寫되었다는 사실은 같은 '져'에 대한 轉寫가 tse, t^siyo 어느 쪽으로도 代置될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더구나 (37)a의 '졔(帝)'는 ze'i로 轉寫되어 있는데, 國語添記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같은 漢字形態素 '帝'가 'aNtse'i(安帝)처럼 tse'i로도 轉寫되어 있고, 그밖에도 '兄弟'의 '弟'가 ze'i로 轉寫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본래의 '뎌, 텨, 뎨, 톄'가 대부분 '져, 쳐, 졔, 쳬'로 表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轉寫로서 tse와 t^siyo, d^ziyo, t^siya, d^ziya가 서로 代置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全一道人」의 tse가 ㄷ 口蓋音化를 나타내기 위한 轉寫였음을 알려 준다. 뿐만 아니라 '帝'가 tse'i, ze'i 두가지로, '弟'가 ze'i로 轉寫되어 있다. 이렇게 tse와 ze가 서로 代置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면, 이는 곧 '뎨>졔'와 같은 口蓋音化를 그 原因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뎌, 텨, 뎨, 톄'와 區別되어 온 '져, 쳐, 졔, (쳬)'가 다같이 tse로 轉寫되어 있다는 점도 tse가 ㄷ 口蓋音化를 反映하고 있다는 根據가 될 수 있다. 轉寫와 國語添記를 함께 가지고 있는 본래의 '뎌, 텨, 뎨, 톄'에 대해서는 (36)과 (37)에 대략 整理되었으므로, 여기서는 國語添記를 가지고 있

지 않은 나머지 實例 약간과 본래의 '져, 쳐, 졔'에 대한 轉寫를 比較해 보기로 한다.

(38) a. tsenuru。 t^s^iyo (傳을 지어)(84)
tseguhamuN (定흠은)(49)
togutsegi (同庭이)(76)
b. tseniyoku'i 져녁의(123)
tsemosiya 져머셔(76)
tsezo'ikoriwe 져지거리(에)(81)
tsed^z^uro^bu^so 졋으로(뼈)(23)
t^s^itseku'imiyo 지져괴(며)(118), t^s^id^z^iyoku'imiyo 지져괴(며)(116)
tseNsi 젼시<錢氏>(54), koguzenuru 공젼<工錢>을(78)
t^s^iyoguzeki (蹤跡이)(90)
sogusizeru'i (宋時節의)(26, 35, 38, 41, 44, 47, 50, 54, 60, 62, 67, 110)
tseNtse 젼쳐<前妻>(19)
tserusohanira (絕祀흐니라)(87)
tseguhaNt^s^ibu (精흔 집)(115)
tsegumuN (旌門)(25)
tseguru 졍<情>을(104)
nitsegi (里)졍<正>이(58)
potseNhakiruru (保全흐기를)(55)
'atseni 아젼<衙前>이(112)
ta'itsebuhakiruru (對接흐기를)(19)
c. huQtse 후쳐<後妻>(19)
kegutseni 경젼[75]<輕賤>히(122)
nimutsenuro (臨川으로)(93)
tsebu'i 쳡<妾>의(49)
nemutseguhakiro 념졍[76]<廉淸>(흐기로)(113)
tsegukoNda'i 쳥<請>(컨대)(48)

75) '젼'은 '쳔'의 잘못이다. (25)a② 참조.
76) '졍'은 '쳥'의 잘못이다. (25)a② 참조.

d. tse'imurukuwa 제믈<祭物>과(84)
tsewot^{s}ut^{s}imoQhatora 제어<制御>치 (못ᄒᆞ더라)(103)
t^{s}iyota'irahanoNsaramuN 제태<褚太>(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44)

이 앞의 (36)과 (37)에 의하면 본래의 '뎌, 텨, 뎨, 톄'가 원칙적으로 tse로 轉寫되어 있지만, '뎌, 텨'는 경우에 따라 t^{s}iyo, d^{z}iyo, t^{s}iya, d^{s}iya로 轉寫되는 수도 있었다. 특히 '뎨'는 tse'i와 동시에 ze'i로도 轉寫되었다. (38)a에는 國語添記를 가지지 않은 '뎐'(傳), '뎡'(定, 庭)의 '뎌'가 tse로 轉寫된 경우를 다시 追加해 두었다. (38)b, c, d에 의하면 본래부터의 '져, 쳐, 졔'가 본래의 '뎌, 텨, 뎨'와 다름없이 tse로 轉寫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8)b의 '지져괴-'처럼 본래의 '져'가 한번은 tse로, 또 한번은 d^{z}iyo로 轉寫되어 있는 수도 있으며, '젼'(錢)의 '져'처럼 한번은 tse로, 또 한번은 ze로 轉寫되어 있는 수도 있다. 그리고 '젹'(跡)과 '시졀'(時節)의 '져'는 ze로 나타난다. (38)d는 '졔'가 tse'i 또는 tse로 轉寫되어 있음을 보이지만 '褚太'의 '졔'(褚)만은 t^{s}iyo로도 나타난다. 國語添記는 없으나 '褚太'가 t^{s}iyota'i(45), t^{s}iyota'i(45, 46)처럼 t^{s}iyo로도 나타난다. 이처럼 본래의 '져, 쳐, 졔'에 대한 轉寫가 본래의 '뎌, 텨, 뎨'에 대한 轉寫와 共通性을 보인다는 사실은 '뎌, 텨, 뎨' 등의 ㄷ가 口蓋音化한 ㅈ로 實現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래의 '댜, 됴, 듀'도 轉寫에서는 각기 본래의 '쟈(챠), 죠, 쥬'와 差異를 보이지 않는다.

(39) a. t^{s}iyagusoNpu'ini (長孫夫人이)(24)
t^{s}iyaguminirahanoNsarami (張民이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38)
b. t^{s}iyagutsoQ^{pu}so 쟝ᄎᆞᆺ<將次> (뻐)(21)
sot^{s}iyaruru (使者를)(115)
kuQt^{s}iyahaNgosuru (苟且ᄒᆞᆫ 거ᄉᆞᆯ)(113)

(40) a. 됴흔(凡 3), t^{s}iyoha'anihanira (됴ᄒᆞ아니 ᄒᆞ니라)(70)
t^{s}iyoseku (朝夕)(99)
kumubogud^{z}iyora。hanoNsa'iruru (金鳳鳥라ᄒᆞᄂᆞᆫ 새를)(72)

b. t^siyoguzeku'i (蹤跡이)(90)
t^siyogus^{i}nu'i (終身의)(113)

(41) a. t^siyuyaruru (晝夜를)(68)
t^siyukutoguru (竹筒을)(36)
tot^{s}iyugu'isiya (途中)의셔(48)
t^siyugumo'iruru 듕미<仲媒>(를)(65)
pegit^{s}iyuguhaya (病이 重ᄒᆞ야)(24)
b. t^siyu'ini (主人이)(78)
t^siyusizeru'i (周時節의)(17)
t^siyuse'irahanoNsarami 쥬셔<朱緖>(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33)
t^siyuku'i (粥의)(54)
t^siyuni (駿이)(70)

이로써 漢字形態素에 주로 나타나는 본래의 '댜'와 '쟈(챠)'가 다같이 t^siya로, 본래의 '됴'와 '죠'가 다같이 t^siyo로, 본래의 '듀'와 '쥬'가 다같이 t^siyu로 轉寫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9)a의 '長, 張'은 본래 '댱', (39)b의 '將'은 '쟝', '者'는 '쟈', '且'는 '챠'였고, (40)a의 '朝, 鳥'는 본래 '됴', '蹤, 終'은 '죵'이었으며, (41)a의 '晝'는 본래 '듀', '竹'은 '듁', '中, 仲, 重'은 '듕'이었으며, (41)b의 '主, 周, 朱'는 본래 '쥬', '粥'은 '쥭', '駿'은 '쥰'이었다.[77] 지금까지의 결과를 다시 한번 整理해 보면 「全一道人」의 轉寫와 國語添記는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要約될 수 있다.

(42) a. 디=지, 티=치 : t^si(d^zi)
b. 댜=쟈(챠) : t^siya
c. 뎌=져, 텨=쳐 : tse t^siyo(d^ziyo), t^siya(d^ziya), (ze)
뎨=졔, 톄=쳬 : tse t^siyo, tse'i(ze'i)
d. 됴=죠 : t^siyo

77) 이밖에도 姓氏에 쓰이는 '鄭'이 tsegigiyunirahanoNsarami 졍균<鄭均>(이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112), '趙'가 t^siyosirahanoNke'it^{s}ibi (趙氏라ᄒᆞᄂᆞᆫ) 겨집이(47)처럼 나타나는데, 이 때의 '鄭'은 文獻에 따라 '뎡, 졍', '趙'는 '됴, 죠' 양쪽으로 쓰인 바 있어, 어느 쪽이 본래의 音讀인지 判斷하기 어려우나, ㄷ ㅁ蓋音化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實例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e. 듀=쥬 : t^siyu

이로써 「全一道人」의 轉寫에 나타나는 特殊表記 tse는 '뎌, 텨, 뎨, 톄'의 口蓋音化를 反映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될 수 있다. 「全一道人」의 國語添記가 일반적으로 發話現實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傳統的 表記慣習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티), 댜, 뎌(텨, 뎨), 됴, 듀'의 대부분을 雨森芳洲가 '지(치), 쟈, 져(쳐, 졔), 죠, 쥬'로 表記하게 된 것도 ㄷ>ㅈ 口蓋音化가 당시에 普遍的인 發話現實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3.3. 「全一道人」의 ㄷ 口蓋音化 (2)

「全一道人」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形態音韻論的 交替에 대한 轉寫는 ㅌ 口蓋音化를 暗示하고 있다.

(43) a. haɴgarukaqtoni (ᄒᆞᆫᄀᆞᆯᄀᆞᆺ더니)(22)
ka'ikaqtaɴ 개ᄀᆞᆺᄐᆞᆫ(74)
b. haɴgarukaqt^si (ᄒᆞᆫᄀᆞᆯᄀᆞᆺ치)(19)
tsosiku。 kaqt^si (ᄌᆞ식ᄀᆞᆺ치)(32)

國語添記가 (43)b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ᄀᆞᇀ-'이란 形態素의 末音 ㅌ가 派生副詞 語尾 '-이'와 結合되어 '티'가 될 때에는 t^si로 轉寫되어 있는데, 이것은 形態素 境界를 사이에 두고 ㅌ와 ㅣ가 結合될 때에도 口蓋音化가 나타났음을 보여 주는 實例이다.

「全一道人」에는 ㄷ 口蓋音化를 前提로 하는 心理的 過剩修正, 즉 類推로서, 본래의 ㅈ가 ㄷ로 表記된 경우도 나타난다.

(44) a. kuqtset^{s}irahaɴda'i 그쳐디라 (ᄒᆞᆫ대)(87)
b. t^siyoseruru 됴셔<詔書>(를)(25)
t^siyokomu 됴곰(27), t^siyokomaɴ 됴고만(102)
kubut^{s}iyokut^{s}imoqhaya 급둑<及足>지 (못ᄒᆞ야)(85)

여기에 나타나는 '그쳐디라'의 '디'는 본래 '지'였고, '됴셔'의 '됴'도

본래 '죠'(詔)였으며, '됴곰, 됴고만'의 '됴'는 '죠', '급두'의 '두'은 '족'(足)이었던 것들이다. 이러한 過剩修正은 18세기를 전후로 한 國語文獻, 例컨대 다음에 檢討하게 될 「譯語類解」(1690)나 「伍倫全備諺解」(1721)에도 나타나는 現象으로서, ㄷ 口蓋音化가 당시에 매우 生産的이었음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過剩修正의 實例까지를 勘案할 때 「全一道人」에 反映되어 있는 ㄷ 口蓋音化는 당시 中央方言의 發話現實과 差異가 없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3.4. 18세기 초엽의 ㄷ 口蓋音化

「全一道人」에 나타나는 口蓋音化가 당시 中央方言의 現實이란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時期的으로 앞서는 文獻에서 ㄷ 口蓋音化에 대한 證據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러한 文獻의 하나로 「伍倫全備諺解」(1721)를 들 수가 있다. 여기에는 ㄷ 口蓋音化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報告된 바도 있으나(田光鉉 1978),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數三의 實例가 나타난다.

(45) a. 이즈러지디 아니ᄒᆞ야(四 18b)
  ᄰᅳᆫ허지디 아니ᄒᆞ야(四 21b)
 b. 옴기지 못ᄒᆞᆫ다 ᄒᆞᄂᆞ니(三 27a)
 c. 혓긋치 무듸여(一 25b)
 d. 진짓 이 一場春夢이로소이다(五 40b)

우선 (45)a '이즈러지-, ᄰᅳᆫ허지-'는 中世國語 '이저디-'(「釋譜詳節」九 6a), '그처디-'(「月印釋譜」 二 74b)로 볼 때, '디->지-'와 같은 ㄷ 口蓋音化를 겪은 것들이다. (45)b '옴기지'의 '-지'는 否定副詞化 語尾 '-디'의 口蓋音化形이며, (45)c는 '긑'의 末音 ㅌ가 主格 語尾 '-이'와 結合될 때 口蓋音化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女四書諺解」(1736)의 '뜯+이리오→ᄯᅳ지리오'처럼 形態素 境界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形態音韻論的 交替로서 注目되는 實例인데, 「伍倫全備諺解」는 그러한 共時的 音韻現象이 18세기의 20년대 이전에도 存在하고 있었음을 밝혀 준다. 다만 '긑+이→긋치'가 ㅌ 口蓋音化를 나타내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여기에는 '그치-'(終)와 같은

形態素에 의한 心理的 類推가 함께 作用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45)d는 이미 中世國語에 '진딧, 진짓' 두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劉昌惇 1961 : 119), 그것이 과연 ㄷ 口蓋音化에 包含될 수 있을 지는 疑心스럽다.[78]

불과 몇가지 實例에 지나지 않으나 「伍倫全備諺解」는 ㄷ 口蓋音化에 대한 값있는 證據를 보이고 있다. 「伍倫全備諺解」는 對話體로 이루어진 文獻이지만, 終結語尾를 除外하면 音韻論的으로는 表記에 강한 保守性을 띠고 있다. 이러한 文獻에 數三例일망정 ㄷ 口蓋音化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 「伍倫全備諺解」의 口蓋音化가 18세기 20년대 이전의 實狀이라는 또 다른 根據는 본래의 ㅈ가 ㄷ로 表記되는 過剩修正의 實例로 再確認 된다.

(46) a. 즁<和尙>(一 7^{b})	b. 듕(一 9^{b})
짐<賴>(二 4^{a})	딤(一 52^{a})
가져시면<持>(六 21^{a})	가디면(一 23^{a})
ᄆᆞᄅᆞ치쇼셔<教>(一 25^{b})	ᄆᆞᄅᆞ틸ᄯᅵ니(五 17^{b})
ᄆᆞᄅᆞ츠니<替>(六 6^{a})	ᄆᆞᆽ티 아니코(四 4^{b})
맛치디<中>(一 17^{b})	맛티디(三 4^{b})
안치라<坐>(二 4^{a})	안티라(七 14^{b})
닙고져 ᄒᆞ여도(一 38^{a})	기ᄃᆞ리고뎌 홈이로다(五 38^{b})

口蓋音化의 實例가 數三에 지나지 않음에 반하여, (46)b와 같은 類推的 過剩修正의 實例는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본래의 '즁, 짐, 가지-, ᄆᆞᄅᆞ치-, ᄆᆞᆾ-, 맛치-, 안치-, -고져'가 각기 '듕, 딤, 가디-, ᄆᆞᄅᆞ티-, ᄆᆞᆽ티-, 맛티-, 안티-, -고뎌'로 表記된 것은 실제의 發話現實과는 관계가 없다. 「女四書諺解」(1736)에 이와 같은 類型의 表記로서 '네가지, 그치-, 아쳐'에 대한 '네가디, 긋티-, 아텨'가 나타나 있음을 (30)a에서 指摘한 바 있거니와, 이 때의 ㅈ에 대한 ㄷ 表記는 ㄷ 口蓋音化로 인한 心理的 葛藤이 過剩修正을 誘發한 結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類推的 過剩修正은 表記에만 나타나는 現象일 뿐, 실제의 發話現實은 아니었겠지만, 그러한 表記가 文獻에 나타날 수 있었던 背景에는 ㄷ 口蓋音化가 存在했기 때문이라고 解釋할 수밖

78) '진딧'은 近代中國語 '眞的'의 借用語로 보인다(劉昌惇 1971 : 375).

에 없다. 따라서 「伍倫全備諺解」의 (46)a에 대한 (46)b와 같은 過剩修正 表記는 18세기의 20년대 이전에 ㄷ 口蓋音化가 분명히 存在했음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根據가 아닐 수 없다.

4. ㄷ 口蓋音化의 過程

4.1. 17세기 말엽의 ㄷ 口蓋音化

현재로서는 18세기 초엽의 文獻이 零星하여 이 이상의 實證的 檢討가 어려우나, 中央方言의 ㄷ 口蓋音化는 앞에서 이미 論議한 바와 같이 17세기 말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譯語類解」(1690)는 그러한 實例를 보여 주고 있다.

(47) a. 打背公 곡뒤 치다(下 49b)
使黑心 숨 꿏치다(下 49b)
b. 醃魚 즈틴 고기(下 38b)
誰贏誰輸 뉘 이긔며 뉘 디뇨(下 53a)
絆了 디달 쓰다(下 34a)
撚釘打 칙에 됴히심 박다(下 50b)

이들 중 (47)a의 '숨꿏치다', b의 '됴히'를 除外한 나머지 實例들은 李明奎(1974 : 66)에 의하여 論議된 바 있는 것들이다. (47)a는 ㅌ 口蓋音化, b는 過剩修正에 의하여 ㅈ가 ㄷ로 表記된 實例들이다. 우선 (47)a '곡뒤치다'의 '치-'는 '티-'가 口蓋音化를 겪은 것이다. '숨꿏치다'는 약간의 不透明性을 띠고 있다. 그 意味는 '심술궂다'인데, 그것이 '숨+굳+히+다'와 같은 構成인지, '숨+궂+히+다'와 같은 構成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前者와 같은 形態素 結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굳-'의 末音 ㄷ가 形態素 境界 뒤에 나타나는 ㅎ와 融合되어 ㅌ가 되면서, 그것이 口蓋音化하여 '치'가 된 것이겠지만, 後者와 같은 形態素 結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궂-'의 末音은 ㅈ이기 때문에 그것이 形態素 境界 뒤에 나타나는 ㅎ와 融合되어 ㅊ가 되었을 테니까 口蓋音化와는 관계가 없다.

한편 (47)b 'ᄌᆞᄐᆡᆫ'의 '티-'와 '디뇨'의 '디-'는 각기 '치-, 지-'였던 것들이며, '디달, 됴히'는 각기 '지달, 죠히'였던 것들이므로, 이들은 心理的 類推에 의하여 본래의 ㅈ가 ㄷ로 表記된 實例들이다. 「譯語類解」에 이처럼 ㄷ 口蓋音化와, 그로 인한 過剩修正으로서의 ㅈ에 대한 ㄷ 表記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ㄷ 口蓋音化가 17세기 말엽에도 存在했음을 알려 준다. 더구나 ㄷ 口蓋音化는 非口蓋音 c였던 ㅈ가 č로 口蓋音化한 이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音韻變化인데, 「譯語類解」는 ㅈ 口蓋音化를 示唆하는 '자, 저, 조, 주'와 '쟈, 져, 죠, 쥬'의 相互混亂까지 보여준다(李基文 1972b : 198). 이로써 ㄷ 口蓋音化는 최소한 17세기 말엽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文獻上으로 確認할 수가 있다. 따라서 「全一道人」에 나타나는 ㄷ 口蓋音化가 당시 中央方言의 現實이었다 하더라도 無理한 結論은 아닐 것이다.

4.2. ㄷ 口蓋音化의 過程

文獻을 통해서 지금까지 實證的으로 論議해 온 ㄷ 口蓋音化의 通時的 過程을 다시 한번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隨意的 變異로서의 ㄷ 口蓋音化는 16세기 말엽부터 그 偶發的 發端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發端 理由로서는 口蓋化 位置에서 破擦音이 破裂音보다 더 自然스럽다(덜 有標的 <marked>이다)는 一般音聲學的 根據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時期에 ㄷ가 共時的으로 異音的 交替를 시작한 것은 그보다 앞서는 時期, 곧 15세기에 非口蓋音이었던 ㅈ, 곧 c가 口蓋化 環境에서 이미 č와 같은 口蓋性 變異音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音聲的 環境으로는 口蓋性 轉移音 y 앞에 配分되는 ㄷ가 ㅣ 앞의 ㄷ보다 먼저 隨意的 變異를 일으켜 口蓋化音 č로 實現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口蓋音化의 경우 y의 同化力이 ㅣ의 그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强力하다는 音聲學的 普遍性으로 說明될 수 있다. 文獻上으로도 ㄷ 口蓋音化는 tyV와 같은 音節構造로 이루어진 語彙形態素 '됴-'(好)에서 먼저 確認된다. 그 實例로서 「小學諺解」(1587)와 「東醫寶鑑」 湯液篇(1613)에 연속적으로 '죻-'가 나타난다. 이 形態素에 口蓋音化가 먼저 나타나게 된 것은 그 頻度數가 높아서

오히려 偶發的 變異를 일으키기 쉬웠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17세기 말엽에 이르기까지 隨意的 變異에 머물렀던 ㄷ 口蓋音化는 점차 音聲規則으로 굳어지면서, tyV는 물론 '디'와 같은 音節을 包含하고 있는 다른 形態素로 擴散되어 갔겠지만, 그 確實한 實例가 文獻에 나타나는 것은 17세기의 90년대 전후 부터이다. 「譯語類解」(1690)에는 '티-(打)>치-'와 같은 口蓋音化 이외에도 'ᄀᆞ치-(加鹽)→ᄀᆞ티-, 지-(負)→디-, 지달(絆)→디달, 죠히(紙)→됴히'와 같은 心理的 過剩修正에 의한 ㅈ(ㅊ)의 ㄷ(ㅌ)表記가 나타난다. 이러한 類推的 表記는 그것이 비록 發話現實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話者의 文法知識에 ㄷ 口蓋音化가 擴散되어, 心理的 葛藤을 일으키고 있었음을 알려 주는 現象으로서 注目된다. 이로써 17세기 말엽의 文法에는 ㄷ 口蓋音化가 共時的, 隨意的 變異로서 분명히 存在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다만 表記의 保守性을 勘案하더라도, 이 때까지의 ㄷ 口蓋音化는 話者의 文法知識에 全面的인 變化를 가져올만한 段階에 이르지 않아서, 散發的 實現에 머물렀다. ㄷ 口蓋音化는 語彙的으로도 별로 擴散되지 않아서 일부의 形態素에 나타날 뿐이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ㄷ 口蓋音化는 漸進的으로 여러 形態素에 擴散된다. 表記의 保守性 때문에, 그 實例가 文獻에 露出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伍倫全備諺解」(1720)에는 '이즈러디->이즈러지-, ᄉᆞᆫ허디->ᄉᆞᆫ허지-, 옴기디->옴기지-, 혓긑이>혓긋치'와 같은 變化가 나타난다. 이들은 語彙形態素나, 否定副詞化 語尾 '-디'와 같은 形態素 內部에서 口蓋音化가 實現되었을 뿐 아니라, '긑+이→긎이'와 같은 形態音韻論的 口蓋音化도 共時的으로 存在하고 있었음을 確認시켜 준다. 한편 「伍倫全備諺解」에는 '즁(和尙)→듕, 가지-→가디-, ᄆᆞᄅᆞ치-→ᄆᆞᄅᆞ티-, 안치-→안티-'와 같은 心理的 類推에 의한 ㅈ의 ㄷ 表記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ㄷ 口蓋音化 實例보다도 본래의 ㅈ에 대한 ㄷ 表記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18세기의 20년대 이전에 이미 話者의 文法知識에 ㄷ 口蓋音化가 더욱 擴散되어 있었음을 알려 준다.

「全一道人」(1729)의 倭文字에 의한 轉寫와 그에 대한 國語添記는 形態素 內部의 ㄷ 口蓋音化가 이미 通時的 變化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全一道人」

에는 中央方言이 反映되어 있는 것으로 判斷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ㄷ ㅁ蓋音化 역시 中央方言의 現實이었을 것으로 理解된다. 이로써 形態素內部의 ㄷ ㅁ蓋音化는 18세기 20년대 전후에 이미 通時的 變化로 굳어졌고, 形態素境界에서는 共時的으로 形態音韻論的 交替를 일으키는 ㄷ ㅁ蓋音化 規則이 文法에 追加되기에 이르렀다.

18세기의 30년대부터는 通時的 變化를 거친 實例들이 語頭와 非語頭, 文法形態素와 漢字形態素에 널리 擴散되었다. 「女四書諺解」(1736)의 두번 째 序文에서 그 事實이 確認된다. 두번 째 序文은 (11)b에 例示된 바와 같이 ㅁ蓋化 環境에 나타났던 ㄷ, ㅌ, ㅆ 중, ㅆ 한 번을 除外하고는 모두가 ㅈ, ㅊ로 表記되어 있어, ㄷ ㅁ蓋音化가 全面的으로 擴散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ㄷ ㅁ蓋音化는 音聲的으로는 偶發的, 語彙的으로는 漸進的(phonetically abrupt, lexically gradual) (Wang 1969)인 變化過程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隨意的 變異, 音聲規則化, 音韻變化와 같은 段階的 過程을 거치면서, 通時的 變化로 굳어지기까지는 一世紀 이상의 期間이 所要되었다.

Ⅳ. 、非音韻化

1. 、非音韻化의 發端

1.1. 、非音韻化의 槪念

中世國語의 母音體系에 대한 通時的 再構過程에서 가장 큰 관심을 獨占한 母音은「訓民正音」解例에 '舌縮而聲深'으로 記述된 바 있는 、였다. 이 母音의 一動一靜은 그 時代의 母音體系에 直結되는 것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音韻史的 관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母音 、의 非音韻化(dephonologization)는 非語頭音節 環境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그 時期는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6세기에는 이 母音이 非語頭音節의 特定한 音聲的 環境에 나타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 대부분이 ㅡ에 合流(merge)되었다(李基文 1959). 表記上으로는 、가 語彙形態素의 非語頭音節에서 오랫동안 維持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ㅡ와 共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形態素에 나타나는 、는 이미 非音韻化한 것으로 解釋될 수 있다. 그 結果 16세기부터는 母音 、가 거의 第一音節에서만 維持되기에 이르렀다. 이 母音은 본래부터 語彙形態素의 語頭位置에 나타나는 적이 없는 독특한 配分的 制約(distributional constraint)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다시 音節位置的 制約이 追加된 것이다.

母音 、의 非音韻化에 대해서는 消失이란 名稱이 주로 使用되어 왔다. 그리하여 非語頭音節에서의 非音韻化는 第一段階 消失, 第一音節에서의 非音韻化는 第二段階 消失로 區分되었다. 이러한 區分은 、非音韻化를 通時的 過程別로 記述하는 데에는 편리한 方法이지만, 非音韻化란 본래 音韻體系의 變化로 어떤 音韻이 그 體系內의 範例的 目錄(paradigmatic inventory)에서 완전히 削除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消失이란 名稱으로 非音韻化를 다루

기에는 未盡한 감이 있다(宋敏 1974 : 1). 本硏究에서는 ㆍ 非音韻化란 術語를 音韻目錄으로부터의 消滅이란 槪念으로 使用한다. 자연히 그 主對象은 第一音韻에 남아 있던 ㆍ가 되며, 16세기 이후에도 ㅡ에 合流되지 않고 남아 있던 일부 非語頭音節의 ㆍ 또한 여기에 包含된다.

1.2. ㆍ 非音韻化의 發端的 實例 檢討

第一音節에 주로 維持되어온 ㆍ는 이미 16세기 말엽부터 非音韻化하기 시작하였다. 그 先頭走者가 'ᄒᆞᆰ'(土)인데, 이 語彙形態素는 「小學諺解」(1587)에 '흙'으로 나타난다(李基文 1960). '흙'은 그후 17세기를 거치는 동안 「諺解痘瘡集要」(1608), 「諺解胎産集要」(1608), 「東國新續三綱行實」(1617), 「家禮諺解」(1632), 「新刊救荒撮要」(1686), 「譯語類解」(1690)에서도 確認된 바 있다(田光鉉 1967 : 83, 李崇寧 1977 : 126-128).

第一音節의 ㆍ는 原則的으로 ㅏ로 變했음에도 불구하고 'ᄒᆞᆰ>흙'만은 ㆍ>ㅡ와 같은 變化를 보인다. 이러한 例外的 變化는 그 原因이 音節位置에 있는 것이 아니라, 變化時期에 있는 것으로 解釋된 바 있다(金完鎭 1963, 1971: 27). 즉 非語頭音節의 ㆍ가 ㅡ에 合流된 16세기의 變化에 휩쓸린 ㆍ는 그것이 第一音節에 나타나는 것일지라도 'ᄒᆞᆰ>흙'처럼 ㅡ로 變했지만, 第一音節의 ㆍ가 ㅏ에 合流하기 시작한 17세기 이후의 變化에 뒤늦게 따라붙은 ㆍ는 그것이 非語頭音節에 나타나는 것일지라도 'ᄇᆞᄅᆞᆷ(風)>ᄇᆞ람, 사ᄅᆞᆷ>사람, 다ᄆᆞᆫ>다만'처럼 ㅏ로 變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第一音節의 ㆍ가 이미 15세기부터 消失되기 시작했다는 見解가 일찌기 提起된 바도 있다(劉昌惇 1961 : 181-187, 1964 : 28-29). 그 實例가 「釋譜詳節」(1447)에 한 번씩 나타나는 'ᄎᆞ리-(析)>차리-, ᄂᆞ호-(分)>난호-'이다. 그러나 이들이 ㆍ 非音韻化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ㆍ>ㅏ와 같은 變化를 겪게 된 理由가 合理的으로 說明되지 않는다. 15세기의 ㆍ는 文法的으로 ㅡ와 對立을 보인 母音이었으므로, ㆍ가 變化를 입는다면 ㅡ로 中和되는 것이 自然스러운 結果가 된다. 실제로 非語頭音節의 ㆍ는 물론 16세기 말엽의 'ᄒᆞᆰ>흙'에서처럼 第一音節의 ㆍ도 그러한 中和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가 16세기 말엽까지 體系上 ㅡ와 中和的 對立關係를 어느정도나마 維持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때문에 15세기에 、가 ㅏ로 中和되었다면, 그 理由를 自然스럽게 說明할 수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第一音節의 、는 ㅎ나 ㄱ처럼 〔-鼻音性, -舌端性〕이란 音聲資質로 이루어진 子音 뒤에서 먼저 非音韻化하고 있다. '홁'이 、非音韻化의 先頭走者가 된 것도 그러한 理由로 解釋된다. 그러나 'ᄎᆞ리-'의 ㅊ, 'ᄂᆞ호-'의 ㄴ는 위의 두가지 資質條件을 同時에 滿足시키지 못하는 子音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形態素에는 그후 오랫동안 、가 維持되었다. 따라서 이들 形態素로 、非音韻化의 發端을 論議하는 데에는 無理가 따른다.

이와는 對照的인 또 하나의 實例로서 '가지-'(持)가 'ᄀᆞ지-'로 表記된 경우도 있다(劉昌惇 1961 : 184, 1964 : 28). 본래의 '가지-'란 語彙形態素가 「上院寺御牒」(1464), 「四法語」(1464), 「牧牛子修心訣」(1467)에 'ᄀᆞ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鼻音性, -舌端性〕資質로 이루어진 ㄱ 뒤에서 ㅏ가 、로 表記되었다는 사실은 、의 動搖에 의한 心理的 過剩修正, 곧 類推的 表記처럼 보여 注目되지만, 그러한 實例를 보여주는 文獻的 性格이 우선 疑心스러울 뿐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는 時期에도 問題가 있다. 따라서 그 原因은 '가지-(持)와 'ᄀᆞᆽ-'(備)의 意味的 類似性에 의한 心理的 混亂으로 여겨진다. 자연히 '가지-'에 대한 'ᄀᆞ지-' 表記 또한 、의 音韻論的 動搖를 나타내는 직접적 根據가 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79]

1.3. 、非音韻化의 發端時期와 條件

17세기까지의 文獻에서 調査된 바 있는 그밖의 事例를 다시 한번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80]

---

79) 이와 같은 類型의 實例로서 '손가락, 발가락'의 '가락'이 'ᄀᆞ락'으로 表記된 경우도 있다(劉昌惇 1961 : 185-186, 1964 : 29). 그러나 16세기 이후의 文獻에 나타나는 'ᄀᆞ락'의 、는 '손가락'의 '손'에 나타나는 ㅗ에 이끌린 결과가 그렇게 表記된 것으로 解釋된다. '밧ᄀᆞ락, 엄지ᄀᆞ락'의 'ᄀᆞ락'은 '손ᄀᆞ락'의 'ᄀᆞ락'이 다른 合成語로 擴散된 것이다. 실제로 現代國語에는 그러한 同化를 알리는 '손고락, 발고락'이 남아 있다.

80) 15~16세기에 대해서는 劉昌惇(1961 : 181-187), 17세기에 대해서는 田光鉉

(48) a. ① ᄆᆞᆰ-(淸)～말강-, ᄒᆡ-(白)～하양-, 허영-

② ᄇᆞᅀᆞ-(碎)～브ᅀᅳ-, ᄀᆞᄂᆞᆯ(陰)～그늘, ᄀᆞᆾ-(斷)～긏-

③ 듧-(穿)～ᄃᆞᆲ-, 흐르-(流)～ᄒᆞ르-

b. ① ᄒᆡ-(白)～희-, ᄉᆡ-(酸)～싀-, ᄎᆡᆨᄎᆡᆨᄒᆞ-(密)～츽츽ᄒᆞ-, ᄇᆡᆨ번(白礬)～븩번

② ᄭᆡ-(覺)～ᄭᅢ-

c. ① ᄃᆞ외-(爲)～도외-, ᄂᆞ외야(更)～노외야, ᄠᆞ로(殊)～ᄠᅩ로, ᄌᆞ올-(睡)～조올, ᄀᆞ외(袴)～고외, ᄀᆞ올(村)～고올, ᄒᆞ오자(獨)～하오자, ᄒᆞ올～호올

② -ᄃᆞ록～-도록, -ᄋᆞ로～-오로, -ᄅᆞ외다～-로외다, -ᄌᆞ와～-조와, ᄒᆞ와～호와(ᄒᆞᆸ-～홉-)

③ ᄉᆞ매(袖)～소매

d. ᄀᆞ마니(潛)～가마니, ᄒᆞ야디-(ᄒᆡ야디-)(毁)～하야디-(해여디-), ᄒᆞ야ᄇᆞ리-(ᄒᆡ야ᄇᆞ리-)(破)～하야ᄇᆞ리-(해야ᄇᆞ리-), ᄀᆞᅀᆡ(剪子)～가ᅀᆡ,

e. ᄐᆞᆨ(頤)～ᄐᆡᆨ

우선 (48)a는 ㆍ의 通時的 變化와 관련짓기 어려운 것들이다. 中世國語에는 ㆍ와 ㅡ, ㅏ와 ㅓ, ㅗ와 ㅜ의 對立에 의한 形態素의 共時的 分化가 生産的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a①의 'ᄆᆞᆰ-, ᄒᆡ-'에는 각기 '믉-, 희-'라는 語形이 共存했을 것이고, 이와는 따로 '말강-, 하양-'에는 '멀겅-, 허영-'가 共存했을 것이므로, '말강-, 하양-'를 각기 'ᄆᆞᆰ-, ᄒᆡ-'의 직접적 分化形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ㆍ>ㅏ와 같은 通時的 變化로 볼 수는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5세기에는 ㆍ>ㅏ와 같은 中和的 變化가 母音體系上 일어나기 어렵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a②는 15세기에 두가지 語形이 共存하는 實例들이므로 이를 通時的 變化로 解釋하는 것보다는 ㆍ와 ㅡ의 對立에 의한 音聲象徵的 分化로 解釋하는 편이 合理的일 것이다. a③의 'ᄃᆞᆲ-, ᄒᆞ르-' 역시 '듧-, 흐르-'에 대한 偶發的 分化로 보인다.

(48)b①에 나타나는 口蓋性 下降二重母音의 音節主音 ㆍ도 本質的으로는

(1967 : 82-84), 李崇寧(1977 : 122-134)에서 調査된 바 있는 實例들을 편의상 筆者가 再分類하여 提示하기로 한다.

a②와 같은 性格을 보이는 ㅡ와의 共存形들이다. b② 'ᄭᆡ-'(覺)에 대한 'ᄭᅢ-'는 音節主音에서 ㆍ>ㅏ의 變化를 보이는 것이라기보다, 意味上으로 類似한 'ᄣᅢ-'(破)와의 心理的 混亂이 아닌가 한다.

(48)c①은 ㆍ>ㅗ의 變化를 거친 것들이지만, 後行하는 ㅗ에 同化된 結果이므로, 이들은 ㆍ 非音韻化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c②는 依存形態素들이지만 c①과 같은 理由로 ㆍ>ㅗ의 變化를 보이는 것 들이다. c③의 'ᄉᆞ매>소매'는 특이한 變化를 보이는 實例이다. 이 때의 ㆍ가 ㅗ로 變한 理由를 後行하는 兩唇音 ㅁ 때문이라고 解釋하는 수도 있으나, 거기에는 未審한 점이 남아 있다. 非語頭音節이긴 하지만 '말ᄉᆞᆷ>말솜'도 같은 길을 걸었는데, 'ᄉᆞ매, 말ᄉᆞᆷ'의 ㆍ와 똑같은 音聲的 環境에 나타나는 'ᄉᆞᄆᆞᆾ-'(通), '사ᄉᆞᆷ', '가ᄉᆞᆷ' 등의 ㆍ는 왜 ㅗ로 變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ᄉᆞ매>소매'는 (48)c①이나 ②처럼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非語頭音節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ㆍ>ㅗ의 흐름에 휩쓸린 偶發的 變化로 보인다. 뒤에 가서 論議하겠지만 ㆍ는 〔-舌端性〕 子音下에서보다 〔+舌端性〕 子音下에서 오랫 동안 維持되었는데, 〔+舌端性〕 子音下의 ㆍ가 「全一道人」(1729)에서 대부분 o로 轉寫되어 있다는 점도 ㅅ 뒤에서 ㆍ>ㅗ의 變化가 불가능하지 않았음을 暗示하고 있다.

(48)e의 'ᄐᆞᆨ>퇵' 역시 특이한 變化를 보이는 실례로서, 「東國新續三綱行實」(1617)에 단 한 번 나타난다(李崇寧 1977 : 130). 그런데 'ᄐᆞᆨ'이 후대에 '턱'으로 굳어진 점을 勘案한다면, 'ᄐᆞᆨ'에 대한 '퇵'은 通時的 變化라기 보다 단순한 表記의 錯誤이거나 方言的要素일지도 모른다. 'ᄐᆞᆨ>턱'은 'ᄇᆞ리-(棄)>버리-, ᄇᆞᆯ(件)>벌, ᄇᆞᆯ셔>벌써' 등과 같은 길을 걸었는데, 이러한 變化가 文獻에 나타나는 時期는 18세기 말엽이기 때문이다. 가령 'ᄇᆞ리-'에 대한 '버리-'는 正祖年間의 綸音에서(田光鉉 1971 : 51), 'ᄇᆞᆯ'에 대한 '벌'은 「譯語類解補篇」(1775)이나 「倭語類解」에서 確認된다(宋敏 1975 : 19). 그런데 이 때의 ㆍ>ㅓ를 合理的으로 說明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ᄇᆞᆯ'은 '벌'로 變했는데, 그와 비슷한 語形을 보이는 '발ᄒᆞ'(臂)은 어째서 '팔'이 되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金完鎭 1974 : 133).

끝으로 (48)d가 남아 있다. 이를 뒤로 미루어 둔 것은 그들이 第一音節의 、非音韻化에 대한 發端的 實例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ᄀᆞ마니>가마니'는 「新增類合」(1576)에 이어 「東國新續三綱行實」(1617)에서 確認된 것이다. 「新增類合」에는 西南方言 要素가 包含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81], 「東國新續三綱行實」에도 方言的 要素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82], 이들 文獻에 나타나는 'ᄀᆞ마니>가마니'가 약간 疑心스럽기는 하나, 、非音韻化의 發端的 實例로 看做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ᄒᆞ야(ᄒᆡ야)디-' ᄒᆞ야(ᄒᆡ야)ᄇᆞ리-'와 같은 合成語에만 나타나는 'ᄒᆞ야(ᄒᆡ야)'의 語幹은 'ᄒᆞ-' 또는 'ᄒᆡ-'로 分析되는데, 이 形態素의 、도 17세기 중엽부터 非音韻化를 보이기 시작한다. 「捷解新語」의 'ᄯᅩ 大廳地衣도 놀가 다 하야뎌시니'(二 11b)로 그 사실을 確認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의 '하야'는 '해야'로 表記될 때가 많아서 「老乞大諺解」(1670), 「朴通事諺解」(1677)에는 대부분이 '해야'로 나타난다(田光鉉 1967: 82-83). 한편 'ᄀᆞ새>가ᄋᆡ'는 「譯語類解」(1690)에서 처음으로 確認된다.

이상과 같은 實例들은 우선 〔-鼻音性, -舌端性〕 子音部類下에서 、非音韻化가 먼저 시작되었음을 暗示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ᄒᆞᆰ>흙'도 같은 性格을 보인다. 그런데 16세기 말엽까지는 위와 같은 條件下에서 、>ㅡ와 、>ㅏ가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第一音節의 、가 ㅏ에 合流되기 시작한 時期가 16세기 말엽이었음을 示唆하고 있다. 그렇다면 〔-鼻音性, -舌端性〕 子音部類에 包含되는 또하나의 子音인 ㅂ 下에서도 、非音韻化에 대한 實例가 비슷한 時期에 나타나야 할텐데, 그러한 實例는 아직 確認되지 않고 있다. 다만 中世國語에서 'ᄲᅡᄒᆡ-'(拔)였던 語彙形態素가 16세기 말엽부터 'ᄲᅢ이-, ᄲᅢ-'로 나타나는 사실이 注目된다.

(49) a. 젹을 모도 ᄲᅡ여 먹디 말올 디니라<毋嚃炙>(「小學諺解」三 24a)
三公이 ᄲᅡ 쳔거ᄒᆞᄂᆞᆫ 배 이실제<三公有所選擧>(「小學諺解」六 101b)
광텰이 몸을 빼여 어미ᄂᆞᆯ 구ᄒᆞ다가(「東國新續三綱行實」孝子圖

81) 「新增類合」에 西南方言 要素가 反映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註 61 참조.
82) 「東國新續三綱行實」에 方言的 要素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註 63 참조.

八 5[b])

b. 믈읫 션ᄇᆡ ᄲᅧᆯ 法은<凡選士之法>(「小學諺解」 六 14[a])

너ᄂᆞᆫ 샹샹에 ᄲᅧ이ᄂᆞᆫ 관원이라(「朴通事諺解」 中 46[a])

이 때의 'ᄲᆡ이-, ᄲᆡ->ᄲᅧ이-, ᄲᅧ-'를 音韻變化로는 合理的으로 說明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逆行性 表記는 일종의 類推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兩唇無聲子音下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環境下의 ᆞ가 ㅎ나 ㄱ 뒤에서처럼 일찌기 非音韻化하여 〔a〕로 實現되는 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時期上으로는 나중이 되지만 「和漢」(1712), 「全一道人」(1729), 「朝物」(1750)과 같은 倭文字 轉寫資料에도 兩唇無聲子音下의 第一音節 ᆞ가 'ᄇᆞ아져'(碎) 一例를 除外하고는 모두 a로 轉寫되어 있다. 따라서 第一音節의 ᆞ非音韻化는 〔－鼻音性, －舌端性〕 子音部類下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리라고 解釋된다.[83] 이러한 資質로 이루어진 軟口蓋音 ㄱ 下에서도 같은 類型의 逆行性 表記가 17세기 중엽에 나타난다.

(50) a. ᄉᆞ나ᄒᆡ며 간나ᄒᆡ<男女>(「小學諺解」 五 2[b]), 올ᄒᆞᆫ 녁크로 머리 도ᄂᆞ니ᄂᆞᆫ 간나ᄒᆡ라<右回首是女>(「諺解胎產集要」 10[b])

b. ᄉᆞ나희 ᄀᆞ나희가(「朴通事諺解」 上 49[b]), ᄀᆞ나ᄒᆡ 어미<老鴇子>(「譯語類解」 下 50[b])

본래 第一音節 母音이 ㅏ였던 '간나ᄒᆡ'가 'ᄀᆞ나희'처럼 ᆞ로 表記될 수 있었던 것도 ㄱ 下에서의 ᆞ가 일찌기 非音韻化하여 〔a〕로 實現되었음을 보인다. 그러므로 「譯語類解」의 '가ᄋᆡ'는 ᆞ非音韻化의 實例임이 분명하다. 〔－鼻音性, －舌端性〕 子音部類에 이어 ᆞ非音韻化를 促進시킨 要因은 〔－鼻音性, ＋舌端性〕 子音部類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51) 寒酒 술ᄎᆞ다(「譯語類解」 上 59[a])

83) 이들을 일단 〔＋邊音性(grave)〕 資質로 묶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鼻音인 ㅁ도 이 部類에 包含되고 만다. 그러나 ᆞ非音韻化에 관한 한 ㅁ는 ㅎ, ㄱ, ㅂ와 自然部類(natural class)를 이루지 않는다. 다만 〔舌端性〕 資質을 〔邊音性〕 資質로 대신할 수는 있으나, 音聲的 容認可能性을 考慮하여 〔舌端性〕 資質을 택하기로 하였다. 〔邊音性〕에 대해서는 李秉根 교수의 助言에 깨달은 바 컸음을 밝혀 둔다.

이것은 17세기 말엽에 'ᄎᆞ->차-'를 보여 주는 實例로서 ㅊ 뒤에 配分되는 ㆍ가 ㅏ에 合流되었음을 보여 준다. 〔+舌端性〕 子音下에서보다 〔-舌端性〕 子音下에서 ㆍ 非音韻化가 먼저 實現되었으리라는 理由는 國語資料에서도 確認되지만, 「全一道人」에는 舌端摩擦音, 破擦音에 後行하는 ㆍ가 대부분 o로 轉寫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同一한 〔+舌端性〕 子音일지라도 破裂音에 後行하는 ㆍ의 대부분은 a로 轉寫되어 있어, 舌端破裂音이 舌端摩擦音이나 破擦音보다 ㆍ를 먼저 非音韻化시켰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論議하게 될 것이다.

1.4. ㆍ 非音韻化의 擴散

지금까지 論議해온 ㆍ 非音韻化의 發端過程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語彙形態素의 第一音節 ㆍ는 16세기 말엽부터 非音韻化하기 시작하였다. 그 過程을 살펴보면 〔-鼻音性〕 子音中 〔-舌端性〕 子音 뒤에서 ㆍ 非音韻化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舌端性〕 子音 뒤에 配分되는 ㆍ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16세기 말엽까지는 第一音節의 ㆍ가 'ᄒᆞᆰ>흙'에서처럼 ㅡ에 合流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ᄀᆞ마니>가마니'에서처럼 ㅏ에도 合流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第一音節의 ㆍ가 ㅏ에 合流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엽이었겠지만, 그 實例가 文獻에 나타나는 時期는 17세기 중엽부터이다. 'ᄒᆞ야(ᄒᆡ야)>하야(해야), ᄀᆞᄉᆡ>가ᄋᆡ, ᄎᆞ-(寒)>차-'와 같은 몇몇 實例가 그 사실을 確認시켜 준다. 16세기 말엽의 'ᄡᅡ이->ᄡᆞ이-' 17세기 중엽의 '간나희>ᄀᆞᆫ나희'처럼 본래의 ㅏ가 逆行性 表記에 의하여 ㆍ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ㆍ가 ㅏ에 合流하고 있었음을 뒷받침 해 준다. 다만 17세기 말엽까지는 ㆍ 非音韻化가 극히 일부의 形態素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17세기 중엽부터 ㆍ가 본격적으로 ㅏ에 合流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非語頭音節에 나타나는 ㆍ로도 確認된다.

(52) a. 다ᄆᆞᆫ<只>(「釋譜詳節」 十三 49b)

b. 다믄(「小學諺解」 六 40b, 「東國新續三綱行實」 忠臣圖 一 77b)

c. 다만(「捷解新語」 五 25b, 「老乞大諺解」 上 5a, 「伍倫全備諺解」

一 18[b])

tamaɴ(「全一道人」 28, 95, 113), 다만(凡 3)

이밖에도 'ᄇᆞᄅᆞᆷ'(風)이 「捷解新語」(二 1[a]), 「朴通事諺解」(上 36[b]), 「譯語類解」(上 1[b])에 다 같이 'ᄇᆞ람'으로 나타나며, 「全一道人」에도 parami(40)로 轉寫되어 있다. 「全一道人」에는 hururirutaramira (훌릴) ᄯᆞᄅᆞᆷ이(라)(123)와 같은 實例도 나타난다. 國語添記는 'ᄯᆞᄅᆞᆷ'인데도 거기에 나타나는 、는 a로 轉寫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全一道人」에는 '사ᄅᆞᆷ'에 대한 轉寫가 모두 60餘回 나타나는데, 國語添記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나, 轉寫는 다같이 saram으로 되어 있어 'ᄇᆞᄅᆞᆷ, ᄯᆞᄅᆞᆷ, 사ᄅᆞᆷ'의 第二音節 、가 모두 〔a〕로 實現되었음을 알려 준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적어도 16세기 말엽까지 그 命脈이 維持되었던 、와 一의 中和的 對立은 그후부터 점진적으로 、와 ㅏ의 對立으로 굳어져 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때문에 17세기 중엽부터는 、가 새로운 對立의 짝이된 ㅏ로 變하기 시작했고, ㅎ, ㄱ, ㅂ와 같은 〔−鼻音性, −舌端性〕 子音, 또는 ㅊ와 같은 〔−鼻音性, +舌端性〕 子音下에 配分되는 第一音節의 、가 몇몇 形態素에서 먼저 非音韻化를 經驗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와의 對立關係에서 벗어난 一는 새로 ㅜ와의 對立關係를 굳혀가기 시작하였다.[84] 17세기 중엽부터 兩唇子音 뒤에 配分되는 一가 ㅜ로 唇音化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뷔-(刈)>븨-, 뷔틀->븨틀-, 퓌-(燃)>픠-'와 같은 非唇音化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도(宋敏 1975 : 5) 一와 ㅜ가 새로운 對立關係로 定着되어가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2. 18세기의 、 非音韻化

2.1. 18세기 말엽의 、 非音韻化

第一音節 位置에서 、 非音韻化가 國語文獻에 露出되는 時期는 18세기의

84) 一와 、의 母音推移에 대해서는 金完鎭(1963, 1971 : 24-27)에서 일찌기 論議된 바 있으며, 그 原因과 作用樣式에 대해서는 金完鎭(1978)에서 再論된 바 있다.

70년대를 고비로 한다. 「方言集釋」(1778)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實例가 나타난다(宋敏 1975).

(53) a. 팔<臂>(三 6ᵃ)
차례<班>(一 30ᵇ, 33ᵃ)
가리오다<蔽>(一 4ᵃ)
살<皮>(二 23ᵃ, 三 4ᵃ)
나믈<菜>(三 28ᵃ)
날<刃>(二 12ᵇ)
날<緯>(二 28ᵃ)
남<他>(一 35ᵇ, 36ᵃ)
배<船>(四 4ᵃ)
재상<宰相>(一 32ᵇ)
캐다<掘>(三 29ᵃ)
b. ᄃᆞᆺ다<閉>(二 19ᵇ)
ᄀᆞᄑᆞ른<傾>(一 10ᵃ)
ᄉᆞ기다<消化>(三 2ᵇ)
ᄉᆞ리ᄒᆞ다<居>(二 1ᵇ)
ᄉᆞᆷ<麻>(二 2ᵃ)
ᄂᆞᆺ타<娩>(二 2ᵃ)
ᄯᆡ<時>(一 8ᵇ)
ᄭᆡ<油麻>(三 26ᵃ)
ᄆᆡ<鷹>(四 8ᵃ, 11ᵃ)

(53)a는 대부분의 子音 뒤에서 ㆍ>ㅏ의 變化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ㆍ를 音節主音으로 하는 口蓋性 下降二重母音도 같은 性格을 나타내고 있다. (53)b는 반대로 ㅏ였던 第一音節의 母音이 ㆍ로 表記된 것들이다. 어느 것이나 ㆍ 非音韻化가 크게 擴散되었음을 알려 준다. 「漢淸文鑑」(18세기 말엽)도 重要한 實例를 더해 준다(李基文 1972ᵇ : 200-201, 宋敏 1975).

(54) a. 다릐<羊桃>(十三 5ᵇ)
달팡이<蝸牛>(十四 49ᵇ)
타다<乘>(六 57ᵇ)

잠을쇠<鎖>(十一 31b)
가ᄋᆡ<鋏>(十 36a, 49a, 十一 25b)
삼키지<呑>(十二 50a)
매오<甚>(一 10b), 매이〈甚〉(一 3a)

b. ᄆᆞᆯ뚝<橛>(十 38a)
ᄂᆞ로다<運>(六 49b)

여기에 이르면 語彙形態素의 第一音節에 나타나는 ㆍ는 環境에 구애됨이 없이 ㅏ로 變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본래의 ㅏ가 아무런 制約없이 ㆍ로 表記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話者의 文法知識에서 ㆍ와 ㅏ가 同一하게 認識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하여 「漢淸文鑑」에는 다음과 같은 混同表記가 續出된다.

(55) a. ᄊᆞᄒᆞᆫ 고기(十二 29a)~싸ᄒᆞᆫ 국슈(十二 33b)
ᄊᆞᄒᆞ다(十二 57a)~싸ᄒᆞ다(十二 57a)
ᄉᆞᆷ키다(十二 49a)~삼키지 못ᄒᆞ다(十二 50a)
ᄃᆞ래(五 24a)~다릐(十三 5b)

b. ᄆᆡ이(一 12a)~매이(一 3a)
ᄶᆡ여지다(十一 54b)~째여지다(十一 54b)

同一한 形態素의 第一音節 母音이 이처럼 ㆍ와 ㅏ 어느 쪽으로도 表記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表記混亂은 (55)b처럼 二重母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의 ㆍ와 ㅏ는 文字表記上의 差異에 지나지 않아서 機能上으로는 意味를 區別해 줄 수 있는 能力을 이미 잃고 있다. 이러한 實狀은 18세기 말엽의 여러 文獻에서 確認된다. 正祖年間의 綸音資料들은 '팔-'(賣), '단니-'(行), '짜-'(織), '짜-'(鹹), '가물-'(旱), '가을'(秋), '가ᄅᆞ치-'(敎), '가다듬-', '만들-', '나물', '낡-', '날개' 등을 보여 주며(田光鉉 1971 : 54), 「敬信錄諺釋」(1796)도 '발금'(明), '하로'(一日), '살피니', '사로며'(燒), '맛게'(卒), '마춤ᄂᆡ'(終), '밝은', '난호여'(分), '나리오지'(降), '낫출'(顔), '나로'(津) 등을 더해 준다(南廣祐 1970 : 96). 「五倫行實圖」(1797)는 여기에 다시 '바람'(風), '자라다', '감초다', '함ᄭᅴ', '만지다' 등을 追加시켜 준다(劉昌惇 1961 : 190).

이러한 實例들은 非音韻化가 적어도 18세기 말엽 이전에 完成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85)]

2.2. 18세기 중엽의 、非音韻化

18세기 중엽의 國語文獻으로서 第一音節 位置의 、非音韻化를 暗示하는 實例를 몇개나마 보여 주는 것은 「同文類解」(1748)뿐이다. 李崇寧(1977 : 118)에 의하면 여기에는 '가싀'(剪子), '갈가마괴'(寒鴉), '그늘'(陰) 이외에도 '스애'(骰子), '볏그럽다'(可醜)가 나타난다. '가싀, 갈가마괴'의 '가'는 、非音韻化를 보이는 것들이지만, '가싀'는 이미 「譯語類解」(1690)에서 確認된 바 있다. '그늘' 역시 15세기에 'ᄀᆞᄂᆞᆯ'과 共存하고 있어, 이를 通時的 變化라고 보기는 어렵다. '스애'와 '볏그럽다'는 각기 '사ᄉᆞ'와 '븟그럽다'에 대한 逆行性 表記이다. '븟그럽다'에 대한 '볏그럽다'는 그 理由를 찾기 어려우나[86)], '사ᄉᆞ'의 '사'가 '스애'처럼 'ᄉᆞ'로 表記될 수 있었다 함은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 이러한 逆行性 表記는 話者의 語彙目錄에서 、와 ㅏ가 混亂을 일으킨 結果이기 때문이다. 이 때의 ㅏ>、는 물론 心理的 過剩修正, 곧 類推的 表記여서 音韻變化와는 관계가 없으나, 그 背景에는 、非音韻化가 潛在하고 있다.

筆者는 이미 、非音韻化가〔−鼻音性, −舌端性〕子音下에서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鼻音性, +舌端性〕子音下의 、가 그 뒤를 이었으리라고 解釋한 바 있다. 그 實例로서 'ᄎᆞ-'(寒)가 「譯語類解」(1690)에서 '차-'로 變化해 있었음을 確認한 바 있다. 그런데 「同文類解」의 '스애'는 ㅅ뒤에 配分되는 、가 이미 ㅏ와의 區別을 잃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스애'의 、는 [a]로 實現된 母音임을 알 수 있다.

「同文類解」는〔−鼻音性, +舌端性〕子音中 ㅈ 뒤에 나타나는 、가 [a]로

---

85) 18세기 國語文獻의 、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상세한 檢討는 李崇寧(1977 : 106-122)에 나타난다.

86) '븟그럽-'은 17세기 중엽부터 逆行性 表記에 의하여 '붓그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볏그럽-'은 이 '붓그럽-'을 基盤으로 하여 分化된 形態素로서, 個人語的 感情意味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實現되었음을 示唆해 주는 또 하나의 實例를 보여준다.

(56) a. 15세기
　　　雜말 업시(「釋譜詳節」 九 10[b])
　　b. 16세기
　　　쓰게 ᄒᆞ야도 잡말 몯ᄒᆞ리니(「飜譯老乞大」 下 17[a])
　　　잡말이 업더라(「二倫行實圖」<玉山書院本> 15[b])
　　　잡말 아니ᄒᆞ야(「小學諺解」<陶山書院本> 六 1[a])
　　c. 17세기
　　　잡말 못ᄒᆞ리라(「老乞大諺解」 下 15[b])
　　　잡말 아니타<口穩>(「譯語類解」 下 43[a])
　　　잡말ᄒᆞ다<談說>(「譯語類解」 下 44[a])
　　d. 18세기
　　　잡말 말고(「伍倫全備諺解」<1721> 二 11[b])
　　　잡마리 업더라(「二倫行實圖」<重刊本, 1727> 15[b])
　　　잡말 못ᄒᆞ리라(「老乞大諺解」<平安監營重刊本, 1745> 下 15[b])
　　　ᄌᆞᆫ말ᄒᆞᄂᆞᆫ 사ᄅᆞᆷ<嘴碎人>(「同文類解」<1748> 上 13[b])

이 資料에 의하면 「同文類解」의 'ᄌᆞᆫ말'은 15세기 이래 빈번하게 쓰여온 '잡말'에 연결된다. 그러나 이 때의 ㅏ>ㆍ는 音韻變化일 수가 없다. '잡말'이 'ᄌᆞᆫ말'로 代置된 것은 결국 意味의 再解釋에 의한 類推일 수밖에 없는데[87], 이러한 類推는 'ᄌᆞᆫ말'의 ㆍ가 音聲上으로 〔a〕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解釋된다. '잡말'은 同化에 의하여 '잠말'로 實現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자 '잠말'의 '잠'에 대한 意味가 不透明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잠'에 대한 意味가 'ᄌᆞᆯ-'(細)로 解釋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잡말'의 表面形 '잠말'을 'ᄌᆞᆫ말'의 表面形 'ᄌᆞᆷ말'로 認識한 것이다. 따라서 '잡말'이 'ᄌᆞᆫ말'로 認識될 수 있었던 背景에는 당시 'ᄌᆞᆫ말'의 ㆍ가 〔a〕로 實現되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고 解釋할 수밖에 없다(宋敏 1985 : 141). '사ᄉᆞ>ᄉᆞ애'도 결국은 '잡말>ᄌᆞᆫ말'과 同一한 理由로 說明될 수 있다. 이들은

87) 現代國語의 '잔소리'는 '잡말>ᄌᆞᆫ말'로 意味의 再解釋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생겨난 合成語라고 할 수 있다. 近代國語에서 'ᄌᆞᆫ소리'라는 合成語가 確認되지 않는 것도 'ᄌᆞᆫ말'이 '잡말'에서 由來했음을 알려 준다.

18세기 중엽에 、 非音韻化가 〔-鼻音性, +舌端性〕 子音 뒤에까지 擴散되어 있었음을 暗示한다.

「同文類解」는 이밖에도 또 하나의 注目되는 實例를 보여 준다. 'ᄆᆞ야지'에 대한 '마야지'가 그것이다.

(57) a. 16세기
ᄆᆞ야지<駒>(「訓蒙字會」<叡山本> 上 10^{a})
b. 17세기
ᄆᆡ야지<馬駒子>(「譯語類解」 下 29^{a})
c. 18세기
마야지<馬駒子>(「同文類解」 下 37^{b})
매야지(「淸語老乞大新釋」<1765> 五 13^{a})

이 때의 '마야지, 매야지'는 17세기까지의 'ᄆᆞ야지, ᄆᆡ야지'의 變化形인데, ㅁ 뒤에 配分되는 第一音節의 、가 非音韻化를 보인다는 점에서 注目된다. 지금까지의 檢討에 의하면 、 非音韻化는 처음에 〔-鼻音性, -舌端性〕 子音, 그 다음에는 〔-鼻音性, +舌端性〕 子音環境 차례로 일어 났다. 그러나 'ᄆᆞ야지>마야지'는 〔+鼻音性, -舌端性〕 子音 뒤에서 、가 非音韻化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88] 다만 이 때의 、는 口蓋性 轉移音 y 앞에 配分되어 二重母音을 構成하고 있다. 이 y가 、 非音韻化를 먼저 促進시켰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宋敏 1975). 17세기 중엽의 'ᄒᆞ야>하야'도 같은 性格을 보이고 있으며, 「全一道人」(1729)에는 、를 音節主音으로 하는 口蓋性 下降二重母音이 거의 例外없이 'a'i로 轉寫되어 있다. 이 점은 漢字音에서도 差異를 보이지 않으며, 「和漢」(1712)도 같은 性格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單母音 、보다 二重母音의 音節主音 、가 한 발 앞서 非音韻化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그에 대한 原因으로서는 、에 後行하는 表面的 音聲環境인 y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單母音 、와 二重母音의 音節主音 、가 겪은 非音韻

88) '마야지'의 '마'가 漢字形態素 '馬'의 音讀 '마'에 의한 類推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야지'는 、 非音韻化를 反映하고 있다. 17세기까지 'ᄆᆞ야지, ᄆᆡ야지'였던 것이 18세기 중엽에 '馬'(마)에 類推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ᄆᆞ야지'의 'ᄆᆞ'가 이미 '마'로 實現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化는 그 要因과 過程을 서로 달리 하고 있으나, 單母音에서의 、非音韻化는 〔鼻音性〕과 〔舌端性〕資質로 그 過程이 그런대로 解明된다. 따라서 、非音韻化의 다음 過程은 〔+鼻音性, -舌端性〕子音 下였을 것으로 推定된다.

18세기 중엽까지는 ㄴ 下에서의 、非音韻化가 어디에서도 確認되지 않는다. 그러한 實例가 18세기 말엽에 가서야 文獻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非音韻化가 〔+鼻音性, +舌端性〕子音 뒤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음을 暗示하고 있다.

2.3. 18세기 초엽의 實狀

18세기 초엽의 文獻에서 、非音韻化와 관련되는 새로운 實例는 더 이상 確認되지 않는다. 이 時期에 해당하는 믿을만한 文獻이 거의 없다는 점도 그 理由의 하나가 될 것이다. 18세기 20년대의 것으로 「伍倫全備諺解」(1721)와 같은 對話體 資料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文獻은 특히 音韻論的 側面에서 保守性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89] 이러한 資料에서 第一音節의 、非音韻化에 대한 情報를 期待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18세기 30년대의 것으로는 「女四書諺解」(1736)와 같은 대표적 資料가 있으나, 여기서도 第一音節의 、非音韻化는 거의 外面 당하고 있다.

결국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非音韻化를 알려 주는 實例들은 18세기 70년대에 이르러서야 國語文獻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非音韻化의 時期를 18세기 중엽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李基文 1961, 1972b, 田光鉉 1971, 郭忠求 1980). 그러나 이와는 다른 根據에 의하여 그 時期를 18세기 초엽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金完鎭 1963, 1967, 宋敏 1974), 그 時期를 훨씬 끌어 올려 16세기 후기에서 17세기 초기에 걸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李崇寧 1977).

89) 일반적으로 司譯院 관계 資料에는 譯官들의 傳統的 語法이 그대로 反映되어 保守性을 띠게 된다. 「伍倫全備諺解」의 경우 「譯語類解」의 語釋을 細註에 많이 引用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本文에 직접 利用하기도 하였다. 하나만 例를 들어 둔다.

夫人의 쑤어리던 말솜을 긔록홈애 <記得夫人數落的言語>○數落釋見譯語類解(二 10b)

國語文獻에만 의지하는 한, 현재로서는 ㆍ 非音韻化에 대한 이 이상의 實證的 精密化를 期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壁을 어느 정도 뛰어 넘을 수 있게 해 주는 資料가 「全一道人」(1729)을 비롯한 倭文字 轉寫資料들이다. 여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8세기 초엽의 ㄷ 口蓋音化에 대한 現實이 反映되어 있지만, 그와 동시에 ㆍ 非音韻化에 대한 새로운 情報가 反映되어 있다. 이에 이들 資料의 ㆍ音 轉寫를 좀더 면밀하게 檢討해 보기로 한다.

3. 倭文字 資料의 ㆍ音 轉寫

3.1. 「全一道人」의 國語添記

「全一道人」의 國語添記가 傳統的 慣用을 따르고 있다 함은 앞에서 指摘한 바 있다. 第一音節 母音 ㆍ에 대한 表記 역시 거의 당시의 國語文獻과 다름이 없다.

(58) a. ᄆᆞ리워<蔽>(凡 3), ᄆᆞ리오지(30), ᄆᆞ리오(지)(76)
ᄀᆞᆯ을<粉>(56)
ᄀᆞᆯ을<蘆>(凡 3), ᄀᆞᆯ 쏫촐(17)
ᄀᆞᆯ래여<橫>(42)
ᄀᆞᆯ히여<擇>(100)
모욕 ᄀᆞᆷ고(54)
ᄀᆞᆷ초(왓다가)(27), ᄀᆞᆷ초고(39), ᄀᆞᆷ촌(40)
ᄀᆞᆺ<纔>(95)
ᄀᆞᆺ브지<倦>(凡 3)
ᄀᆞᆺ초와<備>(78)
개 ᄀᆞᆺ튼(74)
씌ᄃᆞ라(27, 32, 110)
b. ᄂᆞ물<菜>(82)
ᄂᆞᆫ홀<分>(100), 논흔(90)
ᄂᆞᆯ려<飛>(59)
ᄂᆞᆺ<顔> 시기고(23)
ᄯᆞ라<從>(118), ᄯᆞ로<別>(100)

(어미)ᄃᆞ려(20)
(홀릴)ᄯᆞ름(122)
ᄃᆞ리<橋>(凡 3)
ᄃᆞ라<走>(28, 58), ᄃᆞ라드러(42)
ᄃᆞ토와(110), 도토와(凡 3)
ᄃᆞᆫ니ᄂᆞᆫ<行>(凡 3)
ᄃᆞᆯ<月>(凡 3, 56, 92)
ᄯᆞᆯ<女>(凡 3, 50, 65)
ᄯᆞᆷ<汗>(凡 3)
ᄐᆞ고<乘>(凡 3, 37), ᄐᆞᆫ (ᄇᆡ)(42)
쪄와<燒>(凡 3)

c. ᄉᆞ이<間>(凡 3)
ᄉᆞᄆᆞᆺ차<通>(71)
ᄉᆞᆯ<肉>(55), ᄉᆞᆯ지니(107)
ᄉᆞᆯ펴(凡 2, 18)
ᄉᆞᆯ와시나<燒>(凡 3)
아홉 ᄉᆞ리(29)
ᄉᆞᆱ마<烹>(38), ᄉᆞᆷ기이리라(106)
ᄡᆞ지라<值>(72)
ᄉᆡᆼ각(20)

d. ᄌᆞ라거든<成長>(89)
ᄌᆞ로<頻>(101)
ᄌᆞᄆᆞᆺ<頗>(39, 114)
ᄌᆞᆯ라<斷>(51, 86), 절로(36)
ᄎᆞ<寒>(18), ᄎᆞᆫ(77)
ᄎᆞ지<滿>(30), ᄎᆞ치(86), ᄎᆡ(와)(113)
ᄎᆞ고<佩>(47), ᄎᆞᆫ(凡 3)
ᄎᆞ례(85)
ᄎᆞ마<忍>(34)
ᄎᆞ자(50, 65, 95), ᄎᆞᄌᆞ니(28), ᄎᆞᆺ게(89), ᄎᆞᆺ더(니)(91)

e. ᄆᆞ올<村>(47)
ᄆᆞᆯ<馬>(凡 3), ᄆᆞᆯ쇼(凡 2)
ᄆᆞᆺ은<伯>(120)

ᄆᆞᆺ춤내(51)
ᄆᆡ이<甚>(凡 3)
ᄆᆡ여<結>(36, 58)
ᄆᆞᆫ밥(76)
ᄆᆞᆫᄃᆞ라(26, 36, 56)
ᄇᆞ리(고)<棄>(70)
ᄇᆞ아져<碎>(123)
ᄉᆡ이고<擇>(119), ᄉᆡ엿더니(32), ᄊᆡ여(41)
ᄇᆡ<舟>(凡 3, 45)
ᄇᆡ<腹>(凡 3, 30)
ᄇᆡ<梨>(凡 3)
ᄇᆡ얌이(41)
ᄇᆡ엿더니<孕>(67), ᄇᆡᆫ(69)
ᄑᆞ라<賣>(80), ᄑᆞ랏(더니)(80), ᄑᆞ(라)(77)
ᄑᆞᆯ<臂>(105)

f. ᄒᆞ엿노라(凡 2), ᄒᆞᄋᆞᆸᄂᆡ(凡 2), 가려ᄒᆞᄂᆞᆫ가(凡 3), 괴이ᄒᆞ다(凡 3), 셩ᄒᆞᆯ가 ᄒᆞ노라(凡 3), 쾌ᄒᆞ리오(凡 3), 근심ᄒᆞ리요(凡 3), ᄒᆞ이시니(101)
ᄒᆞᆫ<一>(凡 3, 55), ᄒᆞᆫ가지(66), ᄒᆞᆫ번의(34), ᄒᆞᆫ 알(도)(87), ᄒᆞᆫ 작(91), ᄒᆞᆷ작<半分>(89), ᄒᆞᆫ ᄐᆞᆷ(37)
ᄒᆞᄅᆞ 밤(51), ᄒᆞᆯᄂᆞᆫ(24), ᄒᆞᆯᄅᆡ(83)
ᄒᆞ리<癒>(54, 56)
이톰 ᄒᆡ(66)
ᄒᆡᆫ<白>(56)

이상이 固有語 第一音節 ㆍ에 대한 國語添記의 全部이다. 雨森芳洲는 이처럼 모든 環境下의 第一音節 ㆍ를 거의 정확히 把握하고 있었다. 이 점은 漢字音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58)b의 'ᄂᆞᆫᄒᆞᆯ'과 '논ᄒᆞᆫ', 'ᄃᆞ토와'와 '도토와'의 表記共存이 注目되며, (58)d의 'ᄌᆞᆯ라'와 '졀로'의 表記共存도 注目되는 實例인데, '졀로'에 대해서는 (25)b①에서 그 誤謬性을 指摘한 바 있다. (58)c '아홉 ᄉᆞ리'의 'ᄉᆞᆯ', (58)e의 'ᄉᆡ이고'는 17세기 이래의 國語文獻과 같은 表記를 보이므로, 이를 '설, ᄡᅢ이-'의 誤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밖에

도 「全一道人」에는 본래의 ㅗ나 ㅓ를 ㆍ로 表記한 例들이 몇개 나타난다. '소ᄅᆡ'에 대한 'ᄉᆞ릐', '놈'에 대한 'ᄂᆞᆷ', '섯거'에 대한 'ᄉᆞᆺ고' 등이 그것인데, 이들 誤謬에 대해서는 (25)b①, ②에서 論議한 바 있다. 또한 '뫼'(山)에 대한 'ᄆᆡ'에 대해서는 註 55에서 言及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表記混亂은 모두가 ㆍ의 音聲資質과 관계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論議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58)e의 'ᄑᆞ라'에 대한 '푸(라)'에 대해서는 (25)b⑤에서 그 誤謬性을 指摘해 두었다.

第一音節의 ㆍ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59) a. ᄒᆞᆰ(58), ᄒᆞᆰ 그멍(59)
b. 되여(21, 22), 되엿ᄃᆞ니(42), 된(109), 되믈(93)
c. 가ᄅᆞ치고(75)
d. (국슈의) 타<和>(110)

'ᄒᆞᆰ'과 '되-'는 당시의 國語文獻 表記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國語添記는 없으나 koworu'i <處所格>(41), koworu'i<屬格>(48, 55, 72), koworu(49, 102, 112)도 '고올'(邑)로 굳어진 狀態를 轉寫한 것일 것이다. (59)c의 '가ᄅᆞ치-'는 18세기 초엽까지의 國語文獻에서 確認된 바 없는 새로운 實例이다. 'ᄀᆞᄅᆞ치-'의 第一音節 ㆍ가 非音韻化하였음을 國語添記가 證言하고 있다. '가ᄅᆞ치-'의 第一音節 母音은 轉寫에도 모두 a로 나타난다. 「朝物」의 marot^{s}ita (14^{b})도 歪曲된 語形이나마, 'ᄀᆞᄅᆞ치-'의 第一音節 母音 ㆍ가 〔a〕였음을 보여준다. (59)d의 '타'는 'ᄐᆞ+아→타'와 같은 形態音韻論的 交替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ㆍ 非音韻化가 먼저 일어나 'ᄐᆞ+아>타+아→타'와 같은 過程을 보인 것이라고 解釋될 수도 있다. 바로 앞의 (58)d에 提示된 바 있는 'ᄎᆞ'(寒)는 '(몸이) ᄎᆞ'를 나타낸 것인데, 이 때에는 'ᄎᆞ+아→차'와 같은 形態音韻論的 交替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轉寫에도 tsa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解釋은 'ᄎᆞ->차-'가 이미 「譯語類解」(1690)에서 確認되는 사실이나, 'ᄐᆞ(乘)+고'의 'ᄐᆞ-'가 「全一道人」에 ta로 轉寫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요컨데 「全一道人」의 國語添記는 第一音節의 ㆍ에 대하여 國語文獻과 同

一한 性格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轉寫는 國語添記와 관계 없이 당시의 發話現實을 따르고 있다. 이하에 그 實狀을 分類하여 整理해 보기로 한다. 分類에는 固有語와 漢字語, 單母音과 二重母音 두 基準을 適用한다. 各 項目의 配列은 檢索의 便宜上, 形態素의 가나다順을 따르고, 맨 앞에는 해당 形態素의 意味를 나타내는 漢字를 標題語로 提示해 둔다. 國語添記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形態素에 대해서는 그 推定形을 轉寫表記 뒤에 괄호를 써서 補充하기로 한다.

3.2. 「全一道人」의 、音 轉寫

먼저 固有語에 대해서 檢討하기로 한다.

(60) a. 單母音에서 a로 轉寫된 實例

① 邊. murukawo'i (믈ᄀᆞ의)(37). 'ᄀᆞ'의 、가 a로 轉寫되어 있다. 그러나 o로 轉寫된 경우도 있다. murukowo'i ᄀᆞ의(31, 42).

② 曰. karoto'i (ᄀᆞ로ᄃᆡ, ᄀᆞᆯ오ᄃᆡ)(18, 20, 24, 26 등 30餘例). 國語添記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으나 、가 例外없이 a로 轉寫되어 있다.

③ 蔽. kariwot^{s}imoqhaka'ihako ᄀᆞ리오지(30), kariwot^{s}i ᄀᆞ리오(지)(76).

④ 密. kamani (ᄀᆞ마니)(47, 65, 93).[90]

⑤ 最. kazagu (ᄀᆞ장)(41, 85), kazaku(72).

⑥ 蘆. karukoqt^{s}uru ᄀᆞᆯ 삿출(17).

⑦ 橫. karuraya ᄀᆞᆯ래여(42).[91]

⑧ 擇. karuhoya ᄀᆞᆯᄒᆡ여(100).

⑨ 浴. moyoku。kamugo 모욕 ᄀᆞᆷ고(54), moyoku。kamugo

---

90) 'ᄀᆞ마니'는 이미 16세기 말엽부터 '가마니'로 나타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48)d에서 論議한 바 있다.

91) 'ᄀᆞᆯ래여'는 그 構成成分이 확실하지 않으나 倭語釋文 '魏國夫人の乗船よこたわり, くつがゑらんとせしを……'(위국부인이 탄 배가 옆으로 기울어, 뒤집어지려 하므로)의 'よこたわり'(옆으로 기울어)에 해당하는 곳이다. 「勸懲故事」의 原文 '舟橫欲覆'(一 11^{b})의 '橫'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5세기의 副詞 'ᄀᆞᄅᆞ'(橫)와 語根을 함께 하는 動詞의 被動形인 듯하다.

(74).

⑩ 閉. nunurukamurira (눈을) ᄀᆞ므(리라)(25).

⑪ 藏. kamutsowaQtaka ᄀᆞᆷ초(27), kamutsoko ᄀᆞᆷ초고(39), kamud^{z}uɴkokiruru[92] ᄀᆞᆷ촌 (고기를)(40), kamutsowatoko (123).

⑫ 備. kaQtsowat^{s}ira ᄀᆞᆺ초와(78).

⑬ 如. tsosiku。kaQt^{s}i (ᄌᆞ식 ᄀᆞᆺ치)(32), kaQt^{s}i'anihaya'ida (ᄀᆞᆺ지 아니ᄒᆞ여이다)(49), ka'ikaQtaɴ 개ᄀᆞᆺᄐᆞᆫ(74). 'ᄀᆞᇀ-'은 모두 10餘例인데 언제나 a로 轉寫되어 있다.

⑭ 走. tarana ᄃᆞ라(28), taratora ᄃᆞ라드러(42), taraka ᄃᆞ라(58).

⑮ 行. taɴnimiyo (ᄃᆞᆫ니며)(105).

⑯ 月. tarupamu'i ᄃᆞᆯ (밤의)(91), haɴdari (ᄒᆞᆫ) ᄃᆞᆯ(이)(56).

⑰ 從. tarakarahani ᄯᆞ라(118), taro ᄯᆞ로(100). 國語添記는 없으나 'ᄯᆞ라'가 o로 轉寫된 경우도 있다. toropona'it^{s}i'anihani (ᄯᆞ라보내지 아니ᄒᆞ니)(88).[93]

⑱ 耳矣. hururirutaramira (흘릴) ᄯᆞ롬이(라)(122), kukut^{s}i-niharu。taramira(21).

⑲ 女. ^{su}taru'i ᄯᆞᆯ의(50), ^{su}taru'i(50), ^{su}taruru(52, 53), ^{su}taru ᄯᆞᆯ(65).

⑳ 棄. pariko ᄇᆞ리(고)(70). 그밖에도 5~6例가 더 있으나 例外없이 a로 轉寫되어 있다. 「朝物」p^{q}arera(15^{a}).

㉑ 風. parami (ᄇᆞ람이)(40), paramu(59), paramukuwa(115). 「和漢」p^{q}araɴ 波良牟(17^{a}), 「朝物」barami(8^{b}).

㉒ 方. payahuro (ᄇᆞ야호로)(46).[94]

---

92) 이 때의 d^{z}u는 tso의 誤記일 것이다. 다른 例는 모두 tso로 되어 있다. 그러나 母音을 기준으로 한다면, tso보다는 d^{z}u쪽이 發話現實에 더 가까왔을지도 모른다.

93) 安田章(1964)은 國語復元文(13)에서 이 部分을 '도라보내지아니ᄒᆞ니'로 읽고 있다. 그러나 「勸懲故事」의 原文이 '不與隨而'(一 19^{a})로 되어 있고, 倭語釋文도 'つけてやらさりける'(붙혀 주지 않았느니라)로 되어 있어, 이 때의 toro는 'ᄯᆞ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94) 이 形態素는 15~16세기에 '뵈야ᄒᆞ로, 뵈야호로, 뵈야ᄒᆞ로, 보야ᄒᆞ로'였으나 17세기에는 'ᄇᆡ야ᄒᆞ로, ᄇᆡ야호로, ᄇᆞ야ᄒᆞ로, ᄇᆞ야호로, 보야호로, 보야ᄒᆞ로'

㉓ 明. parukumiyo (볽으)미오(49).

㉔ 烹. saruma 솔마(38). 이 語彙形態素의 、는 o로 轉寫되기도 한다. somugirira 솜기이리라(106).

㉕ 肥. sarut^s^ini 솔지니(107). 그러나 名詞 '솔'은 o로 轉寫되어 있다. soru 솔(55).

㉖ 寒. momi。tsa 추(18), tsaɴkosuru 춘(77). 다만 앞의 tsa는 '추+아→차'와 같은 形態音韻論的 交替를 反映하고 있는 듯하지만, '춘'의 、가 a로 轉寫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추-'의 、가 이미 非音韻化했기 때문에 國語添記에 '추'가 쓰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차-'는 이미 「譯語類解」(1690)에서 確認된 바 있다.

㉗ 滿. tsat^s^imoqhaka'ihaya 추지(30), tsat^s^ut^s^imot^s^uhayaqta 추치(86).[95]

㉘ 佩. tsako 추(고)(47).

㉙ 尋. tsaqtoni 춧(더니)(91). 이 形態素는 o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tsod^z^uni 추주니(28), tsoza 추자(50, 65), tsozahoni 추자(보니)(95), tsot^s^uka'ihanora 춧게(89), tsozato'i (90), moqtsozahanora(91).

㉚ 乘. tako(42), pa'itakokanoɴsarami (빅) ᄐ고(37), 'u'ikukupu'iɴtaɴpa'i ᄐᆞᆫ (빅)(42).

㉛ 賣. parat^s^utoni 푸랏(더니)(80), paramokuko 푸라(80), momurupara (몸을) 푸(라)(77).[96] 「朝物」haruka<買>(11^a^). 단, 意味가 '賣'와 뒤바뀐 사실에 대해서는 (13)b 참조.

㉜ 臂. paruru 폴(을)(105).

㉝ 爲. 凡例 2에 ᄒᆞ옵너 hawomuno'i, ᄒᆞ엿노라 hayaɴnora가 보이는데, 'ᄒᆞ-'의 、가 a로 轉寫되어 있다. 'ᄒᆞ-'는 다른 形態素 뒤에 連結되어 쓰일 때가 많은데, 그 경우에도 原則的으로 a를 보인다. 「全一道人」에는 'ᄒᆞ-'가 모두 470餘回 나타나는데, 그 대부분은 a로 轉寫되어 있으나, 그 중 20餘回는

와 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第一音節의 、는 17세기에 생겨난 表記인데, 「全一道人」은 이 때의 、가 [a]로 實現되었음을 알려 준다.

95) '추치'는 '추지'의 誤謬이다. (25) a ② 참조.

96) 이 때의 '푸'는 '포'의 誤記이다. (25) b ⑤ 참조.

o로도 轉寫되어 있다.

㉞ 一. hanahi'i(41), hanahuruwoto(36), hanahurunahuni(123). 이 때의 hana는 基本數詞 'ᄒᆞ나'에 대한 轉寫이다. haɴbanu'i ᄒᆞᆫ번의(34), haɴkoworu'i ᄒᆞᆫ (고올의)(55), haɴnaruto ᄒᆞᆫ알(87). 이밖에도 'ᄒᆞᆫ'의 例는 40餘回 나타나는데, 어느 것이나 例外없이 a로 나타난다. 「和漢」 haɴna 波牟奈(18ᵇ), 「朝物」 hana(15ᵇ).

㉟ 一日. 凡例 2에 ᄒᆞᄅᆞᆫ haruroɴ이 보이며, 本文에는 國語添記가 없는 haruroɴ이 10餘例 나타난다. 第一音節의 ㆍ는 언제나 a로 轉寫되어 있다.

㊱ 癒. harinira ᄒᆞ리(56), kuwa'ihi'iharita 쾌히 ᄒᆞ리(다)(54)

b. 單母音에서 o로 轉寫된 實例

① 粉. korurorumeɴdora ᄀᆞᄅᆞᆯ ᄆᆡᆫᄃᆞ라(56)

② 纔. koq ᄀᆞᆺ(95).[97]

③ 菜. nomurukukirato ᄂᆞᄆᆞᆯ국이(라도)(82).

④ 降. norit^si'anihatoni (ᄂᆞ리지 아니ᄒᆞ더니)(42).

⑤ 分. noɴhuruso'i ᄂᆞᆫ홀(서)(100), noɴha(100), noɴhuɴ'iruru ᄂᆞᆫ흔 (일을)(90).[98]

⑥ 飛. noruriya ᄂᆞᆯ려(59).

⑦ 他. nomu'i (ᄂᆞᆷ의)(112), nomu'isaho'itoya (ᄂᆞᆷ의) 사회(38).

⑧ 顏. noqsikiko ᄂᆞᆺ 시기고(23).

⑨ 爭. toqtowa ᄃᆞ토와(110).[99]

⑩ 終. moqt^simoqhayasiya (ᄆᆞᆺ지 못ᄒᆞ여셔)(69), moqt^suɴhuwo'i (ᄆᆞᄎᆞᆫ 후의)(90).

⑪ 終. moqt^sumuna'i ᄆᆞᆺᄎᆞᆷ내(51), moqt^sumuna'i(81), moqt^sum-

97) 이에 대하여 kaq 곳(66)이 보인다. 이것은 倭語釋文 'ひとりの男を生ける. すなはち元貞(良의 誤記)楨なり'(한 아들을 낳으니라. 곧 元良楨이니라)의 'すなはち'(곧, 즉)에 해당한다. 「勸懲故事」의 原文 '生一子即良楨'(一 15ᵇ)의 '即'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곳'이 어째서 kaq으로 轉寫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雨森芳洲는 'ᄀᆞᆺ'과 '곳'을 混同한 듯하다.

98) 마지막 例의 國語添記는 본래의 ㆍ를 ㅗ로 적고 있어 특이하다. 'ᄃᆞ토와'를 凡例 3에서 '도토와'로 적은 것과 性格을 같이 하는 實例다. (58) b에서 이 사실을 指摘한 바 있다.

99) 凡例 3에서는 '도토와'로도 表記하고 있다. 註 98 참조.

una'i(104, 113).

⑫ 村. moworu ᄆᆞᄋᆞᆯ(47), moworu(53, 83, 90), moworu'i(25), moworusarami(55, 71, 116). 「朝物」 mo'uka<里>(10^{a}), mo'uga<町>(10^{a})

⑬ 心. mowomu'i (ᄆᆞᄋᆞᆷ의)(22, 50), mowomuru(21), 'aɴmowomu'i(18).

⑭ 伯. motoɴ ᄆᆞᆺ은(120).

⑮ 馬. 凡例 2에 몰쇼 mosiyo가 있다. 「和漢」moru 毛留(18^{a}), 「朝物」 moru(10^{a}).

⑯ 碎. powat^{s}iyo ᄇᆞ아져(123).

⑰ 愛. soraguhoko (ᄉᆞ랑ᄒᆞ고)(17), soraguhakiru(32), soraguhaya(89, 90, 113), soraguhanoɴba'ira(108).

⑱ 通. somoqtso ᄉᆞᄆᆞᆺ차(71).

⑲ 察. 凡例 2에 '솔펴라고 쓰고 soruhiya라고 말하고'라는 解說이 나타난다. 第一音節의 ､가 o로 認知되었음을 단적으로 알려준다. sorupiya 솔펴(18), sorupira(26), sorupiya(110).

⑳ 白. sorokaroto'i (솔와 ᄀᆞ로ᄃᆡ).

㉑ 値. ^{bu}soɴd^{z}ira ᄡᆞ지라(72).[100]

㉒ 米. ^{su}sorurut^{s}uwomokitora[101] (ᄡᆞᆯ을) 주어(60). 「和漢」p^{q}isaru 比°佐留(17^{a}), 「朝物」 hisari(9^{b}). 「全一道人」이 o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나중 두 資料는 a를 보이고 있다.

㉓ 長. tsosikitsoraqkotoɴ (ᄌᆞ식이) ᄌᆞ라거든(89).

㉔ 頻. tsoro ᄌᆞ로(65, 101), tsoro(102).

㉕ 頗. tsomoq ᄌᆞᄆᆞᆺ(39, 114).

㉖ 斷. tsoruro 절로(36),[102] makutsoruro 막 ᄌᆞᆯ라(51, 86).

㉗ 忍. tsoma ᄎᆞ마(34). tsoma(27, 44, 89, 94, 99, 123).

㉘ 序. tsore'i'ana'i ᄎᆞ례 (안에)(85).

---

100) 이 때의 意味는 '비싸다'를 나타낸 것이다. 18세기 초엽까지도 이러한 뜻이 維持된 根據가 있다.

갑시 百金이 ᄡᆞ니<價値百金>(「伍倫全備諺解」 五 45^{b})

101) 第一音節을 처음에는 ^{pu}so로 했다가 ^{su}so로 고친 흔적이 보인다.

102) '절로'는 'ᄌᆞᆯ라'의 誤謬이다. 이에 대해서는 (25) b ① 참조.

(61) a. 二重母音에서 a로 轉寫된 實例

① 覺. ^{su}ka'itara ᄉᆡᄃᆞ라(27), ^{su}ka'itara ᄉᆡᄃᆞ라(32), ^{su}ka'itora ᄉᆡᄃᆞ라(110).

② 常. mayagu ᄆᆡᆼ양(35),[103] mayagu(78, 83, 112).

③ 結. maya ᄆᆡ여(35, 58).

④ 舟. pa'irurutsowo ᄇᆡ를 저어(45), pa'itako (ᄇᆡ) ᄐᆞ고(37), pa'i(41, 43), pa'iwe(43), pa'ipurinoNsaramira(44), 「和漢」 p^{q}a'i 波伊(17^{b}), 「朝物」 p^{q}a'i(10^{a}).

⑤ 腹. pa'iwe ᄇᆡ(에)(30), pa'iwe(68), pa'ikoQpuNgosuru (ᄇᆡ) 곳ᄑᆞᆫ(87).

⑥ 孕. payaQtoni ᄇᆡ엿더니(67), tsosikupa'iNtsebu'i (ᄌᆞ식) ᄇᆡᆫ(妾의)(69).

⑦ 蛇. payamuN(41), kuNpayamu(41), kuNpayamirora (큰) ᄇᆡ얌이(러라)(41).

⑧ 學. pa'iha (ᄇᆡ화)(70), kurupa'ihoruso'i(118). 「朝物」 ha'i-hata(14^{b}).

⑨ 思. sagugakuhaya ᄉᆡᆼ각(20), saNgakuhaya(30), sagugaku-haya(33, 38), sagugakut^{s}i'anihako(104).

⑩ 滿. tsa'iwa ᄎᆡ(와)(113).

b. 二重母音에서 e로 轉寫된 實例

① 素. meNbaburumokutora ᄆᆡᆫ밥(76).

② 作. meNdora ᄆᆡᆫᄃᆞ라(36), korururumeNdora ᄀᆞᆯ을 ᄆᆡᆫᄃᆞ라(56).

c. 二重母音에서 u로 轉寫된 實例

① 白. hu'iNkoQpururo ᄒᆡᆫ (것플로)(56). 「朝物」 hu'ita(10^{b}).

종합적인 檢討는 나중에 행해지겠지만 대체적으로, 固有語의 第一音節 ㆍ는 鼻音 뒤에서 o로 轉寫되어 있고, 摩擦音과 破擦音 뒤에서는 주로 o를 보이지만, a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밖의 子音下에서는 a로 轉寫된 경우가 絕對的이다. 그러나 二重母音의 音節主音 ㆍ는 環境에 관계없이 a로 轉寫되어 있지만, ‘ᄆᆡᆫ밥, ᄆᆡᆫᄃᆞᆯ-’의 ‘ᄆᆡᆫ’에 나타나는 ㆍ만은 e로 轉寫되어 있다. ‘ᄒᆡ-’의 ㆍ는 u로 轉寫되었으나, 이것은 ‘ᄒᆡ->희-’의 結果가 轉寫에 反

103) ‘ᄆᆡᆼ양’은 ‘ᄆᆡ양’의 誤記이다. (25) a ⑤ 참조.

映된 것이다.

이번에는 漢字音에 대해서 檢討하기로 한다.

(62) a. 單母音에서 a로 轉寫된 實例

① 恨(ᄒᆞᆫ). haɴto'iɴnirahaɴda'i ᄒᆞᆫ(113). 그러나 o로 轉寫된 경우가 셋이 있다. honurusamaqtora ᄒᆞᆫ을 삼엇더라(36), hoɴ-haya ᄒᆞᆫ(52), hoɴhatoni ᄒᆞᆫ(63).

b. 單母音에서 o로 轉寫된 實例

① 四(ᄉᆞ). sosibu'i ᄉᆞ십(四十)의(67), somenuru ᄉᆞ면(四面)을(74).

② 私事(ᄉᆞᄉᆞ). sosoruru (私事를)(105).

③ 使(ᄉᆞ). sot^{s}iyaruru (使者를)(115).

④ 士(ᄉᆞ). sota'i'uwa ᄉᆞ태우(士大夫)와(105).

⑤ 辭(ᄉᆞ). soyaguhaya (辭讓ᄒᆞ야)(82).

⑥ 仕(ᄉᆞ). sotsegu'i ᄉᆞ뎍(仕籍)의(113).

⑦ 字(ᄌᆞ). tsonoɴ (字ᄂᆞᆫ)(17).

⑧ 子(ᄌᆞ). tsokonini ᄌᆞ건(子騫)이니(17), tsosiku (子息)(32, 65). 이밖에도 '子息'의 曲用形이 15餘回 나타나는데, '子'는 언제나 tso로 나타난다.

⑨ 仔(ᄌᆞ). tsose'i ᄌᆞ시(仔細)히(90).[104)]

⑩ 自(ᄌᆞ). tsosiyuhaya (自首ᄒᆞ야)(48).

⑪ 姊(ᄌᆞ). tsomo'i ᄌᆞᄆᆡ(姊妹)(103), tsomo'i'u'itseguru ᄌᆞᄆᆡ(의) 경(을)(104).

⑫ 次(ᄎᆞ). tsore'i'ana'i ᄎᆞ례(85).[105)]

(63) a. 二重母音에서 a로 轉寫된 實例

① 改(ᄀᆡ). ka'ikahaya ᄀᆡ가(改嫁)(120).

104) 國語添記 'ᄌᆞ시히'는 '仔細'의 副詞形인데 '細'는 본래 '셰'였겠지만, 中世國語에서 '셰, 셔' 두가지로 表記되다가 近代國語에서는 '시'로 表記되기도 하였다.

귀ᄅᆞᆯ 기우려 ᄌᆞ셰히 듣으며<側耳詳聽>(「女四書諺解」 二 21b)

네 ᄌᆞ셔히 보라<你仔細看>(「老乞大諺解」 下 26b)

만일 ᄌᆞ시 아디 몯호미 잇거든<若有不諳>(「女四書諺解」 二 14b)

105) 'ᄎᆞ례'는 國語化한 語彙여서 (60) b ㉘에 이미 提示된 바 있으나, 'ᄎᆞ'는 '次'에서 起源하였으므로 여기에 다시 包含시켰다.

② 來(ᄂᆡ). waguna'ihato'i 왕ᄂᆡ(往來).「朝物」明日 na'iru<來日>(14[a]).

③ 代(ᄃᆡ). ta'ihaya ᄃᆡ(代)(107), ta'ihayat[s]irahani(109).

④ 對(ᄃᆡ). ta'ihaya (對ᄒᆞ야)(31), ta'itabuhaya (對答)(91).

⑤ 待(ᄃᆡ). ta'itsebu (待接)(118), ta'itsebuhakiruru(19, 30), ta'itsebuhatoni(39).

⑥ 每(ᄆᆡ). mayagu ᄆᆡ양(35).[106]

⑦ 埋(ᄆᆡ). womenima'ikoritoya 엄연히 ᄆᆡ골(埋骨)(이 되여)(60).

⑧ 百(ᄇᆡᆨ). pagumenina ᄇᆡᆨ민(百緡)이나(72),「和漢」農夫 p[q]akusegi 波°久世岐<百姓>(17[b]), 百 'irupaku 以留婆久(18[b]),「朝物」農夫 p[q]akisegu<百姓>(11[b]), 百 ba'iku(15[b]).

⑨ 生(ᄉᆡᆼ). saguwoburu ᄉᆡᆼ업(生業)을 (38), sagumowesiya (生母에셔)(66), saguseɴ (生鮮)(30), saguge'iruru (生計를)(94), sagu'a'iharahani (生涯)(121).

⑩ 財(ᄌᆡ). tsa'imururu (財物을)(55, 100, 110, 111), tsa'imuri (102), tsa'imuruɴ(113).

⑪ 册(ᄎᆡᆨ). tsakuru ᄎᆡᆨ(을)(118).

⑫ 責(ᄎᆡᆨ) tsakuhatoni ᄎᆡᆨ(ᄒᆞ더니)(103).

⑬ 行(ᄒᆡᆼ). haguhani ᄒᆡᆼ(ᄒᆞ니)(62), hagisiruru (行實을)(70).

b. 二重母音에서 o로 轉寫된 實例

① 梓(ᄌᆡ). tso'itogutse'ikuni (梓潼帝君이)(115).

漢字音의 경우 單母音 ᆞ는 거의 전부가 o로 轉寫된 반면, 二重母音의 音節主音 ᆞ는 'ᄌᆡ'(梓)를 除外하고는 環境에 관계없이 a로 轉寫되어 있다. 그런데 單母音 ᆞ는 'ᄒᆞᆫ'(恨)을 除外하고는 모두가 摩擦音, 破擦音 뒤에 配分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子音 뒤의 ᆞ가 주로 o를 보인다는 점은 固有語와 큰 差異를 보이지 않는다. 'ᄒᆞᆫ'(恨)의 ᆞ가 단 한 번일망정 a로 轉寫되어 있다는 점도 〔+舌端性〕子音 뒤에서보다 〔−舌端性〕子音 뒤에서 ᆞ 非音韻化가 먼저 實現되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二重母音의 音節主音 ᆞ에 대

106) 'ᄆᆡ양' 또한 일찌기 國語化한 語彙여서 固有語의 (61) a ②에 이미 提示된 바 있으나, 'ᄆᆡ'는 '每'에서 由來한 것이므로 여기에 다시 包含시켰다.

한 轉寫 역시 固有語와 그 性格을 같이한다. 결국「全一道人」의 、에 대한 轉寫는 固有語와 漢字音에 差異를 보이지 않는다.

3.3. 기타 資料의 、音 轉寫

「和漢」(1712)과「朝物」(1750)도 불완전하나마 、의 轉寫에 관한 한「全一道人」과 性格을 같이 한다. 、音 轉寫에서 固有語와 漢字音은 별다른 差異를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單母音과 二重母音으로 區別하여 위의 두 資料를 整理해 두기로 한다.

		標題	「和漢」	「朝物」	推定形
(64) a.	①	教		marot^{s}ita(14^{b})	ᄀᆞᄅᆞ치다
	②	秋		ko'oru(10^{b})	ᄀᆞ올
	③	橋		sori(9^{a})	ᄃᆞ리
	④	鶏	toruki(18^{a})	toruki(14^{a})	ᄃᆞᆰ
	⑤	里		mo'uka(10^{a})	ᄆᆞ올
	⑥	町		mo'uga(10^{a})	ᄆᆞ올
	⑦	馬	moru(18^{a})	moru(10^{a})	ᄆᆞᆯ
	⑧	風	p^{q}araɴ(17^{a})	barami(8^{b})	ᄇᆞᄅᆞᆷ
	⑨	壁		p^{q}araɴp^{q}iyoku(10^{a})	ᄇᆞ람벽
	⑩	捨		p^{q}arera(15^{a})	ᄇᆞ려라
	⑪	男	naɴza'u(17^{b})	soɴnahe(11^{a})	남ᄌᆞ～ᄉᆞ나희
	⑫	米	p^{q}isaru(17^{a})	hisari(9^{b})	ᄡᆞᆯ
	⑬	賣		sat^{s}iya(11^{a})	사쟈
	⑭	買		haruka(11^{a})	ᄑᆞᆯ가
	⑮	小豆	p^{q}at^{s}u(17^{a})	p^{q}at^{s}u(9^{b})	ᄑᆞᆺ
	⑯	慇懃		kuɴkiɴhata(15^{a})	은근ᄒᆞ다
		强		kaguhata(10^{b})	강ᄒᆞ다
		弱		yakuhata(11^{a})	약ᄒᆞ다
	⑰	一	haɴna(18^{a})	hana(15^{b})	ᄒᆞ나
	⑱	土	huru(17^{a})	huru(9^{b})	ᄒᆞᆰ
b.	①	明日		na'iru(14^{a})	ᄂᆡ일
	②	內		kawoɴda'i(10^{b})	가온ᄃᆡ

③ 所		to'i(10^a)	ᄃᆡ
④ 梅	ba'iha'i(17^a)	maba'i(9^b)	ᄆᆡ화
⑤ 船	p^qa'i(17^b)	p^qa'i(10^a)	ᄇᆡ
⑥ 學		ha'ihata(14^b)	ᄇᆡ호다
⑦ 農夫	p^qakusegi(17^b)	p^qakisegu(11^b)	ᄇᆡᆨ셩
百	'irupaku(18^b)	ba'iku(15^b)	일ᄇᆡᆨ~ᄇᆡᆨ
⑧ 泉		siyoN(9^a)	ᄉᆡᆷ
⑨ 濱		ha'izuN(9^a)	ᄒᆡ변
⑩ 白		hu'ita(10^b)	ᄒᆡ다

轉寫에 결함이 많이 內包되어 있으나 그런대로 第一音節의 ㆍ에 대해서 檢討할 수 있게 해준다. 우선 「和漢」과 「朝物」에 共通되는 項目들은 서로 다른 語彙를 나타내고 있는 (64)a⑪을 除外하고는 ㆍ의 轉寫에 同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單母音으로서 'ᄇᆞᄅᆞᆷ, ᄇᆞᆯ, ᄑᆞᆺ, ᄒᆞ나'의 第一音節 ㆍ는 a로 나타나며 'ᄃᆞᆰ, ᄆᆞᆯ'은 o, 'ᄒᆞᆰ'은 u로 나타난다. 二重母音으로서는 'ᄇᆡ'와 漢字音 'ᄆᆡ, ᄇᆡᆨ'이 있는데, 이들의 音節主音 ㆍ는 a를 보이고 있다. 'ᄑᆞᆺ'과 'ᄃᆞᆰ' 그리고 漢字音 'ᄆᆡ'(梅)는 「全一道人」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은 ㆍ 非音韻化의 過程探索에 새로 追加되는 實例가 된다. 이 追加例와 'ᄇᆞᆯ'을 除外하면 「和漢」과 「朝物」의 ㆍ에 대한 轉寫는 「全一道人」과 완전히 一致한다. 다만 「和漢」과 「朝物」에 a로 轉寫되어 있는 'ᄇᆞᆯ'의 ㆍ는 「全一道人」에 o로 轉寫되어 있다.

한편 「朝物」에만 나타나는 語彙形態素도 示唆的인 면을 지니고 있다. 單母音으로서는 'ᄆᆞᄅᆞ치-', 'ᄇᆞ람'(壁), 'ᄇᆞ리-', 'ᄑᆞᆯ-'(여기서는 買의 뜻으로 쓰였지만), 'ᄒᆞ-'(爲)의 第一音節 ㆍ가 a로 나타나며, 'ᄀᆞ올, ᄃᆞ리, ᄆᆞ올, ᄉᆞ나ᄒᆡ'의 第一音節 ㆍ는 o로 나타난다. 二重母音으로서는 'ᄇᆡ호-'와 漢字音 'ᄂᆡ, ᄒᆡ'의 音節主音 ㆍ가 a로 轉寫되어 있고, 'ᄉᆡᆷ'은 o, 'ᄒᆡ-'는 u로 나타난다.[107] 'ᄒᆞᆰ'과 'ᄒᆡ-'의 ㆍ는 일찍부터 '흙, 희-'로 굳어졌으므로,

107) '가온ᄃᆡ'의 'ᄃᆡ'와 (64)b③의 'ᄃᆡ'(所)는 同一한 形態素로 생각되는데, 前者의 ㆍ는 a, 後者의 ㆍ는 o로 나타난다. 그러나 'ᄃᆡ'는 自立形態素가 아니어서, 'ᄉᆡᆷ'의 ㆍ가 o로 나타나는 것과는 그 性格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全一道人」에는 kawoNda'i 가온대(42)로 나타난다.

이들의 音節主音이 u로 나타나는 일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ᄇᆞ람'(壁), 'ᄆᆞ올', 'ᄃᆞ리', 'ᄉᆞ나ᄒᆡ', 'ᄉᆡᆷ' 그리고 漢字音 'ᄒᆡ'(海)가 「全一道人」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追加例가 된다.[108] 이들을 除外한 第一音節 母音 ㆍ의 轉寫는 「全一道人」과 모두 一致한다. 다만 「全一道人」에는 二重母音의 音節主音 ㆍ가 第一音節에서 o로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는데, 「朝物」에는 'ᄉᆡᆷ'의 ㆍ가 o로 나타난다.

3.4. ㆍ音 轉寫의 實狀

「全一道人」을 위시한 倭文字 轉寫資料는 ㆍ의 發話現實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거기에 出現하는 語彙形態素들은 ㆍ 非音韻化의 過程을 그나름대로 밝혀 준다. 그 實狀을 環境別로 分類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第一音節의 單母音 ㆍ에 대해서 整理하기로 한다.[109] 國語添記를 보여 주는 形態素는 그 語幹形으로 提示한다. 國語添記를 보이지 않는 形態素는 推定形으로 提示하고 별표(*)를 달아 둔다. 「和漢」과 「朝物」에만 나타나는 形態素는 꺾임 괄호(〔 〕)를 써서 補充資料임을 表記한다.

(65) a. a로만 轉寫된 例

① ᄒᆞ나(一), ᄒᆞᄅᆞ(一日), ᄒᆞ리-(瘉)

가ᄅᆞ치-(教), ᄆᆞ리오-(蔽), *ᄆᆞ장(最), ᄆᆞᄎᆞ-(備), ᄀᆞᆯ(蘆), ᄀᆞᆯ래-(横), *ᄀᆞᆯ오-(曰), ᄀᆞᆯᄒᆡ-(擇), ᄀᆞᆷ-(閉眼), ᄀᆞᆷ-(浴), ᄀᆞᆷᄎᆞ-(備), ᄀᆞᇀ-(如)

*ᄇᆞᄅᆞᆷ(風), 〔*ᄇᆞ람(壁)〕, ᄇᆞ리-(棄), *ᄇᆞᆰ-(明), ᄑᆞᆯ(臂), ᄑᆞᆯ-(賣), 〔*ᄑᆞᆾ(小豆)〕

② *ᄃᆞᆮ니-(行), ᄃᆞᆮ-(走), ᄃᆞᆯ(月), ᄯᆞ로(別), ᄯᆞᄅᆞᆷ(耳矣), ᄯᆞᆯ(女), ᄐᆞ-(乘), *ᄐᆞ-(和)

108) 'ᄃᆞ리'는 「全一道人」의 凡例 3에 國語表記로 한번 나타나지만, 本文에 轉寫表記로 나타나는 일은 없다.

109) 여기에는 17세기부터 나타나 慣用化한 'ᄡᅡᄒᆡ-'의 變化形 'ᄡᅢ이-', '보야ᄒᆞ로'의 變化形 '*ᄇᆞ야흐로'와 '설'의 意味分化形으로서 慣用表記化한 'ᄉᆞᆯ'(歲)을 包含시키지 않는다. 이들은 ㆍ 非音韻化에 대한 간접적인 根據일 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가마니, *고올(邑), ᄒᆞᆰ, 희-(白), 되-(化)' 등도 여기서는 除外시킨다.

③ ᄉᆞᆯ지-(肥), ᄎᆞ-(寒, 滿, 佩)

b. o로만 轉寫된 例

① 〔*ᄀᆞᄋᆞᆯ(秋)〕, ᄀᆞᄅᆞ(粉), ᄀᆞᆺ(纔)
ᄇᆞ아지-(碎)

② 〔*ᄃᆞ리(橋)〕, ᄃᆞ토-(爭), 〔*ᄃᆞᆰ(鷄)〕

③ 〔*ᄉᆞ나ᄒᆡ(男)〕, *ᄉᆞ랑ᄒᆞ-(愛), ᄉᆞᄆᆞᆾ-(通), ᄉᆞᆯ(肉), *ᄉᆞᆯ오-(白), ᄉᆞᆯ피-(察), ᄡᆞ-(値), ᄉᆞ(四, *私, *事, *使, 士, *辭, 仕)
ᄌᆞᄅᆞ-(長), ᄌᆞ로(頻), ᄌᆞ르-(斷), ᄌᆞᄆᆞᆺ(頗), ᄌᆞ(*字, 子, 仔, 姉), ᄎᆞᆷ-(忍), ᄎᆞ(次)

④ ᄆᆞ올(村), *ᄆᆞᄋᆞᆷ(心), ᄆᆞᆮ(伯), ᄆᆞᆯ(馬), ᄆᆞᆺᄎᆞᆷ내(終), ᄆᆞᆾ-(終), ᄂᆞ믈(菜), ᄂᆞ리-(降), ᄂᆞᆫ호-(分), ᄂᆞᆯ-(飛), *ᄂᆞᆷ(他), ᄂᆞᆾ(顏)

c. a, o 두가지로 轉寫된 例

① ᄒᆞ-(爲), ᄒᆞᆫ(恨), ᄀᆞ(邊)

② ᄯᆞ르-(從)

③ ᄉᆞᆱ-(烹), ᄎᆞᆽ-(尋), <*ᄡᆞᆯ(米), ᄉᆞᆯ(肉)~ᄉᆞᆯ지-(肥)[110]>

語彙形態素의 第一音節 母音 ㆍ에 대한 倭文字 轉寫 結果는 國語文獻에 反映된 表記와 發話現實間의 거리가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알려 준다. 우선 喉頭摩擦音, 軟口蓋音, 兩唇無聲音 뒤에 配分되는 ㆍ의 거의 전부가 a로 나타난다. 같은 環境下의 ㆍ가 o로 나타나는 경우는 數三例에 그치고 있음이 (65)b①로 確認된다. 舌端破裂音 뒤에 配分되는 ㆍ 역시 그 거의 전부가 a로 轉寫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舌端摩擦音, 破擦音 뒤에 配分되는 ㆍ는

110) 'ᄡᆞᆯ'은 「全一道人」에 o, 「和漢」과 「朝物」에 a로 나타나, 資料에 따른 差異를 보인다. 다른 形態素들이 대부분 轉寫에 共通性을 보이는데, 어째서 'ᄡᆞᆯ'만은 그러한 差異를 보이는지, 그것도 年代가 앞서는 「和漢」에 어째서 오히려 a로 나타나는지, 그 理由를 說明할 수가 없다. 한편 'ᄉᆞᆯ'(肉)과 'ᄉᆞᆯ지-'(肥)의 'ᄉᆞᆯ'은 분명히 같은 形態素일 텐데 「全一道人」에 'ᄉᆞᆯ'은 o, 'ᄉᆞᆯ지-'의 'ᄉᆞᆯ'은 a로 轉寫되어 있어, 統辭的 機能에 따른 差異처럼 보이기도 한다. 'ᄉᆞᆯ지-'는 (65)a③에, 'ᄉᆞᆯ'은 (65)b③에 일단 提示된 바 있으나, 단 한번씩 쓰인 實例여서, 그것이 機能別 差異인지 단순한 聽覺的 認知上의 差異인지를 判斷하기 어렵다. 이러한 緣由로 'ᄡᆞᆯ'과 'ᄉᆞᆯ, ᄉᆞᆯ지-'를 여기에 참고로 提示만 해 둔다.

그 絕對多數가 o로 나타나는 傾向을 뚜렷하게 보인다. 다만 'ᄎᆞ-'(寒, 滿, 佩)만은 모두 a를 보이고 있다. 'ᄎᆞ-'(寒)는 「譯語類解」(1690)에 '차-'로 나타남이 確認된 바 있어, 「全一道人」의 'ᄎᆞ-'에 대한 轉寫가 ㆍ 非音韻化 結果임을 알려 준다.[111] 한편 鼻音 뒤에 配分되는 ㆍ는 例外없이 o로 나타난다.

倭文字 轉寫資料의 이러한 實狀은 同一形態素의 ㆍ에 대한 轉寫가 a와 o 양쪽을 넘나 들며 流動性을 보이는 (65)c의 몇몇 實例에서도 再確認된다. 가령 'ᄒᆞ-'의 경우 470여회의 用例 가운데 20여회를 除外한 나머지 전부가 ㆍ로 轉寫되어 있다. 따라서 'ᄒᆞ-'의 ㆍ는 실질적으로 非音韻化를 이미 끝마친 것이다. 다만 漢字音 'ᄒᆞᆫ'(恨)은 모두 4회의 用例中 1회만 a로 나타날 뿐 나머지 3회가 o를 보이고 있어 'ᄒᆞ-'와는 反比例的 實狀을 보인다. 이것은 'ᄒᆞᆫ'이 漢字形態素로서, 'ᄒᆞ-'와는 語彙的 範疇를 달리 하기 때문일 것이다.[112] 한편 筆者의 調査에 의하면 'ᄯᆞ르-'의 用例는 3회에 불과하나, 그 派生語인 'ᄯᆞ로, ᄯᆞ롬'까지를 합하면 5회가 된다. 이 중 1회를 除外하고는 모두가 a로 나타난다. 이에 반하여 'ᄎᆞᆽ-'은 8회의 用例中 1회를 除外하고는 모두 o로 轉寫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第一音節의 ㆍ가 喉頭摩擦音과 舌端破裂音 뒤에서는 a로, 舌端破擦音 뒤에서는 o로 轉寫되는 全體的 實狀과 正比例하는 것이다.

口蓋性 下降二重母音의 音節主音 ㆍ에 대한 轉寫는 다음과 같은 實狀을 보인다.

(66) a. a로만 轉寫된 例

---

111) 「全一道人」에는 같은 音韻現象의 表面形이 國語로는 서로 다르게 表記된 경우가 나타난다. momi。tsa(몸이) ᄎᆞ<寒>(18)의 경우에는 'ᄎᆞ+아→차'가 'ᄎᆞ'로, kukusiyuwo'i。ta(국슈의) 타<和>(110)의 경우에는 'ᄐᆞ+아→타'가 '타'로 表記된 것이다. 이 事實로도 'ᄎᆞ-'(寒), 'ᄐᆞ-'(和)의 ㆍ가 함께 非音韻化했음을 알 수 있다.

112) 固有語와 漢字形態素라는 語彙的 範疇上의 差異는 ㆍ 非音韻化에 原則的으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앞에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ᄒᆞᆫ'의 ㆍ가 固有語와 差異를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個別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漢字音에 밝은 知識人의 言語行爲(linguistic performance)에서는 同一한 音韻變化가 固有語보다 漢字音에 늦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ᄒᆡ(海)〕, ᄒᆡᆼ(行), ᄀᆡ(改), ᄭᆡ돋-(覺), ᄇᆡ(舟, 腹), ᄇᆡ-(孕), ᄇᆡ얌(蛇), *ᄇᆡ호-(學), ᄇᆡᆨ(百)

ᄃᆡ(代, *對, *待)

ᄉᆡᆼ(生), ᄉᆡᆼ각, ᄌᆡ(*財), ᄎᆡ오-(滿), ᄎᆡᆨ(册, 責)

ᄆᆡ(每), ᄆᆡ(埋), 〔*ᄆᆡ(梅)〕, ᄆᆡ-(結), ᄂᆡ(來)

b. o로만 轉寫된 例

〔*ᄉᆡᆷ(泉)〕, ᄌᆡ(*梓)

c. a, o 두가지로 轉寫된 例

〔*ᄃᆡ(所)〕

d. e로만 轉寫된 例

ᄆᆡᆫ(밥), ᄆᆡᆫ돌-(作)

單母音 ㆍ가 先行하는 子音의 音聲資質에 따라 a 또는 o로 다르게 轉寫된 實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곧 二重母音의 音節主音 ㆍ는 'ᄌᆡ'(梓) 一例를 除外하고는, 先行子音의 資質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a를 보인다. 'ᄉᆡᆷ'과 依存形態素 'ᄃᆡ'가 o를 보이고는 있으나 「朝物」에만 나타나는 實例여서 믿을 바가 못된다. 單母音에서 결코 a로 나타나는 일이 없었던 鼻音下의 ㆍ도 二重母音에서는 a를 보인다. 다만 'ᄆᆡᆫ(밥), ᄆᆡᆫ돌-'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e를 보인다.[113] 이러한 實例들은 ㆍ 非音韻化가 單母音에서보다 二重母音에서 먼저 일어났음을 알려주는데,[114] 그 要因은 音節主音 ㆍ에 後行하는 y라고밖에 생각할 길이 없다. 앞에서 이미 檢討된 바와 같이 國語文獻에서 일찍부터 確認되는 'ᄒᆞ야디-(ᄇᆞ리-)>하야디-(ᄇᆞ리-), ᄆᆞ야지>마야지'도 같은 理由로 說明될 수 있다.

4. ㆍ 非音韻化의 過程

4.1. ㆍ 非音韻化의 擴散過程

이미 앞에서 ㆍ 非音韻化가 〔−鼻音性, −舌端性〕 資質로 이루어지는 子音

113) 이것이 二重母音의 單母音化를 反映하는 것인지, 단순히 ㆍ 非音韻化를 反映하는 것인지, 筆者로서는 그 解答을 후일의 課題로 넘기는 수밖에 없다.

114) 「捷解新語」(1676)에 '東萊'가 toneki 동ᄂᆡᆼ기(二 1ª)로 나타난다. 地名이란 特殊性을 가진 것이지만, 'ᄂᆡ'(萊)의 ㆍ가 일찌기 非音韻化한 實例가 아닌가

部類, 즉 ㅎ, ㄱ, ㅂ와 같은 子音 下에서 먼저 일어 났음을 國語文獻에 대한 檢討를 통하여 밝힌 바 있다. 그 發端은 16세기 말엽이었는데, 'ᄒᆞᆰ>흙'이 그 先頭走者였다. 이 때의 非音韻化는 ㆍ가 ㅡ와의 中和的 對立關係를 어느 정도나마 維持하고 있던 時期에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ᄀᆞ마니(潛)>가마니'와 같은 實例도 16세기 말엽에 나타난다. 이것은 ㆍ가 體系上 ㅡ와의 對立關係를 벗어나 ㅏ와의 對立關係로 굳어져가기 시작한 時期가 16세기 말엽이었음을 暗示하고 있다.[115] 이러한 推理는 'ᄡᆞ이-(拔)>ᄡᅢ이-'와 같은 逆行性 表記가 16세기 말엽에 나타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語彙形態素 第一音節의 ㆍ 非音韻化가 國語文獻에 좀더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時期는 17세기 중엽이다. 이 때에는 ㆍ가 ㅏ로 合流되는데, 그 대표적 形態素가 'ᄒᆞ야(毁, 破)>하여'이다. 17세기 말엽에는 'ᄀᆞ새(剪子)>가ᄋᆡ'가 「譯語類解」(1690)에서 確認되며, 非語頭 音節에서도 '다ᄆᆞᆫ>다만'이나 'ᄇᆞᄅᆞᆷ(風)>ᄇᆞ람'이 17세기 중엽에 나타난다. 17세기 중엽에는 다시 '간나희(女)>ᄀᆞᆫ나희'와 같은 逆行性 類推表記가 文獻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ㆍ와 ㅏ의 中和的 對立이 安定段階에 접어 들면서 ㆍ 非音韻化가 서서히 擴散되고 있었음을 示唆한다.

이러한 文獻的 根據들은 ㆍ 非音韻化가 〔-鼻音性, -舌端性〕 子音部類下에서 먼저 일어났음을 알려 준다. (65)a①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倭文字 轉寫資料도 이 사실을 뒷받침 해 준다. 여기에는 ㅎ, ㄱ, ㅂ, ㅍ에 後行하는 ㆍ가 거의 대부분 a로 轉寫되어 있어, 第一音節의 ㆍ 非音韻化가 18세기초엽에는 이러한 環境下의 거의 모든 語彙形態素에 擴散되었음을 보여 준다.

第一音節의 ㆍ 非音韻化는 다시 〔-鼻音性, +舌端性〕 資質로 이루어지는

한다.

115) 진정한 意味의 ㆍ 非音韻化는 第一音節 位置라는 配分的 制約을 보였던 ㆍ의 완전한 消失을 뜻하므로, 16세기에 크게 일어난 非語頭音節의 ㆍ>ㅡ는 中和的 性格을 지닌 것이었다고 解釋된다. 이 때의 中和는 必須的이라기보다 隨意的인 것이었다. 同一한 形態素의 非語頭音節 表記에 ㆍ와 ㅡ가 오랫동안 共存한 사실이 그러한 推理를 뒷받침 한다. 16세기에 '사ᄅᆞᆷ>사름', 17세기에 '다ᄆᆞᆫ>다믄'으로 나타나던 것이 그후 '사ᄅᆞᆷ>사람', '다ᄆᆞᆫ>다만'으로 굳어진 것도 같은 理由로 說明된다.

子音部類, 즉 ㄷ, ㅅ, ㅈ와같은 子音 環境으로 擴散되어 갔을 것이다. 그 發端時期는 17세기 말엽으로 推定되는데, 그것은 'ᄎᆞ-(寒)>차-'와 같은 實例가 「譯語類解」에서 처음으로 確認되기 때문이다.[116] 그런데 倭文字 轉寫資料는 같은 〔+舌端性〕 子音部類中에서도 破裂音下에서 、非音韻化가 먼저 일어났음을 暗示하고 있다. ㄷ, ㅌ下의 、가 거의 대부분 a로 轉寫되어 있는 반면, ㅅ, ㅈ, ㅊ下의 、는 그 대부분이 o로 轉寫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非音韻化에 또 하나의 音聲資質인 〔粗擦性(strident)〕의 關與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결국 倭文字 轉寫資料는 같은 〔+舌端性〕 子音일지라도 〔+粗擦性〕 子音 뒤에서보다는 〔−粗擦性〕 子音 뒤에서 、非音韻化가 먼저 일어났음을 示唆하고 있다고 解釋된다.[117]

결국 通時的으로는 、非音韻化가 ㅅ, ㅈ 뒤에서보다 ㄷ(ㄹ) 뒤에서 먼저 일어났겠지만, 國語文獻에는 그러한 現實이 전혀 反映되어 있지 않다. 18세기 초엽에는 、非音韻化가 〔+舌端性〕 子音中 〔+粗擦性〕 子音 環境에까지 擴散되었다. 「全一道人」의 轉寫에는 ㅅ, ㅈ, ㅊ下의 、가 대부분 o로 나타나지만, 'ᄉᆞᆯ'(肉), 'ᄉᆞᆱ-'(烹), 'ᄎᆞᆽ-'(尋)의 경우처럼 同一한 形態素의 、에 대한 轉寫가 a, o 두가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사실은 、가 同一한 形態素의 第一音節에서 隨意的 變異音으로 實現되었음을 暗示하고 있다. 이러한 隨意的 變異는 다름아닌 、非音韻化를 뜻하는 것이다.

---

116) 「譯語類解」에서는 또 하나의 注目되는 實例 '아자비(叔伯)>아ᄌᆞ비'와 같은 心理的 過剩修正으로서의 類推表記가 發見된다(李基文 1983). 그런데 이 變化는 非語頭音節에 나타난 것인데다가, 範例的으로는 '아ᄌᆞ미'라는 語彙形態素에서 직접 類推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ㅈ 下의 、非音韻化에 따른 17세기 말엽의 音韻論的인 逆行性 表記로 解釋하기는 어렵다. '아자비>아ᄌᆞ비'와 같은 類型에 속하는 또 하나의 實例로서 '아자바님'에 대한 'ᄋᆞᄌᆞ바님'이 이미 15세기 文獻에서 確認되기 때문이다.

한편 「全一道人」의 國語添記에는 '아ᄌᆞ비'라는 語彙가 두번 쓰였는데, 한번은 'ad^{z}ubi(111), 또 한번은 'azabi(114)로 轉寫되어 있다. 어느 쪽이 당시의 'ᄌᆞ'에 대한 發話現實인지 이 實例만으로는 判斷이 서지 않는다.

117) 이 때의 〔粗擦性〕 資質을 〔持續性(continuant)〕 資質로 대신할 수 없는 理由는 ㅈ와 ㅎ 때문이다. 특히 ㅎ는 〔+持續性〕인 반면, ㄱ와 ㅂ는 〔−持續性〕인데, ㅎ, ㄱ, ㅂ가 한 部類가 되어 、非音韻化를 誘發했던 것으로 解釋되기 때문에, 이들을 같은 部類로 묶으려면 〔−粗擦性〕 資質이 利用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는 또 다른 根據도 있다. (25)b①②③에 提示된 바와 같이, 雨森芳洲는 國語添記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와 ㅗ, 、와 ㅓ를 混同하고 있다. 이를 다시 한번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67) a. 、를 ㅗ로 : ᄂᆞᆫ흘→논흔, ᄃᆞ토와→도토와
ㅗ를 、로 : 놈→ᄂᆞᆷ, 소릐→ᄉᆞ릐, 고초(苦楚)→고ᄎᆞ
b. 、를 ㅓ로 : ᄌᆞᆯ라→절로
ㅓ를 、로 : 섯거→ᄉᆞᆺ고, 되엿더니→되엿ᄃᆞ니

이러한 混同表記는 모두가 〔+舌端性〕 子音下에서 일어난 것들이다. 第一音節의 、에 대한 당시의 慣用的 表記를 거의 정확히 把握하고 있었던 雨森芳洲가 ㄴ, ㄷ와 ㅅ, ㅈ, ㅊ 뒤에 나타나는 、를 몇 번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混同했다는 사실은 、 非音韻化가 〔+粗擦性〕 子音下에까지 擴散되어 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17세기 중엽의 國語文獻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설'(歲)의 意味分化形 'ᄉᆞᆯ'이 그후 慣用化하기에 이른 사실이나,[118] 18세기 중엽의 「同文類解」(1748)에서 確認되는 '사ᄉᆞ>ᄉᆞ애, 잡말>ᄌᆞᆫ말'과 같은 類推的 表記의 出現도 〔+粗擦性〕 子音下의 、 非音韻化에 그 基盤을 둔 것이었다. 다만 같은 環境下의 、일지라도 非音韻化의 語彙別 擴散은 漸進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舌端性〕 子音 뒤에 나타나는 非語頭音節의 、 중에도 18세기 초엽 이후까지 非音韻化를 經驗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았겠지만,[119] 이 때 쯤에는 〔+舌端性〕 子音 下의 、非音韻化가 이미 話者의 文法

118) 다음과 같은 實例가 文獻에서 確認된다.
다ᄉᆞᆺ ᄉᆞᆯ엣 아희(「朴通事諺解」 中 11a)
나히 ᄀᆞᆺ 세 ᄉᆞᆯ인제(「伍倫全備諺解」 一 1b)
이 'ᄉᆞᆯ'의 、는 「全一道人」의 轉寫에 o로 나타난다.
'ahobusoro'i 아홉 ᄉᆞ릐(29), do'isoru (네ᄉᆞᆯ)(82)

119) 「全一道人」에는 〔+舌端性〕 子音 뒤에 나타나는 非語頭音節의 、가 오히려 o로 轉寫된 경우가 많으나, 이들이 모두 、의 維持形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非語頭音節의 、가 o로 轉寫된 形態素中에는 '*다ᄉᆞᆺ'(19, 22)과 '여ᄃᆞᆲ'(22)이 있다. 이들은 後代에 각기 '다섯, 여덟'으로 變했으므로, 18세기 초엽까지는 、를 維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客館集」(1720)에는 倭語 'iroha의 ro에 'ᄅᆞ'를 對應시키고 있는데, 이 때만은 、가 그 본래의 資質로 利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에 變化를 가져왔을 것이다. 따라서 話者의 文法知識을 기준으로 한다면 、非音韻化가 18세기 초엽에는 〔-鼻音性, +舌端性〕 子音下에까지 擴散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후부터 、非音韻化는 〔+鼻音性〕 子音環境下로 擴散되어 갔을 것이다. 그 過程은 〔-鼻音性〕 子音 環境 때와 같았을 것으로 推測된다. 곧 〔+鼻音性〕 子音下에서의 、非音韻化는 〔+舌端性〕 子音인 ㄴ 下에서 보다 〔-舌端性〕 子音인 ㅁ 下에서 먼저 이루어졌으리라고 가정된다. 非語頭音節이긴 하지만 '다ᄆᆞᆫ>다만'이 17세기 중엽부터 文獻에 나타나는 사실도 ㄴ보다 ㅁ뒤에서 、非音韻化가 먼저 이루어졌음을 暗示하는 듯하다.

4.2. ㅡ 唇音化와 、非音韻化

지금까지 檢討해 온 、非音韻化의 過程은 、와 中和的 對立을 이루고 있던 ㅡ의 行態와 無關할 수가 없다. 그러한 行態中의 하나가 ㅡ 唇音化라고 할 수 있다. 兩唇子音下에서 일어난 ㅡ 唇音化가 母音體系의 推移와 관계된다는 사실은 일찌기 注目된 바 있다(金完鎭 1963).

ㅡ 唇音化는 母音體系上 、와 對立의 짝을 이루고 있던 ㅡ가 새로 ㅜ와 對立의 짝을 이루어 가는 通時的 過程을 보여 준다. 그런데 ㅡ 唇音化는 17세기초엽부터 散發的으로 文獻에 노출되기 시작한다(田光鉉 1967 : 85-86). 이러한 사실은 ㅡ와 、의 中和的 對立이 ㅡ와 ㅜ의 中和的 對立으로 移行하기 시작한 時期가 16세기 말엽이었음을 暗示한다.[120] 이 時期는 、가 ㅏ와의 中和的 對立으로 移行하는 時期와 대략 一致된다. 'ᄀᆞ마니>가마니'에 나타나는 、>ㅏ와 같은 變化나, 'ᄡᅢ이->ᄉᆡ이-'에 나타나는 ㅏ>、와 같은 逆行性 表記가 이미 16세기 말엽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17세기 말엽에 이르면 ㅡ 唇音化는 상당한 語彙的 擴散을 보인다. 例컨데 「譯語類解」(1690)에는 다음과 같은 實例가 나타난다.

---

120) 國語母音體系의 通時的 推移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활발한 論議가 계속되어 왔다(金完鎭 1963, 1971, 1978, 金芳漢 1964, 李基文 1968, 1972[b]). 그러나 本研究에서는 體系 자체의 本質的 性格보다 話者의 言語行爲에 나타나는 母音 相互間의 表面的 行態에만 관심을 두기로 한다.

(68) a. 放水 믈트다(上 7[b]) 水酒 무술(上 49[b])
水桶 물통(下 14[a])
江鮑 물아치(下 38[a])
苦理木 무프레(下 42[a])
扎艋子 므ᄌᆞ미ᄒᆞᄂᆞᆫ 사ᄅᆞᆷ(下 22[a]) 氽水 무ᄌᆞ미ᄒᆞ다(下 22[a])
爛煮 믈으게 솖다(上 53[a]) 爛飯 무른밥(上 49[a])
咬 므다(上 54[a]) 咬人馬 사ᄅᆞᆷ무ᄂᆞᆫᄆᆞᆯ(下 29[a])
燒火 블ᄯᅵᆺ다(上 54[a]) 坐火 박히ᄂᆞᆫ 불(下 18[a])

b. 告示 榜부티다(上 10[a])
欽差 皇旨로 부리인 이(上 13[a])
竈火門 부억아귀(上 18[b])
叫更的 更부ᄅᆞᄂᆞᆫ 사ᄅᆞᆷ(上 23[b])
饙酒 술붓다(上 59[a])
起泡 부룻다(上 62[a])
從他 무던히 너기다(下 46[a])
不怯氣 무셔워 아니타(下 49[b])

c. 下葬 묫다(上 42[b]) 種火 블믓다(上 54[a])
陪者 무다(上 66[a]) 追陪 믈리다(上 66[a])
打倒 홍졍 므르다(上 69[a])
特將來 부러오다(下 52[a]) 專來 블어오다(下 48[a])
牙框 니ㅅ블희 븟ᄐᆞᆫᄃᆡ(上 33[b])
遮羞 붓그림 ᄆᆞ리오다(上 38[b])

d. 紡車 믈레(下 18[a]) 釘笄子 물렛가락(下 18[a])

우선 (68)a와 b는 兩唇子音下에서 ㅡ>ㅜ와같은 唇音化를 겪은 實例들이다. 다만 a는 '믈, 물', '블, 불'처럼 唇音化한 語形과 그 이전의 語形이 共存하는 경우이고, b는 唇音化한 語形만 나타나는 경우이다. '믈, 블'은 몇개의 合成語에서만 唇音化를 보일 뿐, 대부분의 경우에 본래의 語形을 維持하고 있으며, 특히 '플'(草), '쁠'(角)은 唇音化를 보여 주지 않는다. (68) c는 a나 b와는 反對로 ㅜ>ㅡ와 같은 逆行性 表記를 보여 주는 實例들이다. 이러한 逆行性 表記는 이 時期에 ㅡ 唇音化가 경우에 따라 話者의 語彙目錄 認識에 動搖를 일으키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68)d는 어느 쪽이 본래의 語

形인지 불분명하지만, 이 역시 話者의 語彙目錄에 動搖를 보이고 있는 實例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譯語類解」에는 兩脣子音環境과 관계되는 語彙目錄이 動搖를 보이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 脣音化한 語形과 본래의 語形, ㅜ>ㅡ와 같은 逆行性 表記와 본래의 語形이 각기 共存하는 일도 드물다. 이것은 당시의 話者들이 兩脣子音下의 ㅡ와 ㅜ를 形態素別로 어느정도 區別할 수 있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17세기 말엽까지 ㅡ 脣音化가 일부의 形態素에만 擴散되었음을 示唆하고 있다. 그것은 ㅡ와 ㅜ가 그 때까지 완전한 中和的 對立의 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推理는 다시 ㅡ와의 對立에서 풀려난 ㆍ 또한 ㅏ와의 中和的 對立을 완전히 構築하는 데까지에는 이르지 못했으리라는 推理를 許容해 준다. 17세기 말엽까지 第一音節의 ㆍ 非音韻化가 특정한 音聲部類 環境下의 몇몇 形態素에만 局限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한 推理를 뒷받침해 준다. 요컨대 17세기 말엽까지는 ㅡ 脣音化나 ㆍ 非音韻化가 話者의 文法知識에 부분적인 變化를 가져다 주었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18세기 초엽에 이르면 兩脣子音下의 ㅡ나 ㅜ가 거의 대부분의 形態素에서 본래의 모습에 動搖를 보이고 있다. 「伍倫全備諺解」(1721)는 音韻論的 側面에서 특히 保守性을 강하게 띠고 있는 文獻임에도 불구하고 ㅡ 脣音化나 ㅜ>ㅡ와 같은 逆行性 表記에 관계되는 많은 語彙目錄에서 ㅡ와 ㅜ가 심한 動搖를 보이고 있다.

(69) a.	므숨<何>(一 2^b)	무숨(一 11^a)
	므던ᄒᆞ다(一 25^b)	무던ᄒᆞ다(一 10^b)
	므릇(六 6^a)	무릇(八 5^b)
	므러<咬>(六 13^b)	무러(七 32^b)
	블러(一 2^a)	불러(五 19^a)
	브르니라<飽>(二 28^b)	부르다(二 40^b)
	브즈런이<勤>(五 31^a)	부즈런ᄒᆞ도다(三 39^a)
b.		부억<厨>(四 5^a)
		ᄲᅮᆯ<角>(五 24^a)

c. 무리<輩>(一 28^{a})	믈이(一 22^{a})
무르라<問>(六 21^{b})	므르리라(四 8^{a})
붓그림<羞>(三 8^{b})	븟그러움(八 5^{a})
부리<嘴>(一 43^{a})	브리(七 16^{a})

(69)a와 b는 ㅡ 唇音化를 보이는 경우이고, (69)c는 반대로 逆行性 表記를 보이는 경우이다. 語彙的으로는 '쓸'이 唇音化한 語形으로 나타나고 있어, 「譯語類解」보다는 ㅡ 唇音化가 좀더 擴散되었음을 알려준다. 個別的인 形態素로 보더라도 唇音化한 語形이나 逆行性 表記에 의한 語形이 각기 본래의 語形과 共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리'(輩), '부리'(嘴)가 逆行性 表記인 '믈이, 브리'와 함께 쓰이므로써, '믈'(水), '블'(火)의 曲用形인 '므리, 브리'나, 그 唇音化形인 '무리, 부리'가 각기 現實的으로는 同音異義語(homophone)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ㅡ 唇音化가 17세기 말엽보다 훨씬 深化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兩唇子音下의 ㅡ와 ㅜ에 動搖를 보이고 있는 語彙目錄이 많다는 사실은 18세기 초엽의 話者가 兩唇子音下의 ㅡ와 ㅜ를 제대로 區別할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점들을 勘案할 때, 적어도 18세기 초엽에는 ㅡ와 ㅜ가 唇音性 資質에 의한 高母音의 짝으로 굳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때문에 兩唇子音環境下에서는 ㅡ와 ㅜ가 어느 쪽으로도 混同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ㆍ와 ㅏ 또한 低母音의 짝으로 굳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ㆍ와 ㅏ는 완전한 中和的 對立關係를 맺게 된 것이다. 「全一道人」에 反映되어 있는 ㆍ 非音韻化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곧 18세기 초엽에는 〔+鼻音性〕 子音部類를 除外한 나머지 子音部類下에서 상당한 語彙形態素의 第一音節 ㆍ가 ㅏ에 中和되어 非音韻化하게 된 것이다.

4.3. ㆍ 非音韻化의 過程

결론적으로 ㆍ非音韻化는 다음과 같은 過程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非語頭音節에 나타나던 ㆍ가 ㅡ로 中和되면서 ㆍ의 配分은 주로 語彙形態素의 第一音節에 局限되기에 이르렀다. ㆍ가 ㅡ와의 中和的 對立關係를 벗어나 ㅏ

와의 中和的 對立關係를 새로 맺기 시작하면서, 語彙形態素의 第一音節에 維持되어 온 ·는 一定한 條件에 따라 ㅏ로 中和될 수 있는 潛在性을 지니게 되었다. 第一音節의 ·가 ㅏ로 中和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엽이지만, 그 때까지의 · 中에는 '흙>흙'에서처럼 前代의 中和的 對立關係에 따라 ㅡ에 合流된 것도 있다. 말하자면 '흙'의 ·는 音節 位置라는 條件에 따라서 ㅏ에 合流되는 길을 버리고, 時期라는 條件에 따라 ㅡ에 合流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17세기 말엽까지는 우선 '흙>흙, ᄀᆞ마니(潛)>가마니, ᄒᆞ야(ᄒᆡ야:毁, 破)>하야(해야)'와 같은 實例가 文獻에서 確認된다. 이 때의 ·>ㅏ는 ㅎ, ㄱ 下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싸이-(拔)>ᄲᆡ이-, 간나희(女)>ᄀᆞ나희'와 같은 逆行性 表記가 文獻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의 ㅏ>·는 ㅆ, ㄱ 下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逆行性 表記는 · 非音韻化에 그 基盤을 둔 것이다. 따라서 17세기 말엽까지의 · 非音韻化는 ㅎ, ㄱ, ㅆ와 같은 條件下에서 먼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들 子音部類는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資質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 非音韻化는 이와 같은 子音部類下에서 먼저 일어났던 것으로 解釋된다. 이 條件下에서의 · 非音韻化는 18세기 초엽 이전에 이미 完成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倭文字 轉寫資料에는 ㅎ, ㄱ, ㅂ, ㅍ 下에 나타나는 ·의 거의 전부가 a로 轉寫되어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말엽에는 'ᄎᆞ-(寒)>차-'처럼 ㅊ 下에서도 · 非音韻化를 보이는 實例가 나타난다. 이로써 · 非音韻化는 다시 舌端子音 環境으로 擴散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세기 초엽의 倭文字 轉寫資料에는 ㄷ, ㅌ, ㅼ 下에 나타나는 第一音節 ·의 거의 전부가 a로 轉寫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 非音韻化가 舌端子音中에서도 〔-粗擦性〕子音部類下에서 먼저 일어났음을 알려 준다. 이 子音部類에는 非語頭音節에만 나타나는 ㄹ도 包含된다. 그것은 ㄹ 下의 ·가 일찍부터 ㅏ에 合流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중엽의 國語文獻에는 'ᄇᆞᄅᆞᆷ(風)>ᄇᆞ람'과 같은 實例가 자주 나타난다. 倭文字 轉寫資料에도 'ᄇᆞᄅᆞᆷ'은 물론 '사ᄅᆞᆷ, -ᄯᆞᄅᆞᆷ'과 같은 ㄹ 下의 ·가 a로 轉

寫되어 있다. 이로써 、非音韻化는 ㄷ, ㅌ, ㅼ, ㄹ와 같은 舌端子音環境으로 擴散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들 子音部類는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 資質로 이루어진다.

倭文字 轉寫資料에는 ㅅ, ㅄ, ㅈ, ㅊ 뒤에 나타나는 、의 대부분이 o로 轉寫되어 있으나, 몇개의 形態素에 나타나는 、만은 a로 轉寫되어 있다. 그런데 '숣'(肉), '솖-'(烹), '춫-'(尋)과 같은 몇몇 形態素의 、는 a, o 두가지로 나타난다. 이 사실은 、非音韻化가 이번에는 이들 子音部類 環境으로 擴散되기 시작했음을 알려 준다. 이들은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 資質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18세기 초엽의 、非音韻化는 〔-鼻音性〕 子音環境下에까지만 擴散되는데 머물렀다. 따라서 18세기 초엽에는 鼻音環境下의 、만이 非音韻化를 겪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데 18세기 초엽까지의 、非音韻化 過程은 남아 있는 鼻音環境下의 、非音韻化 過程을 推理할 수 있게 해 준다. 、非音韻化에 관여한 音聲的 要因은 결국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과 같은 세가지 資質인데, 이 세가지 音聲資質間에는 우선 순위가 潛在하고 있다. 、非音韻化는 먼저 〔-鼻音性〕 子音部類下에서 일어 났지만, 같은 〔-鼻音性〕 子音部類中에서도 〔-舌端性〕 子音部類下에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非音韻化는 〔-舌端性〕 子音部類下에서 보다 〔+舌端性〕 子音部類下에서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같은 〔+舌端性〕 子音部類中에서는 〔-粗擦性〕 子音部類下에서 、非音韻化가 먼저 이루어졌다. 따라서 、非音韻化에 關與한 세가지 音聲資質의 우선 순위는 〔鼻音性〕이 第一要因, 〔舌端性〕이 第二要因, 〔粗擦性〕이 第三要因이었다고 解釋된다.

그런데 남아 있는 〔+鼻音性〕 子音中 ㅁ는 〔-舌端性, -粗擦性〕, ㄴ는 〔+舌端性, -粗擦性〕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의 ㅁ와 ㄴ의 對立을 決定짓는 辨別的 資質은 〔舌端性〕이다. 자연히 〔粗擦性〕은 ㅁ와 ㄴ의 對立에 있어서는 剩餘的 資質에 불과하다. 、非音韻化 過程은 第一要因이 같을 경우 第二要因으로 그 順序가 決定되었다. 그런데 、非音韻化는 〔-舌端性〕 子音部類에서 〔+舌端性〕 子音部類로 擴散되었다. 따라서 〔+鼻音性〕 子音部類中에

서는 〔−舌端性〕 子音인 ㅁ 下의 、에 非音韻化가 먼저 찾아 들었고, 〔+舌端性〕 子音인 ㄴ 下의 、가 그 뒤를 이었을 것으로 推理된다.

、非音韻化의 擴散過程에 대한 이상과 같은 論議內容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結果가 된다.

(70) a.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	<喉頭摩擦音, 軟口蓋破裂音, 兩唇破裂音> 部類下
b.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	<舌端破裂音, 流音> 部類下
c.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	<舌端摩擦音, 舌端破擦音> 部類下
d.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	<兩唇鼻音>下
e.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	<舌端鼻音>下

결국 、非音韻化는 (70)a, b, c, d, e와 같은 環境順으로 擴散되는 過程을 밟았으리라고 解釋된다. 그러나 本硏究에서는 18세기 초엽에 、非音韻化가 (70)a, b, c 環境에까지 擴散되었음을 確認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70)a, b, c는 다시 〔鼻音性〕 資質에 共通性을 보인다. 이에 따라 18세기 초엽까지는 〔−鼻音性〕 子音部類下에서만 、非音韻化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除外된 〔+鼻音性〕 子音部類下에서의 、非音韻化는 18세기 초엽 이후부터 점차 (70)d, e와같은 環境順으로 擴散되어 갔으리라고 생각된다. 本硏究에서는 이 過程까지를 實證的으로 確認할 수는 없었다.

筆者는 일찌기 、非音韻化의 時期를 18세기 초엽으로 推定한 바 있으나 (宋敏 1974), 本硏究를 통하여 그것이 速斷이었음을 自認하게 되었다. 모든 音韻變化가 획일적으로 일어난다는 前提는 하나의 理想的 가정에 지나지 않

으므로(李秉根 1979 : 123), 어떤 音韻變化의 完結時期를 정확하게 집어 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勘案하여 本研究에서는 ·非音韻化에 대한 完結時期보다 그 發端時期와 內面的 要因 및 擴散過程 등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우려 보았다. 자연히 ·非音韻化의 完結時期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確實한 結論을 내놓을 자신이 없다. 다만 여기서 그 時期에 다시 한번 집착해 본다면 ·非音韻化는 빠르면 18세기 초엽, 늦어도 18세기 중엽까지는 完結되었으리라고 짐작될 뿐이다. 이러한 推理는 (70)a, b, c와 같은 ·非音韻化의 擴散過程과 18세기 말엽의 國語文獻에 나타나는 ·非音韻化의 實例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좀더 精密한 結論은 (70)d, e와 같은 環境, 즉 〔+鼻音性〕子音部類下에서의 ·非音韻化에 대한 解明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口蓋性 下降二重母音의 音節主音 ·는 單母音 ·에 앞서 非音韻化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초엽의 倭文字 轉寫資料에 그러한 사실이 反映되어 있다. 여기에는 二重母音의 音節主音 ·가 先行子音에 관계 없이 거의 전부 a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때의 ·는 18세기 초엽 이전에 그 대부분이 ㅏ에 合流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單母音 ·보다 二重母音의 音節主音 ·가 非音韻化를 먼저 겪은 表面的 要因으로서는 後行하는 口蓋性 轉移音 y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現在의 筆者로서는 y의 어떤 內面的 要因이 先行하는 ·를 먼저 非音韻化시킬 수 있었는지 合理的으로 說明할 길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後日을 기다리기로 한다.

V. 結 論

本研究에서는 文獻音韻論의 方向과 前期近代國語 音韻論의 主要課題中 ㄷ 口蓋音化 및 ㆍ 非音韻化 두 課題가 집중적으로 論議되었다. 그 內容을 結論的으로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文獻音韻論의 方向

1.1. 文獻音韻論 研究는 우선 實證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2. 音韻史 研究에서는 특정 音韻變化의 發生時期와 그 內面的 原因에 대한 解釋 및 그 擴散過程에 대한 論議가 행해져야 한다.

1.3. 모든 文獻에는 필연적으로 保守的 表記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音韻史的 論議에는, 가능하다면 轉寫資料를 活用하는 것이 좋다.

1.4. 雨森芳洲(1668~1755)가 남긴 筆寫本「全一道人」(1729)과 그밖의 몇몇 倭文字 轉寫資料는 前期近代國語 音韻論 研究에 利用될 만한 價値가 있다.

1.5.「全一道人」의 轉寫表記에는 18세기 초엽의 國語中央方言에 대한 發話現實이 여러가지로 反映되어 있다. 특히 ㄷ 口蓋音化와 ㆍ 非音韻化에 대한 당시의 發話現實이 어떤 國語文獻보다 잘 反映되어 있다.

2. ㄷ 口蓋音化

2.1. 隨意的 變異로서의 ㄷ 口蓋音化는 16세기 말엽에 發生하기 시작하였다. 그 原因은 一般音聲學的으로 口蓋化 位置에서 破裂音보다 破擦音이 더 自然스럽기(덜 有標的이기) 때문일 뿐 아니라, 15세기에 非口蓋音이었던 ㅈ, 즉 c가 口蓋化 環境에서 č와 같은 口蓋性 變異音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2. ㄷ 口蓋音化는 高母音 ㅣ보다 口蓋性 轉移音 y 앞에서 먼저 隨意的 變異를 일으켜 ㅈ로 實現되기 시작하였다. 그 原因은 一般音聲學的으로 口蓋音化의 경우, ㅣ보다 y의 同化力이 더 크기 때문이었다.

2.3. ㄷ 口蓋音化는 '둏-(好)>좋-'에서 가장 먼저 確認된다. 이 形態素가 口蓋音化를 먼저 입게 된 것은 그 使用頻度가 높아서 오히려 偶發的 變異를 일으키기 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2.4. y 앞에서 시작된 ㄷ 口蓋音化는 점차 ㅣ 앞에까지 擴散되어, 17세기 말엽에는 音聲規則으로 굳어지면서, 話者의 語彙目錄에 變化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譯語類解」(1690)에 어느 정도 反映되어 있다. 여기에는 '티-(打)>치-'와 같은 ㅌ 口蓋音化가 나타날 뿐 아니라, '지-(負)>디-'와같은 逆行性 表記가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逆行性 表記는 音韻變化로는 解釋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종의 心理的 過剩修正으로서, 表記時에만 나타나는 類推일 뿐, 실제의 發話現實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逆行性 表記의 出現은 ㄷ 口蓋音化가 당시 話者의 文法에 계속 擴散되고 있었음을 示唆해 준다.

2.5. 18세기에 접어 들면서 ㄷ 口蓋音化는 더욱 많은 形態素로 擴散되어 갔다. 이와 같은 사실은 「伍倫全備諺解」(1721), 「全一道人」(1729), 「女四書諺解」(1736)에서 確認된다. 특히 「全一道人」의 轉寫와 國語添記에는 ㄷ 口蓋音化가 전면적으로 反映되어 있다. 반면에, 國語文獻에서는 ㅈ>ㄷ와 같은 逆行性 表記가 ㄷ 口蓋音化 實例보다 더 많이 發見된다. 이로써 18세기 초엽에는 形態素 內部의 ㄷ 口蓋音化가 通時的 變化로 굳어졌으며, 形態音韻論的 交替로서의 共時的 ㄷ 口蓋音化 規則이 文法에 追加되어 있었다.

3. ㆍ 非音韻化

3.1. 語彙形態素의 第一音節 母音 ㆍ의 非音韻化는 16세기 말엽에 發生하기 시작하였다.

3.2. 17세기 말엽에 이르기까지 ㆍ 非音韻化는 ㅎ, ㄱ, ㅂ 環境下에서 먼

저 이루어졌다. 16세기 말엽의 'ᄒᆞᆰ>흙, ᄀᆞ마니(潫)>가마니', 17세기 중엽의 'ᄒᆞ야(ᄒᆡ야 : 毁, 破)>하야(해야)', 17세기 말엽의 'ᄀᆞ새(剪子)>가ᄋᆡ'가 그 實例들이다. ㅂ 環境에서의 ㆍ非音韻化 實例는 文獻에서 직접 確認이 되지 않는다. 그 대신 'ᄲᅢ이-(拔)>ᄲᆡ이-'와 같은 逆行性 表記가 16세기 말엽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逆行性 表記는, ㄷ 口蓋音化에서 본 바와 같은 心理的 過剩修正으로서, 音韻變化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逆行性 表記의 出現은 兩唇無聲破裂音 環境下에서의 ㆍ非音韻化가 일찍부터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話者의 語彙目錄 認識에 混亂이 생기고 있었음을 示唆하고 있다. 17세기 중엽에는 '간나ᄒᆡ(女)>ᄀᆞ나희'와 같은 逆行性 表記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들은 ㆍ非音韻化가 ㅎ, ㄱ, ㅂ 部類 環境에서 먼저 일어났음을 뜻한다.

3.3. 18세기 초엽에는 이들 子音部類下에서의 ㆍ非音韻化가 거의 모든 語彙形態素의 第一音節에 擴散되어 있었다. 國語文獻과는 달리 「全一道人」에는 ㅎ, ㄱ, ㅂ, ㅍ뒤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ㆍ가 a로 轉寫되어 있어서, 이들 子音部類 環境의 ㆍ非音韻化는 18세기 초엽 이전에 完結되었음을 알려 준다.

3.4. ㆍ非音韻化는 다음으로 ㄷ 部類 環境에 擴散되었다. 國語文獻으로는 이 사실을 確認할 길이 없으나, 「全一道人」에는 ㄷ, ㅌ, ㅼ 뒤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ㆍ가 a로 轉寫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子音部類에는 非語頭音節에만 나타나는 ㄹ도 包含된다. 이미 17세기 중엽부터 'ᄇᆞᄅᆞᆷ(風)>ᄇᆞ람'이 國語文獻에 나타날 뿐 아니라, 「全一道人」에는 'ᄇᆞᄅᆞᆷ'은 물론 '사ᄅᆞᆷ', '-ᄯᆞᄅᆞᆷ'(耳矣)에 나타나는 ㄹ 下의 ㆍ가 a로 轉寫되어 있기 때문이다.

3.5. ㆍ非音韻化는 다시 ㅅ, ㅈ 部類 環境으로 擴散되어 갔다. 17세기 말엽에 이미 'ᄎᆞ-(寒)>차-'가 나타난다. 「全一道人」에는 ㅅ, ㅄ, ㅈ, ㅊ 뒤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ㆍ가 o로 轉寫되어 있으나, 'ᄉᆞᆯ지-'(肥), 'ᄎᆞ-'(寒, 滿, 佩)의 ㆍ만은 a로 轉寫되어 있고, 'ᄉᆞᆱ-'(烹), 'ᄎᆞᆽ-'(尋)의 ㆍ는 a, o 두가지로 轉寫되어 있다. 18세기 중엽에는 '사ᄋᆞ(骰子)>ᄉᆞ애, 잡말>ᄌᆞᆸ말'과 같은 逆行性 表記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ㆍ非音韻化가 ㅅ, ㅈ 部類 環境으로 擴散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이에 따라 18세기 초엽까지의 ㆍ非

音韻化는 鼻音을 除外한 모든 子音部類 環境에 擴散되어 있었다.

3.6. 鼻音 環境中에서는 ㅁ 뒤에서 ㆍ 非音韻化가 먼저 일어난 듯하다. 鼻音 이외의 경우, 舌端子音보다 非舌端子音 環境에서 ㆍ 非音韻化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全一道人」에는 鼻音 뒤에 나타나는 ㆍ가 例外없이 o로 轉寫되어 있으나, 17세기 중엽부터 '다ᄆᆞᆫ(只)>다만', 18세기 중엽에는 'ᄆᆞ야지(駒)>마야지'가 나타난다.

3.7. 결국 ㆍ 非音韻化의 擴散過程은 다음과 같은 環境順이었다.

a.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 子音部類(ㅎ, ㄱ, ㅂ)
b.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 子音部類(ㄷ, ㄹ)
c.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 子音部類(ㅅ, ㅈ)
d.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 子音(ㅁ)
e. 〔+鼻音性, +舌端性, -粗擦性〕 子音(ㄴ)

다만 本研究에서는 18세기 초엽에 a, b, c 環境에까지 ㆍ 非音韻化가 擴散되어 있음을 確認하였다. 이 環境下에서의 ㆍ 非音韻化는 당시 話者의 語彙目錄 認識에 變化를 가져 왔으나, 國語文獻의 表記에는 그러한 現實이 거의 反映되지 않았다.

3.8. 위의 사실로 미루어 ㆍ 非音韻化의 第一要因은 〔鼻音性〕, 第二要因은 〔舌端性〕, 第三要因은 〔粗擦性〕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粗擦性〕은 [+舌端性] 破裂音 部類에만 關與하였다. ㆍ非音韻化의 다음 過程은 鼻音環境으로서, ㅁ 뒤, ㄴ 뒤 順으로 擴散되었을 것이며, 그것이 完結된 時期는 늦어도 18세기 중엽이었을 것이다.

3.9. 한편, 口蓋性 下降二重母音의 音節主音 ㆍ는 單母音 ㆍ보다 먼저 非音韻化를 입었다. 「全一道人」에는 二重母音에 나타나는 ㆍ가 環境에 관계없이 거의 모두 a로 轉寫되어 있어, 그것이 18세기 초엽 이전에 非音韻化하였음을 暗示하고 있다. 이 때의 非音韻化를 促進시킨 要因은 ㆍ에 後行하는 口蓋性 轉移音 y였음을 알 수 있으나, 本研究에서는 그 內面的 理由에 대한 合理的 解釋을 내리지 못하였다.

4. 맺는 말

4.1. 本研究에서는 音韻變化의 發端을 그 확실한 實例가 하나라도 文獻에 처음 出現하는 時期로 잡았다. 개개인의 發話行爲에는 항상 隨意的 變異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러한 變異가 偶發的으로 表記에 露出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특정 語彙目錄에 대한 話者의 認識에 變化가 일어난 結果이기 때문이다.

4.2. 이러한 先驅的 變化는 隨意的인 것이어서, 그러한 變化가 個人語에서 個人語로, 한 形態素에서 다른 形態素로 擴散되는 데에는 상당한 時間이 所要된다. 개개의 形態素는 音韻論的, 形態的, 統辭的, 語彙的 意味的 制約, 곧 그 形態素의 統合的(syntagmatic), 範例的(paradigmatic) 與件에 따라 變化 時期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音韻變化가 隨意的 變異에서 音聲規則으로 一般化되는 過程을 거쳐 話者의 語彙目錄 認識에 變化를 가져오기까지에는 많은 時間이 要求된다. ㄷ 口蓋音化의 경우 그 先驅的 變化가 話者의 文法變化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一世紀, ㆍ 非音韻化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時間이 所要되었다. 다만 이것이 실제의 通時的 過程이었는지, 表記의 保守性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文獻만으로는 더 이상 확실한 判斷을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4.3. ㄷ 口蓋音化나 ㆍ 非音韻化는 결국 音聲的으로는 偶發的, 語彙的으로는 漸進的(phonetically abrupt, lexically gradual)인 類型에 속하는 音韻變化의 過程을 보인다. 이에 따라 本研究에서는 이들 音韻變化의 完結時期에 그다지 執着하지 않았다. 文獻에 남아 있는 制限된 資料만으로 최후의 形態素 하나까지 音韻變化를 겪은 時期를 정확히 집어낸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本研究에 提示된 音韻變化의 完結時期는 話者의 文法에 그것이 상당히 擴散되었음을 뜻할 뿐이다. 그 대신 本研究에서는 音韻變化의 發端時期와 그 內面的 原因, 특히 그 擴散過程에 관심을 기우렸다. 다만 17세기 말엽까지는 ㄷ 口蓋音化나 ㆍ 非音韻化에 대한 文獻的

實例가 너무 적다. 그러나 ㄷ 口蓋音化와 함께 나타나는 ㅈ>ㄷ, ㆍ非音韻化와 함께 나타나는 ㅏ>ㆍ와 같은 逆行性 表記는 각기 위의 두가지 音韻變化에 대한 간접적 根據로 利用될 수 있었다.

4.4. 本硏究에서는 倭文字 轉寫資料, 그중에서도 특히 「全一道人」에 큰 比重을 두었다. 그러나 여기에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言語의 文法은 母語話者의 言語知識이다. 그런데 雨森芳洲가 아무리 國語에 能通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外國人에 지나지 않는다. 당연히 國語文法에 대한 그의 認識에는 倭語文法의 干涉이 따랐을 것이다.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 轉寫表記에 당시 國語의 發話現實이 어느 정도 反映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倭語의 音聲的, 音韻論的 干涉이 介入되어 있다면, 그러한 資料만으로 國語音韻論을 論議하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결국 音聲層位의 情報가 아무리 잘 反映되어 있는 轉寫資料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結論的 解釋은 國語資料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母語話者의 머리 속에 內面化한 文法知識은 같은 母語話者의 言語資料를 통해서만 解明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主要 參考文獻>

姜信沆

1964. 十五世紀國語의 'ㅗ'에 대하여, 「陶南趙潤濟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78. 中國字音과의 對音으로 본 國語母音體系, 「國語學」 7.

1980. 齒音과 한글 表記, 「國語學」 12.

郭忠求

1980. 十八世記國語의 音韻論的 硏究, 「國語硏究」 43.

1984. 體言語幹末 舌端子音의 磨擦音化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91.

金芳漢

1964. 國語母音體系의 變動에 關한 考察, 「東亞文化」 2.

김수곤

1976. *Palatalization in Korean*, 탑출판사.

김영기

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탑출판사.

金完鎭

1963.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4.

1967. 韓國語發達史 上 音韻史, 「韓國文化史大系 V」(高大民族文化硏究所) 所收.

1970.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 「學術院 論文集」 10.

1971. 「國語音韻體系의 硏究」, 一潮閣.

1975. 飜譯朴通事와 朴通事諺解의 比較硏究, 「東洋學」(檀國大) 5.

1976. 「老乞大의 諺解에 대한 比較硏究」, 韓國硏究院.

1978. 母音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 「語學硏究」 14. 2.

金次均

1983. 「음운론의 원리」, 창학사.

金亨奎

1955. 「國語史」, 白映社.

1962. 「國語史硏究」, 一潮閣.

南廣祐

1962. 「國語學論文集」, 一字社(初版), 中央大 出版局(再版 1965).

1970. 敬信錄諺釋硏究, 「國語國文學」 49·50.

1974. 圓脣母音化現象에 관한 硏究, 「國語學」 2.

1977[a]. 「朝鮮(李朝)漢字音 硏究」, 一潮閣.

1977[b]. 女四書 硏究,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도수희

1983. 음운변화의 잠재기능에 대하여, 「語文研究」 12.

박종희

1983. 「국어음운론연구」, 원광대출판국.

朴昌遠

1983. 固城地域語의 母音史에 대하여, 「國語研究」 54.

徐廷範

1975. 「現實音의 國語史的 研究」, 汎友社.

宋 敏

1968. 「方言集釋」의 日本語 ha行音 轉寫法과 「倭語類解」의 刊行時期,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1974. 母音 「ㆍ」의 非音韻化 時期, 「論文集」(聖心女大) 5.

1975. 十八世紀前期 韓國語의 母音體系, 「論文集」(聖心女大) 6.

1982. 近代韓國語의 發話現實 數三, 「聖心語文論集」 6.

1985. 近代國語音韻論의 諸問題, 「語文學」(國民大) 4.

宋喆儀

1977. 派生語形成과 音韻現象, 「國語研究」 38.

1983. 派生語形成과 通時性의 問題, 「國語學」 12.

安秉禧

1957. 重刊杜詩諺解에 나타난 t ㅁ蓋音化에 對하여, 「一石李熙昇先生頌壽記念論叢」.

1972. 壬辰亂直前 國語史資料에 관한 二三의 問題에 대하여, 「震檀學報」 33.

1978. 村家救急方의 鄕名에 對하여, 「언어학」 3.

劉昌惇

1961. 「國語變遷史」, 通文館.

1964. 「李朝國語史研究」, 宣明文化社.

1971. 「語彙史研究」, 宣明文化社.

李基文

1959. 十六世紀國語의 研究, 「文理論集」(高麗大) 4.

1960. 소학언해에 대하여, 「한글」 127.

1968. 母音調和와 母音體系,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1969. 中世國語音韻論의 諸問題, 「震檀學報」 32.

1972[a].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所(서울大).

1972[b]. 「改訂國語史槪說」(初版 1961), 民衆書館.

1977. 濟州島方言의 'ㆍ'에 관련된 몇 問題,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1979. 中世國語 母音論의 現狀과 課題, 「東洋學」 9.

1983. '아자비'와 '아ᄌᆞ미', 「國語學」 12.

李基文・金鎭宇・李相億

1984. 「國語音韻論」, 學硏社.

李明奎

1974. ㅁ蓋音化에 對한 文獻的 考察, 「國語硏究」 31.

李秉建

1978. 한국어의 음운변천, 「언어학」 3.

李秉根

1979.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塔出版社.

1980. 동시조음규칙과 자음체계, 「말소리」 1.

이상억

1979. 국어음운론에 있어서의 공모성에 대한 재론, 「한글」 165.

李崇寧

1954. 「國語音韻論硏究」 第一輯 「、」音攷(增補版), 乙酉文化社.

1955. 「音韻論硏究」, 民衆書館.

1959. '、'音攷再論, 「學術院 論文集」 1.

1971. 十七世紀國語의 音韻史的 考察, 「東洋學」 1.

1977. /、/音의 消失期推定에 對하여, 「學術院 論文集」 16.

1978.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音韻史的 考察, 「學術院 論文集」 17.

1981. 「中世國語文法」(改訂增補版), 乙酉文化社.

李丞宰

1977. 南部方言의 圓唇母音化와 母音體系, 「冠岳語文硏究」 2.

1980. 求禮地域語의 音韻體系, 「國語硏究」 45.

田光鉉

1967. 十七世紀國語의 硏究, 「國語硏究」 19.

1971. 十八世紀後期國語의 一考察, 「全北大 論文集」 13.

1976. 南原地域語의 語末 -U型語彙에 대한 通時音韻論的 小考, 「國語學」 4.

1978. 十八世紀 前期國語의 一考察, 「어학」(전북대 어학연구소) 5.

전상범

1975. *Phonological Aspects of Late Middle Korean*, 汎韓書籍株式會社.

鄭然粲

1980. 「韓國語音韻論」, 開文社.

崔明玉

1974. 慶南三千浦方言의 音韻論的 硏究, 「國語硏究」 32.

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 出版部.

崔範勳

1981. 「中世韓國語文法論」, 二友出版社.

崔世和

1977.「十五世紀國語의 重母音研究」, 亞細亞文化社.

崔銓承

1975. 中世國語에서의 異化作用에 의한 圓唇性資質의 消失에 대하여,「國語研究」33.

崔泰榮

1983.「方言音韻論」, 一全州地域語를 中心으로一, 螢雪出版社.

崔鉉培

1942.「한글갈」, 정음사.

1959. "ㆍ"자의 소리값상고,「東方學志」4.

許 雄

1963. 英祖의「常訓」과「訓書」에 대한 國語史的 考察,「陶南趙潤濟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64. 齒音攷,「국어국문학」27.

1965.「國語音韻學」(改稿新版), 正音社.

1975.「우리옛말본」(형태론), 샘문화사.

黃希榮

1979.「韓國語音韻論」, 二友出版社.

井上史雄

1971. ガ行音の分布と歴史,「國語學」(日本:國語學會) 86.

大石初太郎・上村幸雄

1975(編).「方言と標準語」, 東京:筑摩書房.

大野 晋

1977[a](編).「岩波講座 日本語 5. 音韻」, 東京:岩波書店.

1977[b]. 音韻の變遷(1), 大野 晋(1977[a]) 所收.

奥村三雄

1972. 古代の音韻, 中田祝夫(1972) 所收.

1975. 近畿の方言, 大石初太郎・上村幸雄(1975) 所收.

1977. 音韻の變遷(2), 大野 晋(1977[a]) 所收.

小倉進平

1920.「國語及び朝鮮語のため」, 京城:ウツボヤ書籍店.

1964.「增訂補注 朝鮮語學史」(初版 1920, 增訂版 1940), 東京:刀江書院.

金田一京助

1938.「新訂增補 國語音韻論」, 東京:刀江書院.

外山映次

1972. 近代の音韻, 中田祝夫(1972) 所收.

中田祝夫

1972(編). 「講座 國語史 2. 音韻史・文字史」, 東京：大修館書店.

馬淵和夫

1971. 「國語音韻論」, 東京：笠間書院.

森田 武

1977. 音韻の變遷(3), 大野 晋(1977[a]) 所收.

濱田 敦

1970.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 東京：岩波書店.

1983. 「續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 京都：臨川書店.

安田 章

1964. 「全一道人の研究」, 京都大學 文學部.

1980. 「朝鮮資料と中世國語」, 東京：笠間書院.

Anderson, James M.

1973. *Structural Aspects of Language Change*, London : Longman.

Anderson, Stephen R.

1974.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New York : Academic Press.

Anttila, Raimo

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Baldi, Philip and Ronald N. Werth, eds.

1978. *Readings in Historical Phonology* : Chapters in the Theory of Sound Change,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Bynon, Theodora

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dor, István

1965. *The Rate of Linguistic Change*, The Hague : Mouton.

Hamp, E. P., F. W. Householder and R. Austerlitz, eds.

1966. *Readings in Linguistics II*,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ffner, R-M. S.

1950. *General Phonetics*,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Hoenigswald, M. M.

1960. *Language Change and Linguistic Reconstructio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yman, Larry M.

1975. *Phonology :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 Halt, Rinehart and Winston.

Jakobson, Roman, C. Gunnar M. Fant and Morris Halle

1951. *Preliminaries to Speech Analysis :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their Correlates*, Cambridge, Massachusetts : MIT Press.

Jakobson, Roman and Morris Halle

1956. *Fundamentals of Language*, The Hague : Mouton.

Jeffers, Robert J. and Ilse Lehiste

1979.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Massachusetts : The MIT Press.

Joos, Martin, ed.

1957. *Readings in Linguistics I : The Development of Descriptive Linguistics in America 1925~56*,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ing, Robert D.

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Kiparsky, Paul

1982. *Explanation in Phonology*, Dordrecht, Holland : Foris Publications.

Ladefoged, Peter

1971. *Preliminaries to Linguistic Phonetic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Lange, Roland A.

1971. 文獻資料に反映した中世日本語エ列音の口蓋性, 「國語學」(日本 : 國語學會) 85.

Lehmann, Winfred P.

1962. *Historical Linguistics : An Introduc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Lehmann, W. P. and Yakov Malkiel, eds.

1968. *Directions for Historical Linguistics : A Symposium*,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Makkai, Valerie Becker, ed.

1972. *Phonological Theory : Evolution and Current Practice*,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Martinet, André

1956. *La Description Phonologique avec Application au parler franco-provençal d'HAUTEVILLE* (Savoie), Genève : Librairie Droz.

Neeld, Ronald L.

1973. Remarks on Palatalization, *Ohio State University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4 : 37-49.

Schane, Sanford A.

1973.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Sommerstein, Alan H.

1977. *Modern Phonology*, Baltimore, Maryland : University Park Press.

Uldall, H. J.

1944. Speech and Writing, *Acta Liguistica* 4 : 11-16. In Hamp et al. (1966) : 147-151.

Wang, William S-Y.

1969. Competing Change as a Course of Residue, Language 45 : 9-25. In Baldi (1978) : 236-257.

<Abstract>

A Phonological Study on Early Modern Korean

——With Focus on *T*-palatalization and *ʌ*-dephonologization——

by Song, Min

In the present study we have discussed some directions for the textual phonology, and two major topics, *t*-palatalization and *ʌ*-dephonologization in Early Modern Korean.

1. Some Directions for the Textual Phonology

1. 1. A study on the textual phonology must be accomplished through the philological evidences.

1. 2. In an approach to phonological history, it is desirable to have a plausible discussion on the beginning of a phonological change, its intrinsic factors and diffusional processes.

1. 3. In a discussion on phonological history, if possible, it is helpful to analyze the materials transcribed by the foreign writing system, because almost all of the native literal records generally hold the conservative orthography.

1. 4. *Jen'ichidojin*(1729), a text book of Korean language for Japanese, which was compiled by Amenomori Hōshū(1668~1755), and some of the other materials transcribed by Japanese writing system are available for a phonological study on Early Modern Korean.

1. 5. We can find out valuable informations of the early period of the 18th century at various phonetic levels especially from *Jen'ichidojin* which reflects the actual pronunciations of Korean sentences.

2. *T*-palatalization

2.1. An example of *t*-palatalization as a free variation dates back toward the close of the 16th century. It was for the reason that not only affricates are more natural (or less "marked") than stops in the palatal position, but also a non-palatal affricate *c* could already have a palatalized variant as *č* in the 15th century.

2.2. *T*-palatalization occurred in front of high vowel *i* prior to palatal glide *y*. It is supposed that the assimilatory power of *y* is generally greater than *i* in the case of palatalization.

2.3. The first example of *t*-palatalization can be observed in a lexical morpheme *čyoh*-(to be good), which goes back to *tyoh*-. The reason why the palatalization could occur in this morpheme before others seems to be due to its high frequency, which was likely to give rise to an abrupt variation.

2.4. As the *t*-palatalization was diffused into the environment of *i*, it would begin, as a phonetic rule, to change the speaker's lexicons toward the close of the 17th century. In *Yŏkŏ-yuhai*(1690), t^h-palatalization such as t^hi-(to hit)>$\check{c}^hi$- as well as the retrogressive writing such as *či*-(to carry on the back)>*ti*- can be detected. This retrogressive writing which can not be interpreted as a phonological change is a kind of psychological hyper-correction which belongs to an analogy. But it suggests that *t*-palatalization was going to be diffused gradually throughout the speaker's grammar in those days.

2.5. *T*-palatalization was diffused into almost all of the morphemes in the early period of the 18th century. It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evidences which appear in the literal records such as *Ōryunčŏnpiŏnhai* (1721), *Jen'ichidojin* and *Yŏsāsŏ-ŏnhai* (1736). Especially, *t*-palatalization is reflected extensively in the transcription as well as Korean writing of *Jen'ichidojin*. On the other hand, Korean literal records show the retrogressive writing much more than the palatalized examples. These facts mean that *t*-palatalization within the morpheme structure came to be completed as a diachronic change, and the morphophonemical

t-palatalization as a synchronic rule was added to the Korean grammar in the early period of the 18th century.

3. Λ-dephonologization

3.1. Two examples of ʌ-dephonologization in the first syllabic position of lexical morphemes are traced around the close of the 16th century.

3.2. Toward the close of the 17th century, ʌ-dephonologization appears before others under the environment of the consonantal class such as *h*, *k* and *p*. This fact is certified through the examples such as *hʌrk* (earth, soil)>*hirk*, *kʌmani*(quietly, motionlessly)>*kamani*, *hʌya* (*hʌyya* : to damage, to destroy)>*haya*(*hayya*) and *kʌzay*(scissors)> *kaʌy*. Any example of ʌ-dephonologization under the environment of *p* does not appear, but the retrogressive writing as in p^{q}*ai*-(to pull out, to pick out)>p^{q}*ʌi*- is observed around the close of the 16th century. The occurrence of such retrogressive writing was based on the confusion in speaker's lexicon due to the ʌ-dephonologization under the environment of *p* class. All of these facts suggest that ʌ was dephonologized before others under the consonantal class of *h*, *k* and *p*.

3.3. In the early period of the 18th century, ʌ-dephonologization was diffused throughout the first syllable of the lexical morphemes under the above mentioned condition. Almost of all ʌ's preceded by *h*, *k*, *p* and p^h are transcribed with *a* in *Jen'ichidojin*, which shows the different aspect from Korean literal records. These evidences lead to conclude that ʌ-dephonologization under such consonantal class was completed prior to the early period of the 18th century.

3.4. As a following process, ʌ-dephonologization was diffused into the environment of *t* class. This fact can not be confirmed through Korean literal records, but almost of all ʌ's preceded by *t*, t^h and t^q, are transcribed with *a* in *Jen'ichidojin*. Liquid *r* which is distributed only in non-initial syllables included among the same class. It is for the reason that not only *pʌrʌm*(wind)>*pʌram* appears in Korean literal records around the middle period of the 17th century, but also ʌ's preceded by *r* as in *sarʌm*(human being), -t^{q}*ʌrʌm*(just, only) and *pʌrʌm* are

transcribed with *a* in *Jen'ichidojin*.

3.5. Over again, *ʌ*-dephonologization seems to be diffused under the environment of *s* and *č* class. As an early example, *$č^h$a-* which goes back to *$č^h$ʌ-* appears toward the close of the 17th century. In the case of *Jen'ichidojin*, almost of all *ʌ*'s preceded by *s*, *s^q*, *č* and *$č^h$* are transcribed with *o*. But a few of *ʌ*'s as in *sʌrm-*(to boil) and *$č^h$ʌč-*(to search for, to find) are transcribed not only with *o* but also with *a*. In addition, some of the other *ʌ*'s as in *sʌrči-*(to be fat) and *$č^h$ʌ-*(to be cold; to be filled; to attach) are transcribed only with *a*. On the other hand, the retrogressive writing such as *sazʌ* (a die)>*sʌay* and *čapmal* (useless talk)>*čʌnmar* appears in Korean literal records toward the middle period of the 18th century. All of these evidences suggest that *ʌ*-dephonologization was going to be diffused into the environment of *s* and *č* class. As a result, *ʌ*-dephonologization was diffused throughout the environment of non-nasal consonantal class in the early period of the 18th century.

3.6. In the case of nasal environment, it seems that *ʌ*'s preceded by *m* would be dephonologized prior to *ʌ*'s preceded by *n*, because *ʌ*'s preceded by non-coronal consonants were dephonologized prior to *ʌ*'s preceded by coronal in the case of non-nasal consonant class. Actually, *tamʌn* (merely)>*taman* and *mʌyači* (a pony)>*mayači* are detected in Korean literal records respectively in the middle period of the 17th and 18th century.

3.7. According to the philological evidenc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iffusional processes of *ʌ*-dephonologization were as follows:

a. [−nasal, −coronal, −strident] consonantal class (*h*, *k* and *p*)
b. [−nasal, +coronal, −strident] consonantal class (*t* and *r*)
c. [−nasal, +coronal, +strident] consonantal class (*s* and *č*)
d. [+nasal, −coronal, −strident] consonant (*m*)
e. [+nasal, +coronal, −strident] consonant (*n*)

In the present study, we could ascertain only that *ʌ*-dephonologization was diffused in turn as far as a, b and c environments in the early period of the 18th century. In spite of *ʌ*-dephonologization under these

conditions, such reality was hardly reflected in Korean literal records.

3. 8. In conclusion, the primary phonetic factor which was related with ʌ-dephonologization was [nasal] feature, the second one, [coronal] and the last one, [strident] which was relevant only to coronal consonantal class. Thus, ʌ-dephonologization is supposed to be completed at the latest in the middle period of the 18th century.

3. 9. In the meanwhile, the syllabic ʌ in palatal falling diphthong was dephonologized earlier than monophthong ʌ. Such fact is reflected thoroughly in the transcription of *Jen'ichidojin*. The phonetic environment in this case is a palatal glide *y* preceded by ʌ, but in the present study we could not interpret plausively its intrinsic reasons which remain for further studies in the future.

◇ 索　　引 ◇

※「　」表示는 文獻임을 뜻함
※ 數字 끝의 n은 脚註를 나타냄

ㄱ

ㄱ系 ㅁ蓋音化……57n
ㄱㅁ蓋音化……56, 57, 58, 76
「家禮諺解」……74, 94
假名……19, 19n, 20
___表記……19, 52
姜栢(耕牧子)……15, 16n
姜信沆……69, 73
康遇聖……47n, 67
個別的 音韻變化……10, 11
「改修捷解新語」……33n, 67n, 68n
個人語(idiolect)……27, 28, 32, 64n, 141
開合……20
「客館璀粲集」……12, 15, 15n, 16n, 52n, 128n
「敬信錄諺釋」……103
競爭規則(competing rule)……45, 71
「雞林類事」……36
共謀(conspiracy)……74
共時的 交替……38, 47, 48
___ 發話現實……63
___ 變異……90
___ 變異音……73
___ 分化……96
___ 流動性……29
___ 音韻現象……7n, 70, 77, 86
過剩修正(hyper-correction)……56, 61, 76, 86, 87, 88, 89
郭忠求……9, 33, 56, 70, 107
慣用的 表記……128
ㅁ蓋性 變異音……69, 72n, 89, 137
___ 上昇二重母音(rising diphthong) 23, 47, 51, 68, 72n
___ 轉移音……56, 63, 64, 65, 73, 74, 89, 106, 136, 138, 140
___ 破擦音……70
___ 下降二重母音(falling diphthong)……96, 102, 106, 124, 136, 140
ㅁ蓋音化(palatalization)…7, 8, 33, 34, 37n, 47, 57n, 63, 64, 65, 66, 67, 67n, 68, 69, 70, 71, 72, 72n, 73, 74, 75, 76, 77, 79, 81, 83, 85, 86, 87, 88, 89, 90, 138
___ 規則……72
___形……65, 67, 67n, 86
ㅁ蓋化 位置……89, 137
___ 環境……89, 91, 137
構造的 빈칸(structural gap)……42
國語添記……19, 41, 42, 56, 58, 60, 61, 77, 78, 80, 81, 83, 84, 85, 90, 101, 108, 110 111, 112, 113, 114, 115, 115n, 118n, 122, 127n, 128, 138
「국역해행총재」……15n, 17n, 52n
「勸懲故事」……13, 18, 112n, 113n, 115n
規則追加(rule addition)……27
近畿方言……40n
近代中國語……87n
給與關係(feeding relation)……72
金芳漢……129n

金履泼 ……………………………………72n
金完鎭 ……9, 10n, 94, 97, 101n, 107, 129, 129n
金田一京助 ………………………38, 40n
金亨奎 ……………………………9, 72n

ㄴ

ㄴ舌側音化………………………………45
南廣祐……………………………9, 77, 103
南部方言 ……………………39, 40, 58, 76
_______ 要素 ……………………………57
內面的 原因 ……………………………11
_____ 有機性………………………………9
內的 再構 ………………………………9n
Neeld ……………………………………64
「老乞大諺解」……46, 74, 98, 100, 105, 118

ㄷ

ㄷㅁ蓋音化……9, 11, 24, 32, 32n, 33, 33n, 34, 35, 51, 58, 61, 63, 64, 64n,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9, 81, 84n, 85, 86, 87, 88, 89, 90, 91, 108, 137, 138, 139, 141, 142
單母音化(monophthongization) ……7, 33n, 68, 72n, 125n
單語境界(word boundary) ……21n, 30, 44, 46
對立………………………96, 101, 131, 134
____關係 ……………………………101, 126
____의 짝…………………………………129
對譯方式 …………………………………29, 30
「東國新續三綱行實」……31n, 46, 66, 67n, 73, 74n, 94, 97, 98, 98n, 100
同器官音(homorganic) ………………38
_______性 入過渡音(on-glide) 38, 38n
東南方言 ……39, 40, 54, 55, 57, 58, 67, 68
_______形…………………………………40
_______ 要素……………………………47n
「同文類解」……31n, 32, 104, 105, 106, 128
東北方言 …………………………39, 68
同音異義語(homophone) ……………132
「東醫寶鑑」……………………64, 66, 89
同化…………………45, 50, 95n, 97, 104
____規則 ………………………………45n
____力 …………………………65, 89, 138
____現象……………………………44, 45, 50
「杜詩諺解」………………………………45

ㄹ

Ladefoged ………………………………71

ㅁ

馬淵和夫…………………………………38
模寫(replica) ………………11n, 35, 37
母音調和…………………………………30
____體系…………………………………93
____推移……………………………101n, 129
____衝突 ………………48, 55, 55n, 70, 79
「牧牛子修心訣」…………………………95
木村理右衛門……………………………13
木下實聞(蘭皐) ………………12, 15, 16n
文法的 干涉 ……………………………29
_____ 對立 ……………………………38
_____ 變化 ……………………………28
文法知識……66, 68, 74, 90, 103, 129, 131, 141

文法形態素……………………75, 77, 91
文體的 要因…………………………26n
文獻音韻論(textual phonology)……11, 25, 26, 27, 29, 137
民間語源的 類推………………………26n

ㅂ

朴昌遠 ………………………………9n
「朴通事諺解」……31n, 98, 99, 101, 128n
半濁音 ………………………………22n
_____記號……………………………14n
_____文字……………………………22n
發音式 模寫……………………………11n
發話單位 ……………………………21n
____行爲…………………………47, 141
____現實……11, 19, 20, 22, 23, 24, 25, 26, 27, 28, 31n, 35, 36, 36n, 37, 39, 40, 41, 43, 45, 46, 50, 51, 53, 55n, 60, 71, 76, 85, 86, 87, 90, 112, 113n, 122, 123, 127n, 137, 138, 142
方言圈……………………………………39
____音聲差 …………………………52n
____的 交替 …………………………38
____的 要素………32, 34, 40, 54, 58, 67n, 74n, 97, 98, 98n
「方言集釋」…………………………33n, 102
配分的 制約(distributional constraint) 93, 126n
「飜譯老乞大」…………………………105
飜譯文體…………………………………29
「飜譯朴通事」…………………………46
「飜譯小學」……………………………72, 73
範例的 關係(paradigmatic relation)… 76, 127n, 141
_____ 目錄(inventory)………………93
_____ 體系(system) …………………61
梵字………………………………………15
辨別的 資質(distinctive feature)……22
邊音性(grave) ………………………99n
補償(compensation) …………………48
保守的 發話現實 ………………………28
福島邦道……………………………12n, 16
不正回歸(false regression) …………56
不連續的 記號(discrete symbol)…25, 35
______ 音聲單位 ……………………25
非脣音化 ………………………………101
非言語的 要因…………………………66n
鼻音性(nasal)…31, 37, 38, 39, 48, 95, 98, 99, 100, 101, 104, 106, 107, 125, 126, 129, 132, 133, 134, 135, 136, 140
_____ 入過渡音 ……………………38n, 50
非音聲性的 要素(non-phonetic effect) ……………………………………12
非音韻論的 變化…………………26n, 27n
_______ 要因…………………………72n
_______ 解釋 …………………………65
非音韻化(dephonologization) …7, 8, 9, 11, 31, 31n, 51, 93, 94, 95, 98, 99, 100, 104, 106, 111, 114, 124, 124n, 125n, 126, 128, 132, 134, 135, 136, 138, 140
鼻音化 ………………………………49, 50
濱田敦 ………………………………13n

人

寺島良安…………………………………12
「四法語」…………………………………95
社會的 擴散 ……………………………28
「三譯總解」……………………………56

森田武 ……………………………67n, 79
三重母音(triphthong) ……………23, 79
西南方言 ………57, 57n, 64n, 68, 98, 98n
______ 資料…………………………57n
西北方言 ……………………………72n
「釋譜詳節」…………………………31n
先破裂性(prestopped) ………36, 37, 43n
舌端性(coronal)…31, 95, 97, 98, 99, 99n, 100, 101, 104, 106, 107, 119, 125, 126, 127, 128, 129, 133, 134, 135, 140
舌側音化 ……………………44, 45, 45n
聲調方言圈……………………………39
小倉進平………………………………12
「小學諺解」…31n, 44, 46, 47n, 49, 64n, 65, 66, 71, 89, 94, 98, 99, 100, 105
宋敏 ……………………………9, 32n, 33
隨意的 變異(free variation)……27, 66, 71, 73, 74, 89, 90, 91, 127, 137, 138, 141
唇音化(labialization)…… 7, 8, 9, 11, 37, 101, 130, 131, 132
申維翰 ……………………………15n, 17n
「新增類合」……31n, 56, 64, 64n, 98, 98n
心理的 過剩修正…57, 76, 85, 90, 95, 104, 127n, 138, 139
______ 類推 ……………………87, 89, 90
______ 징검다리 (psychological bridge) ………………28, 31n, 32, 45

ㅇ

ㆁ非音韻化 …93, 94, 95, 97, 98, 99, 99n, 100, 101, 102, 104, 106, 106n, 107, 108, 111, 119, 121, 122, 122n, 124, 124n, 125, 125n, 126, 126n, 127, 127n, 128, 129,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安秉禧 ……………………………64n, 68
安田章…13n, 17n, 18, 18n, 20n, 22n, 32n, 39, 43, 58, 80n, 113n
語源意識………………………………76
____的 關係…………………………26n
「御製內訓」……………………………32, 33
語彙目錄(lexicon) …28, 66n, 73, 104, 130, 131, 132, 138, 139, 140, 141
——的 干涉 …………………………29
____的 範疇(lexical category) ……65, 124, 124n
____的 制約 ……………………56, 141
____形態素(lexical morpheme) ……7, 10, 31n, 42, 51, 55, 56, 57, 64, 65, 66, 73, 75, 77, 78, 89, 90, 93, 94, 95, 98, 100, 103, 114, 121, 122, 123, 126, 127n, 132, 133, 138, 139
「諺文志」……………………………63, 65
言語習得………………………………73
____知識 ……………………………142
____行爲(linguistic performance)…… 124n, 129n
「諺解胎產集要」………28, 46, 74n, 94, 99
「女四書諺解」…32, 33, 33n, 34, 35, 75, 76, 77, 86, 87, 91, 118, 136
力動的 現象(dynamic phenomena)…10
「譯語類解」……46, 66, 67n, 74, 86, 88, 89, 90, 94, 98, 99, 101, 104, 105, 106, 107n, 111, 114, 124, 126, 127, 127n, 129, 131, 138
「譯語類解補篇」……………………97
逆行同化 ………………………………8
____性 變化…………………………31n
____性 類推表記……………………126

逆行性 表記………31, 99, 100, 104, 104n, 126, 127n, 129, 130, 131, 132, 133, 138, 139, 142
連結剩餘性(sequence redundancy)…44
「練兵指南」…………………64, 64n, 65n
「伍倫全備諺解」…29, 31n, 86, 87, 88, 90, 100, 105, 107, 107n, 116, 128n, 131, 138
「五倫行實圖」………………………103
Wang ……………………………28, 91
汪廷訥 ……………………………13, 18
y 脫落規則………………………71, 72n
倭文字……11, 11n, 12, 13, 13n, 16, 18, 19, 20, 21, 22, 22n, 23, 35, 36, 38, 39, 41, 42, 49, 77, 79, 90, 99, 108, 122, 123
倭語……11n, 12, 13, 15, 16n, 18, 20, 33n, 35, 37n, 38, 39, 40, 42, 43, 47n, 51, 52n, 55n, 56, 60
「倭語類解」………………32n, 33n, 56, 97
外國語 資料 …………………………35
外山映次 ………………38, 38n, 40n, 79
外的 休止 ……………………………20
偶發的 發話 …………………………89
____ 變異……………………66, 89, 138
____ 變化 ……………………………97
____ 分化 ……………………………96
雨森芳洲…12, 16, 17, 17n, 18, 19, 20, 21, 22, 23, 24, 41, 42, 43, 44, 45, 46, 48, 50 51, 52n, 53, 54, 58, 60, 61, 79, 85, 110, 115n, 128, 137, 142
움라우트(Umlaut)…………………………7
圓唇性 上昇二重母音 ……………47, 52n
____ 二重母音 ………………………16
____ 轉移音 ………………………40n, 55n
有氣音化(aspirated) …………7, 8, 49, 60
劉昌惇…9, 47, 47n, 64n, 67n, 69n, 87, 87n, 94, 95, 95n, 103
類推…20, 26n, 31, 31n, 58, 76, 85, 99, 105, 106n, 127n, 138
____的 過剩修正 ………………………87
____的 變化(analogical change)……… 27n, 31, 45n, 56, 57, 76
____的 表記……61, 90, 95, 104, 127n, 128
有標的(marked)………………71, 89, 137
柳僖………………………………………63
柳希春 ……………………………………64n
融合(coalescence) ………………7, 48, 49
一唇音化 ………………129, 130, 131, 132
音聲强化 …………………………………8
____規則(phonetic rule) ……20, 27, 28, 90, 141
____規則化…………………………91, 138
____記號 ………………13, 13n, 18, 25
____記號體系………………………………25
____同化 …………………………………21n
____部類 …………………………………131
____象徵的 分化 …………………………96
____資質·35, 36n, 37n, 39, 95, 111, 127, 134
____資質體系 ………………………………37n
____的 干涉………………………………142
____的 容認可能性(phonetic plausibility) ……………………12, 56, 99n
____層位(phonetic level)……11, 35, 35n 142
____學的 普遍性 …………………………89
____環境………8, 30, 32, 69, 73, 74, 93, 97
音素論 層位………………………………21n
____的 句(phonemic phrase)……21, 21n
音韻論的 要因……………………30, 73
____ 制約………………………………141
____ 解釋……………………………65, 70

音韻目錄……………………………………94
——變化 …………7, 8, 9, 11, 25, 27, 27n, 28, 29, 31, 31n, 56, 66n, 76, 89, 91, 99, 104, 105, 124n, 135, 136, 137, 138, 139, 141, 142
____體系 ……………………………36n, 41, 93
____現象…… 10, 35, 44, 45n, 49, 69, 124n
音節境界 ……………………………47, 48
____構造 ………36n, 41, 48, 60, 66, 71, 89
____記號……………………………………42
____文字……………………………………21
____位置……………………24, 61, 94, 133
____位置的 制約……………………56, 93
____主音 ……42, 43n, 61, 79, 96, 97, 102, 106, 117, 119, 121, 122, 124, 125, 136, 140
____表 ……………………………16, 52n
音便…………………………………………20
李基文 ……9, 70, 74, 89, 93, 94, 102, 107, 127n, 129n
「二倫行實圖」 ………44, 45, 46, 47n, 105
李明奎 …9, 33n, 57, 64, 66, 66n, 70, 73, 88
李秉根 ……………………37, 39, 99n, 136
李丙疇 ……………………………………67n
李崇寧 ……9, 94, 96n, 97, 104, 104n, 107
李丞宰 ……………………………………9n
「李朝語辭典」……………………67n, 69n
意味變化……………………………………27
____分化形 ……………………122n, 128
____上의 潛在性 ………………………58
____的 類似性 …………………………95
____的 制約……………………………141
____資質……………………………………66
依存形態素…………………………97, 125
「伊路波」…………………………12n, 16n
異音的 交替(allophonic alternation)… 27, 28, 37, 66, 74, 76, 89
異形態………………………………………57
1對1의 對應(one-to-one correspondence) ……………………………25, 27
日本假名……………………………………19
日本語西部方言……………………………39
剩餘的 資質(redundant feature) 36, 134

ㅈ

ㅈ口蓋音化……9, 68, 70, 71, 72, 73, 74, 89
資料上의 制約 ……………………………10
____的 現實性 ……………………………35
自立形態素 …………………48, 71, 121n
自然部類(natural class)……………99n
子音部類 ………………132, 133, 134, 139
____體系……………………………………74
再構造化(restructuring) ……45n, 48, 70
再配列(reordering) ……………………72
田光鉉…10n, 86, 94, 95n, 97, 98, 103, 107, 129
前期近代國語……………………9, 47, 137
前部母音化……………………………7, 31
轉寫(transcription)……11, 11n, 12, 14n, 18, 19, 20, 21, 22, 23, 24, 33n, 35, 35n, 36, 36n, 37, 38, 39, 42, 43, 43n, 50, 55, 55n, 56, 60, 61, 77, 77n, 78, 79, 80, 81, 82, 83, 84, 85, 90, 97, 99, 100, 101, 106 108, 111, 112, 113, 114, 115, 115n,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3n, 124 125, 126, 127, 127n, 128n, 133, 134, 138, 139, 140
____方式……………………………19, 42, 43
——用 文字……………………………36n
____資料 ………9, 12, 17, 35, 36, 36n, 40

轉寫表記…… 13, 51, 112, 122n, 137, 142
「全一道人」…12, 17, 18, 19, 20, 22, 35, 36, 39, 41, 42, 43, 44, 51, 53, 54, 55, 56, 57 58, 76, 77, 77n, 79, 81, 84, 85, 86, 89, 90, 97, 99, 100, 101, 106, 108, 111, 114 114n, 116, 120, 121, 121n, 122, 122n, 123n, 124, 124n, 127, 127n, 128n, 132, 137, 138, 139, 140, 142
轉字(transliteration)…11n, 13, 13n, 14n, 18, 22, 22n, 35, 42, 79
___方式 ……22, 22n, 23, 43
全州地域語 ……57n
漸進的 弱化(gradual weakening) …48
鄭東愈……63
靜的 構造(static structure) ……10
條件的 變異音… 37n, 39, 41, 42, 43, 43n
朝比奈文淵……15
「朝鮮館譯語」……36
「朝鮮物語」…13, 14, 15, 36, 37, 38, 39, 40, 41, 43, 99, 111, 113, 114,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3n, 125
粗擦性(strident) …127, 127n, 128, 133, 134, 135, 140
中國語 ……30, 35
中世國語 …29, 30, 31n, 40, 46, 47, 55, 86, 87, 93, 96, 98, 118n
中央方言 …7, 32, 34, 39, 40, 41, 47, 47n, 51, 53, 54, 55, 56, 57, 57n, 58, 64, 66, 67, 68, 74, 77, 86, 88, 89, 91, 137
中和(neutralization) …50, 94, 95, 126n, 132, 133
___的 對立……101, 126, 129, 131
___的 對立關係 ……95, 126, 132, 133
「增修無寃錄諺解」……58
地理的 分布 ……57
持續性(continuant)……127n
地域性……15, 32, 36, 41, 51
___的 背景 ……39

ㅊ

借用 ……37n, 56, 57, 57n, 58
___語 ……87n
綴字式 模寫……11n
___ 轉字 ……23
「捷解新語」…33n, 37n, 46, 47n, 66, 67, 68, 68n, 98, 100, 101, 125
聽覺的 音聲現實 ……11
___ 認知……35, 37
淸濁……20
___表記 ……40n
「村家救急方」……64n, 68
崔明玉 ……9n
崔泰榮 ……57n

ㅋ

Kiparsky ……72

ㅌ

ㅌㄷ蓋音化 ……86, 88, 138
濁音 ……14n, 37, 38, 38n, 42, 77n, 80n
奪取關係(bleeding relation)……72
統辭的 機能 ……123n
___ 制約……141
___ 過程……56, 89, 129, 141
___ 變化……70, 71, 73, 90, 91, 96, 97, 104, 138
通時的 變化過程 ……29
___ 音韻變化 ……63
___ 推移 ……129n, 141
統合的 構造(syntagmatic structure)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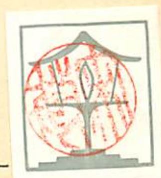
ㅍ

破擦音化 ……71, 79
片假名 ……12, 18
平假名 ……12, 13
「平北方言辭典」……72n
表記改新 ……27, 29
____共存 ……110
____規範 ……19, 60
____의 保守性 ……11
____의 流動性 ……32
____의 現實性 ……26
____體系……36
表面的 音聲環境……106
______ 表記 ……75
表面形……45, 77, 105, 124n
必須的 規則 ……28

ㅎ

ㅎ口蓋音化……39
下降二重母音(falling diphthong) …61
Hyman ……64
漢字語 ……44, 45, 112
____音 ……77, 106, 110, 118, 119, 120, 121, 122, 124, 124n
____形態素……43, 45, 47, 48, 65, 73, 80n, 81, 84, 91, 106n, 124, 124n
「漢清文鑑」……56, 102, 103
咸鏡道方言 ……64n
「海游錄」……15n, 17n, 52n
許雄 ……9, 10n, 47, 69, 70
許浚 ……28, 73n
現代國語…31n, 37, 37n, 45, 56, 80n, 95n, 105n
____日本語……11n, 14n, 37n, 38n
現實的 口語 ……35
______ 發話 ……43
形式境界(formative boundary)……21n
形態規則(morphological rule)……47
____論的 解釋 ……65
____論 層位……21n
____音素 ……21n
____音韻論的 交替(morphophonemical alternation)…7n, 10, 77, 85, 91, 111, 114, 138
____音韻論的 口蓋音化 ……90
____音韻論 層位……36n
形態素 …8, 10, 21n, 28, 31, 42, 43, 44, 56, 66, 68, 80n, 85, 86, 89, 90, 93, 95, 96, 98, 100, 101, 103, 104n, 112, 113n, 114 121n, 122, 123, 126, 126n, 127, 128n, 131, 132, 134, 138, 141
______ 結合 ……10, 44, 88
______ 境界(morpheme boundary)… 21n, 30, 46, 47, 48, 49, 55, 55n, 85, 86, 88, 91
______ 構造……10, 35
______ 的 擴散……28
______ 干涉 ……28
______ 制約(morphological constraint) 64, 141
混態(blend and contamination) …27n
洪致中……15
「和漢三才圖會」……12, 13, 14, 15, 36, 37, 38, 38n, 39, 40, 41, 43, 99, 106, 113,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3n
後期近代國語 ……9, 57n
喉頭音化(laryngealized) ……7, 8
「訓蒙字會」……47n, 106
「訓民正音」……93

前期近代國語 音韻論 研究
—특히 ㅁ蓋音化와 ㆍ音을 中心으로—



1986年 8月 25日 初版印刷
1986年 9月 5日 初版發行

著者 宋 敏
發行者 金 炳 喜

發行處 塔 出 版 社
서울特別市 鍾路區 新營洞 183-1
대표전화 353-9999, 영업과 353-9991~4
登 錄 1975.5.21 제 1-428 호

값 원



